고등학교

국어

정답과 해설

1 문학 속으로

(1) 시와 서정

소단원 핵심 문제 pp. 10-11

1 ③ **2** ④ **3** ④ **4** ⓐ는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외로운) 시간이고, ⓑ는 임과 함께하는 긍정적(기쁨의) 시간이다. **5** ① **6** ② **7** ④ **8** 서리서리, 구뷔구뷔 **9** ⑤ **10** ④

1. 이 시조에서는 추상적 개념인 시간(밤)을, 베어 내고 보관해 두었다가 펼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인 것처럼 형상화하였다.

2. 이 시조의 화자는 '어론 님'이 왔으면, 와서 오래도록 함께 정을 나눴으면 하고 바라는 감정, 곧 그리움과 기다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조의 화자는 임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임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또한, 임의 부재에 대한 정서만 드러나 있을 뿐, 임이 떠나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② 이 시조의 화자는 임이 와서 오래도록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지 않았다.

③ 이 시조에는 임이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금방 돌아가는 상황만 제시되어 있을 뿐, 임을 여읜 상황이나 화자의 절망적 슬픔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시조는 임에 대한 애틋함과 그리움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조로 임금에 대한 충정과는 관련이 없다.

3. ㉠과 ㉡에 명령형 어미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서리서리', '구뷔구뷔'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 '서리', '구뷔'의 형태소를 반복하고 있다.

③ '서리서리', '구뷔구뷔'는 의태어로 시간을 베어 내어 보관했다가 펼쳐 내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의미상 대립되는 시어인 '넣다'와 '펴다'를 사용하여 임과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5. 이 시조에서는 '동짓달 밤' 같은 자연물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인간과 자연의 대립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상황을,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이 시조에는 '임의 존재 여부'의 대조가 나타나 있다.

③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므로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고,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따라서 이 시조는 '시간의 길고 짧음'의 대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④ '동짓달'은 추운 계절이고, '어론 님 오신 날'은 '춘풍'이 부는 따뜻한 계절이다.

⑤ '서리서리 너헛다가'와 '구뷔구뷔 펴리라'에서 '넣다'와 '펴다'의 상반되는 동작의 대조가 나타나 있다.

6. 이 시조에서는 물질이 아닌 시간을 마치 물질인 것처럼 베어 내었다가 다시 펼쳐낸다고 하며,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 냄으로써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시조 또한 가슴에 창(窓)을 내고자 하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7. 이 시조는 4음보의 율격을 보이는 평시조이므로, 3음보 율격을 지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한 수로 하나의 작품을 이룬 단시조이다.

② 종장의 첫 음보는 '어론 님'으로 3음절로 되어 있다.

③ 초장, 중장, 종장의 3장과 6구의 평시조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⑤ 이 작품은 대체로 3 · 4조, 4 · 4조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변주를 보이고 있다.

8. 순우리말 의태어인 '서리서리'와 '구뷔구뷔'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또한 '서리서리'는 둥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을, '구뷔구뷔'는 그 감아 놓은 것을 펴는 모양을 표현하여 짝을 이루고 있다.

9. ⑤는 어떤 사건이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감동, 교훈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갈래인 교술 문학의 특성이다.

|오답 풀이| ① 시는 심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독자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문학 갈래이다.

② 시는 정서를 압축하여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학 갈래이다.

③ 시는 음악성에 바탕을 두고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문학 갈래이다.

④ 시는 함축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짧은 형식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문학 갈래이다.

10. 이 시조는 임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④의 시조도 이별의 상황에서 작자는 황진이이다.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절개를 맹세한 송순의 시조이다.

②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의 인심을 비판하고 있는 정철의 시조이다.

③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 인생의 허무함을 읊은 노래로 황진이의 죽음을 애도한 임제의 시조이다.

⑤ 박인로가 한음 이덕형에게 홍시를 대접받았을 때 회귤고사를 생각하고 돌아가신 어버이를 그리워하며 지은 효도의 노래이다.

(001~061)정답.indd 2 2018-02-05 오후 12:09:12

(2) 소설과 서사

소단원 핵심 문제 pp. 14-33

1 ③ **2** ⑤ **3** ④ **4** ④ **5** ① **6** ③ **7** ⓐ: 점순이의 키(점순이의 키가 아직 자라지 않았음.) ⓑ: 노동력 **8** ④ **9** ⑤ **10** ③ **11** 꾀병을 부리고 있는 '나'에 대한 분노와 불만 **12** ④ **13** ③ **14** 이전에도 장인에 대한 반감으로 여러 차례 일을 하다 그만둔 적이 있다. **15** ⑤ **16** ④ **17**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먹으려는 것이다. **18** ④ **19** ③ **20** ⑤ **21** '내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성례를 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22** ⑤ **23** 감참외 **24** ④ **25** ③ **26** ④ **27** ④ **28** ⑤ **29** ③ **30** 구장이 중재를 통해 점순이와의 성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31** ⑤ **32** ② **33** ③ **34** ① **35** ③ **36** ④ **37** ④ **38** ③ **39** ② **40** ③ **41** '나'만 잘 설득해 주면 내년에도 소작을 줄 것이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42** ④ **43** ③ **44** ③ **45** ③ **46** ② **47** ④ **48** ① **49** 교활한 장인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다. **50** ④ **51** ② **52** ② **53** 뭉태에게 부추기는 말을 들은 데다 점순이에게 '바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54** ② **55** ③ **56** ③ **57** ④ **58** ⑤ **59** ② **60** ④ **61** ② **62** ② **63** ② **64** ③ **65** ⑤ **66** ④ **67** ① **68** ④ **69** ③ **70** 히연(희연) **71** "할아버지! 놔라, 놔, 놔, 놔, 놔놔."는 장인이 사위인 '나'에게 '할아버지'라 부르는 것에서 해학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1.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이다. '나'는 장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2. 장인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데릴사위 제도를 악용하고 있지만, 어수룩한 인물인 '나'는 장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일을 해 주면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줄 것이라 믿고 있다.

3. "제—미, 키두!"에서 '제미'는 '나'가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비속어로 장인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한 것이다.

4. 장인은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점순이와의 성례를 미루고 있다. '나'는 그러한 장인의 속셈을 모른 채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것만 탓하는 어수룩한 인물이다.
|오답 풀이| ① 돈 한 푼 안 받고 삼 년 칠 개월 동안 일을 해 온 것에서 '나'가 어수룩하고 우직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점순이와의 성례를 미루는 것에서 장인은 의뭉스럽고 교활하다고 할 수 있다.
③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하는 장인의 태도에서, 장인은 인색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⑤ '점순이가 안죽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에서 '나'는 모질지 못하고 결단력이 없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5.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이라는 문장을 통해 "성례를 시켜 주세요."라는 말이 생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나'가 3년 7개월 동안이나 데릴사위로 지냈으므로 장인이 알아서 먼저 성례를 시켜 줘야 하는데, 오히려 성례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쩍 뛰는 장인의 태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인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오답 풀이| ① 비몽사몽(非夢似夢):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아 정신이 어렴풋한 상태
②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뜻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
④ 견원지간(犬猿之間):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7. 장인은 겉으로는 점순이가 키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성례를 시켜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장인은 '나'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공짜로 '나'를 부려 먹으려 하는 것이다. 즉,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이다.

8.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서술되어 있다.

9.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에서 장인이 전형적인 마름의 행동과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에서 알 수 있다.
② 마름이란 '생기길 호박개 같애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똑 됐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장인이 논에서 둑으로 올라와서 '나'의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장면에서 장인의 성격이 급하고 거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해마다 앞으로 축 거불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통해 알 수 있다.

10. 장인은 욕보다 읍의 배 참봉 댁 마름으로 인심을 더 잃었다.

11. ㉠은 일할 의욕을 잃어 꾀병을 부리는 '나'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표현한 비언어적 표현이다.

12. '나'가 점순이의 키가 자라기를 바라며 점순이 대신 물을 길어 준 것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므로, 여자가 해야 할 일을 남자가 하는 것을 통해 해학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 대가릴 까놀 자식"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001~061)정답.indd 3 2018-02-05 오후 12:09:12

②, ⑤ 작품 전체로 보면 장인과 '나'가 해학적 활극을 벌이는 장면이 사위와 장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장면에서는 사위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해 대는 장인의 모습과, "이놈의 장인님"과 같이 낮춤 표현과 높임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장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나'의 태도 등이 비정상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③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에 나타나 있다.

13. ㉡은 '봉필이'라는 장인의 이름에 욕을 잘하는 장인의 성격을 더해 '욕필이'라는 새말을 만들어 낸 언어유희이다. ③은 비슷한 가락을 가진 어구를 짝지어 표현한 대구법이다. 나머지는 모두 언어유희의 일종이다.
|오답 풀이| ① '문'과 '바람'의 배치를 바꾼 언어유희
② '서방'과 '남방'의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희
④ 비슷한 음운을 활용하여 '양반'을 '절반', '소반', '백반' 등으로 표현한 언어유희
⑤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14. "왜 또 이래."라는 말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나'의 행동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가 일을 하다 그만두고 꾀병을 부리는 것은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15. 이 소설은 대체로 짧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간혹 쉼표를 활용한 경우는 상황을 열거하거나 설명을 덧붙일 때인데, 그렇다고 문장이 크게 길어지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눈깔', '자식', '그년'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
② '돌라안는다', '골김', '얼쩐' 등 토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장인의 난처함을 '쓴침만 삼킨다.'와 같이 언어 외적 표현으로 서술하였다.
④ 전체적으로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하며, 인물의 행동을 쉬운 말로 독자에게 직접 말하듯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6. 장인은 과거에도 가을이 되면 성례를 시켜 주겠다고 말하고서는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 장인이 데릴사위 제도를 이용해 어수룩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을 뿐, '나'와 점순이를 성례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작년 이맘때 '올 갈'에는 장가를 들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가을이 되자 결혼을 시켜 주지 않는 장인에게 '경우가 옳지 않다'고 하면 장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장인의 '나'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데, 뒷생각은 안 하고 '나'의 뺨을 때리고 난처해서 쓴침만 삼켰다.
③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단판 가지고 소맷자락을 내끌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장가를 들러 갔다가 오작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 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에서 알 수 있다.

18. 장인은 데릴사위 제도를 이용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므로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아서 성례를 시키지 않을 구실이 되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 즉,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다.

19. 작년에도 일이 한참 바쁠 때에 '나'가 일을 않고 누워 있으니 장인이 거반 울상이 되어서 '나'를 회유한 적이 있다. 즉 장인은 '나'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20. 어제의 사건과 유사한 작년의 사건을 삽입함으로써 '나'와 장인이 매년 봄마다 점순이와 '나'의 성례를 두고 실랑이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1. '나'는 데릴사위로 들어갔다가 성례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므로 집으로 차마 못 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가 ㉢처럼 말하는 것은 〈보기〉에서의 '들이댐'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즉 ㉢은 '내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 성례를 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22. '나'는 점순이가 무안해할까 봐서 흙투성이 밥을 먹는 것이지, 흙투성이 밥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먹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점순이의 '몸이 너머 빨리빨리 논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③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째루 밭머리에 곱게 나려놓았다.'에서 점순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에서 알 수 있다.

23. 제일 맛 좋고 예쁜 참외에 점순이를 빗대고 있다.

24. [A]는 농사짓는 '나'를 둘러싼 주변의 봄기운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는 소설의 제목과 어우러져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나'의 내면 심리를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연관 지어 제시한 것이다. 만물에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봄'은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남녀의 청춘을 상징한다.

25. 하루빨리 성례를 올리고 싶은 '나'의 욕구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 더욱 커지고 있음을 '몸살'과 '가슴의 울렁거림' 등의 증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26. ㉡ 뒤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든 것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소에게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라는 구절을 통해 '안야'가 비속어가 아니라 '소'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붕, 붕'은 벌들이 내는 소리로 의성어이다.
② '물컥물컥'은 '코를 찌를 듯이 심한 냄새가 갑자기 자꾸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의태어이다.
③ '대리'는 '다리'의 방언으로 지방색을 드러내는 토속어이다.
⑤ '개떡'은 점순이가 '추녀' 또는 '못생긴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001~061)정답.indd 4 2018-02-05 오후 12:09:13

28. 삼 년 넘게 데릴사위 노릇을 했는데도 성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는 말도 못 한다며 점순이가 '나'를 구박하는 행동 때문에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29. 장인이 '빙장'이라는 호칭을 선호하는 것은 그것이 '장인님'보다 더 존칭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인의 모습은 예의범절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30. '나'가 구장을 찾아간 것은 구장이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을 중재해 점순이와의 성례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31. 내외를 하기 위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혼자 쫑알거리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나, 성례를 시켜 달라는 말을 하라고 한 후에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도망가는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점순이가 자유분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②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에 나타나 있다.

③ 성례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라며 '나'를 충동질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점순이는 '나'가 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한다.

32. ㉠은 '나'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는 말을 하라고 한 것이 부끄러워 나타난 것이다. 즉,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발개진 것이다.

33. ㉡은 '같은 표현이면 완곡한 표현이나 좀 더 나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은 '값이 같거나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면 더 좋은 것을 가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누워서 침 뱉기: 남을 해하려고 한 짓이 오히려 자기에게 미침을 이르는 말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큰 되갚음을 당한다는 말

④ 가게 기둥에 입춘: 보잘것없는 가겟집 기둥에 '입춘대길'이라고 써 붙인다는 뜻으로, 제 격에 맞지 않고 지나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추어졌거나 이루기 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여 이용하거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4. ⓐ는 장인의 생각을 '나'가 말하는 것이지, 과거에 '나'가 했던 말이 아니다.

35. 이 소설은 주인공 '나'의 어리석음과 장인의 간교함을 대비시켜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36. 구장이 장인에게 땅을 얻어 부치고 있기 때문에 장인의 편을 들어 얘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뭉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37. 이 부분에는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귓배기 하나가 작다.), (사경 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 부치니까 그래 꾀였다구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에 괄호가 다섯 번 사용되었지만 겉말과 다른 속마음을 동시에 보여 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38. 실제로 일을 그만두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나'의 노동력이 필요한 장인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을 가해 압박하기 위해 한 말이다.

39. [A]에 사용된 어휘들은 작품에 현장감과 사실감을 부여하고, 독자들에게 등장인물의 소박함과 진실성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즉 [A]가 〈보기〉보다 인물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40. 구장은 장인의 편을 들며 '나'를 협박하고 있지만 옛날 역사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자네 말두 하기야 옳지."에서 구장은 '나'의 사정을 이해하는 척한다.

② "빙장님 말씀이 올 갈에는 열 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모 붓든 거나 마저 붓게."라고 말하며 구장은 은근히 '나'를 회유하고 있다.

④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에서 구장은 법률적 지식을 들어 '나'를 설득한다.

⑤ "제 산에 불을 놓아두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에서 관련이 없는 사례를 들고 있다.

41. 장인과 구장은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이다.

42. 뭉태가 아니라 장인이 뭉태에게 '감투'를 뇌물로 달라고 한 적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데릴사위제를 악용해 돈을 주지 않고 일꾼으로 부리는 장인의 태도에서 그가 인색한 사람임이 드러난다.

②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은 뭉태의 성격을 제시한 것이다.

③ 장인은 여섯 살인 셋째 딸이 열 살이 돼서 데릴사위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성례를 시켜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장인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⑤ 뭉태는 땅을 얻어 부치다가 떨어진 뒤로 장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

43. 장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뭉태는 '나'에게 장인과 싸우라고 충동질하며 '나'와 장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44. 장인은 '나'와 점순이의 성례를 시켜 주지 않으면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즉 점순이의 키가 작다는 것은 '나'를 잡아두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오답 풀이| ①, ② '내가 일두 참 잘하구,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셋째 딸이 인제 여섯 살, 적어두 열 살은 돼야 데릴사위를 할 테므로~'에서 알 수 있다.

(001~061)정답.indd 5 2018-02-05 오후 12:09:13

⑤ '데릴사위를 해 올 때까지는 부려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45. '나'와 점순이는 모두 성례를 욕망하고 있으므로, 성례에 대한 욕망이 서로 상충되어 갈등을 일으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

46. 뭉태의 말을 통해 장인이 그간 해 온 행위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진행을 빠르게 하고 있다.

47. '찌다우'는 '허물을 남에게 전가하는 짓'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덤터기를 씌운다'와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

48. '사위 부자'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데릴사위를 이용하는 장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표현이다.

49. 교활한 장인은 데릴사위를 미끼로 '나'를 부려 먹기 위해 성례 약속을 일부러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나'가 성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인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0. 이 소설은 어수룩한 주인공인 '나'의 시점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토속어, 비속어 등의 사용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현학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51. 점순이는 성례를 원한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진 것이다. 이런 태도를 겉과 속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52. 성례 문제에 대해 점순이가 '나'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점순이를 '나'보다 훨씬 성숙하다거나 영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떻건담!"이라고 말하는 '나'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점순이는 "쇔을 잡아채지 그냥 둬"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⑤ "쇔을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라며 점순이는 '나'를 비판하는 동시에 '나'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 성례를 시켜 달라 요구하라고 부추기는 점순이의 태도에서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장인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점순이가 '나'에게 '제 말로 지껄이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나, '나'가 '벽을 향하야 외면하면서 내 말로' 점순이에게 말을 하는 것은 내외를 해야 하는 당시의 관습 때문이다.

55. 장인은 구장의 말을 떠올리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즉 장인은 '나'에게 겁을 주어 위협하고자 ㉡처럼 말한 것이다.

56. '나'는 뒷날에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라는 별명을 듣고 싶지 않다며 성례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나'가 아들을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7.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 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를 통해 장인은 나이가 먹어서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 장인에게 반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8. 장인이 성례를 시켜 주지 않는 것이 '나'와 장인 간의 싸움의 근본 원인이다.

59. 제시된 부분에서 '나'와 점순이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와 같은 과장된 말과 행동이 해학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③ '나'와 장인의 활극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싸움이 웃음을 유발한다.

④ "까셀라부다"와 같은 토속어의 사용도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점순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서술자 '나'의 우직하고 어수룩한 이야기 전달 태도가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60. (서)는 점순이의 충동질에 자극받은 '나'가 마침내 성례 문제를 놓고 장인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 부분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절정 단계이다.

61. 벽 뒤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점순이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순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62. '나'는 자신을 보고 있는 점순이에게 남자답게 보이고 싶어 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시문으로는 '호기를 부리며'가 적절하다.

63. ㉢은 비속한 표현과 높임 표현이 섞여 있는 모순된 표현으로 독자의 흥미와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64. 장인이 '나'를 놓아주었을 때 '나'가 한참 동안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급소를 잡혀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으므로 장인에게 살려 달라고 외치는 '나'의 모습은 고통스럽게 보여야 할 것이다.

② [A]는 '나'와 장인이 활극 수준으로 싸우는 장면이므로 두 사람의 동작은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좋다.

④ 싸움의 모습이 치열하므로 장인이 '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나'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나'를 억지로 짓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⑤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은 다분히 희극적이므로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나 분위기는 해학적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65. 이 소설은 주인공인 '나'의 주관적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얘, 점순아! 점순아!",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처럼 인물의 말이 작품에 긴박한 분위기와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어) 부분보다 (저)가 과거의 일이므로, 이 글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결말인 (어)가 절정인 (서)와 (저) 사이에 삽입되었다.

(001~061)정답.indd 6 2018-02-05 오후 12:09:13

④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에서 방언과 구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66. 이 소설이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해 당시 농촌 사회의 문제점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보기〉의 비판에 대해, 마름과 데릴사위(머슴)라는 계층 간의 갈등을 통해 당시 농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반론할 수 있다.

67. ㉠은 장인이 '나'를 달래어 계속 일을 부려 먹기 위해 '나'를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한 말이다.

68. ⓐ와 ⓑ는 결말 부분으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다. ⓒ는 '나'가 장인과 본격적인 몸싸움을 벌이는 상태이고, ⓓ와 ⓔ는 장모님과 점순이가 달려와 '나'가 기운이 빠지는 장면으로 ⓒ보다 뒤에 일어난 일이다.

69. 점순이가 자신의 편을 들어 줄 것이라는 '나'의 생각과 달리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었으므로, '믿고 있던 일로부터 의외의 재난을 당함.'이라는 뜻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가 ㉡에 나타난 '나'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초록은 동색이다.: 풀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라는 뜻으로, 서로 처지나 부류가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함을 이르는 말
②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는 말
④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남이 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경험이 적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사람이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0. 희연은 일제 강점기 때의 담배 이름이다.

(3) 수필과 교술

소단원 핵심 문제 pp. 36-37

1 ⑤ **2** ⑤ **3** ③ **4**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 **5** ① **6** ⑤

1. 이 글에서는 잘못을 발견하면 그것을 바로바로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 이 글은 집을 고치는 일상적인 체험을 1~2문단에서 서술한 뒤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과 교훈을 3~4문단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가 체험하고 느낀 바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③ 우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글쓴이가 체험하고 느낀 바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특정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교술 문학은 일상적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글도 작가 자신이 체험하고 깨달은 바를 통해 교훈을 주고 있다.

4. 행랑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수리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경비가 적게 든 경험을 통해 작가는 '비가 새면 발견 즉시 수리해야 한다.' 즉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5. 문신들이 높은 벼슬을 하며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것은 '집을 수리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은 비가 샌 행랑채를 한참 방치한 후 수리하는 바람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적은 힘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⑤의 속담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병 주고 약 준다.: 해를 입힌 뒤에 달래거나 감싸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급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서둘러서 한다는 말
③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말
④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학식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겉으로 떠벌이고 잘난 체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시나리오와 극

소단원 핵심 문제 pp. 40-55

1 ⑤ **2** ④ **3** ④ **4** ③ **5** ④ **6** ③ **7** 정철은 인희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희는 자신이 왜 검사를 받는지도 모르고 있다. **8** ① **9** ① **10** ② **11** ① **12** 돌팔이 의사 **13** ③ **14** ③ **15** ③ **16** ② **17** ② **18** ③ **19** ③ **20** ④ **21** ② **22** ⑤ **23** ⑤ **24** ⑤ **25** ② **26** 엄마로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병을 숨긴 것이다. **27** ⑤ **28** ② **29** ① **30** 외롭고 힘든 인생의 동반자로 아웅다웅하며 살아왔다. **31** ② **32** ① **33** ④ **34** ④ **35** ① **36** ③ **37** ④ **38** ③ **39** ① **40** ③ **41**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오는 비디오 **42** ② **43** ② **44** ④ **45** ⑤ **46** ④ **47** 너, 정말……. 고마웠다……. **48** ②

(001~061)정답.indd 7 2018-02-05 오후 12:09:14

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이다. 영화는 상영 시에 관객과 화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류한다.

2. 인희의 남편은 의료 사고를 낸 주체이지 의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다.

3. 정철이 속상해하는 이유는 아내 인희가 아프기 때문이지 검사가 늦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주홍 엄마 잘 있죠?"라는 인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얼굴이 그게 뭐야?"라는 장 박사의 말을 통해 정철의 얼굴에 인희의 병을 걱정하는 것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S# 40'의 앞부분에서 장 박사와 정철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그들은 인희의 병에 잘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인희는 자신의 병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갱년기, 골골해요."라는 장 박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4. 정철은 인희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한 얼굴로 인희를 기다린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뭐가 좋아 서둘러요."라는 인희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정철, 출구 쪽을 보며 인희를 초조한 낯빛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지문에 나타나 있다.

④ "가."라고 무뚝뚝하게 한마디만 하는 것에서 정철이 다정다감하지 못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짜증) 왜 이렇게 늦어."라는 지문과 대사에 나타나 있다.

5. ㉠은 검사를 더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내색하지 않기 위해 장 박사가 인희에게 지어 보인 웃음이다.

6. ㉡의 앞뒤 대사를 통해 인희가 검사를 더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 앞에는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인희의 말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S# 41'은 대화 없이 인물들의 행동만 나타내고 있다. 얼굴을 잔뜩 찡그린 인희의 모습에서 통증이 심함을 알 수 있고, 정철과 장 박사의 어두운 표정에서 인희의 병이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9. 장 박사는 인희의 상태가 수술을 못할 만큼 위중하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한다고 한 것이지 인희의 수술을 자신 없어 하는 것은 아니다.

10. 정철은 자신을 '돌팔이 의사'라고 비하하며 인희의 병을 알아채지 못한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11. 'S# 42'에서 정철은 인희가 수술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상태라는 말을 듣고 절망하고 있다.

13. 정철은 자신을 비하하고 속되게 표현하고 있으나 동정에 호소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자신이 아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정철은 자신을 '돌팔이 의사'라고 비하하고 인희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인희의 위중한 상태를 외면하려 하고 있다.

② 장 박사는 '명의'라 인희의 병에 대해 알지만 자신은 알지 못한다며, 장 박사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돌팔이 의사'라고 속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위염과 맹장을 오진한 사례를 나열하며 자신이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돌팔이 의사임을 항변하고 있다.

⑤ '낼모레면 아랫것들한테 밀릴 것'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며 장 박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14. ㉠은 문맥상 '수술을 해서 병만 더 키운다.'라는 뜻이므로, '아무렇지도 않을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걱정을 일으킨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긁어 부스럼'과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내 코가 석자: 내 사정이 급하여 남을 걱정할 여유가 없음을 뜻하는 말

② 가는 날이 장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연히 잘 들어맞음을 뜻하는 말

④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평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

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아무리 구차하게 살아도 이승이 나음을 뜻하는 말

15. ⓐ는 통증으로 인한 육체적 반응이고, ⓑ는 인희의 병이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리적 고통에 따른 반응이다.

16. 인희가 자신이 죽을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며 운명과 관련한 인희의 개인적 갈등이 드러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7. 아내를 보내고 정철이 내쉰 한숨은 안도가 아니라, 자신이 죽을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는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아내가 애를 낳을 때도 아내 옆에 없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③ "죽을병도 아닌데"라는 인희의 대사를 통해 인희는 자신이 죽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인희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정철이 잘 살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야속해하고 있음을 지문 '야속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집이 아닌 다른 곳(새로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현장)에 가려는 인희에게 정철이 짜증 난 얼굴로 "아픈 사람이 어딜 가?"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8. 'S# 43'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통해 관객이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의 심정에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19. 'S# 43'에서 택시를 타는 문제로 남편과 의견이 달라 대립하고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인희가 남편과 잦은 의견 충돌로 외롭게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 그 집에서 겨울나기 힘들다고"라는 대사에서 인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음이 나타난다.

② 택시 타라는 남편의 말에 "버스 놔두고 무슨 택시?"라는 인희의

(001~061)정답.indd 8 2018-02-05 오후 12:09:14

말에 나타나 있다.
④ "젊어서 애 날 때도 옆에 없던 사람이"에서 알 수 있다.
⑤ "내가 엄마가 있냐, 아버지가 있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에서 알 수 있다.

20. 화면 밖에서 들리는 설명 형식의 대사는 내레이션(Narration)이다.

21. 정철은 죽을병에 걸린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돈을 아끼기 위해 택시를 타지 않는 것과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아내를 무심하게 대해 온 미안함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보기만 하고 있다.

22. 'S# 43'의 장면만으로는 ⓑ와 ⓒ가 다른 곳인지 알 수 없다. 작품 전체로 보면 ⓑ와 ⓒ는 같은 곳이다.

23. 'S# 142'에서는 지시문을 사용하여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등을 드러냄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24. 이 글에 정수가 보청기를 껴야 하는 사고를 당한 것은 나타나 있지만, 정수가 사고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엄마가 처한 상황을 뒤늦게 알고 펄쩍 뛰며 아버지인 정철을 부르는 정수를 정철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면하고 있다.
② '저마다 선 자리에서, 저마다 작게, 크게 우는 가족.'이라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정수 처음 사고 났을 때 ~그것도 못 지켰고."라는 인희의 대사에 나타나 있다.
④ "정수 대학 들어가는 것만 ~ 손주들은 얼마나 이쁠까."라는 인희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25. "지옥에 갈까 봐 무섭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26. 〈보기〉를 통해 인희는 정수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삼수생인 정수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희가 정수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숨긴 것은 엄마로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27. 정수가 가족들에게 엄마의 상태를 묻는 것을 볼 때 정수는 엄마가 죽을병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8. 인희는 너무 힘들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를 바란 적이 있고, 정수가 사고 났을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즉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는 '사람이 짓는 선악에 따라 그 갚음을 받는 일'이라는 뜻의 '인과응보(因果應報)'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한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
③ 결자해지(結者解之):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
④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⑤ 고립무원(孤立無援): 고립되어 구원 받을 데가 없음.

29. 정수가 평소 어머니에게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며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S# 144 ~ S# 146'은 인희가 할머니를 씻겨 주는 장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③ '정수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라는 지문에 나타나 있다.
④ "오늘뿐이야."라는 인희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희는 할머니를 씻겨 주며 할머니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⑤ 'S# 145'의 연수의 대사와 가족들의 행동을 나타낸 지문을 통해 가족들이 인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30. 인희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구박하고 구박받으며,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으며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다. 따라서 두 사람은 외롭고 힘든 인생의 동반자로 아웅다웅하며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31. ⓑ에서 인희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챙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32. [A] 부분에서 가족들은 저마다의 행동을 통해 인희에 대한 안타까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3. ㉠에서 정수는 평소에 어머니에게 잘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런 정수에게 들려 줄 수 있는 시조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는 ④이다.
|오답 풀이| ①「훈민가」〈제16수〉로 노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노래하였다.
②「훈민가」〈제13수〉로 상부상조의 정신을 노래하였다.
③「훈민가」〈제14수〉로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 것을 노래하였다.
⑤「훈민가」〈제3수〉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기를 권장하였다.

34. 이 작품에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며느리가 자신이 죽고 난 뒤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35. 'S# 163'은 일상적인 행복에 즐거워하는 인희의 모습, 병으로 기운 없고 힘겨워하는 인희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관객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방식은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의 내면을 현실과 대비하여 더 강하게 공감하도록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36. 이 글은 암으로 죽어 가는 어머니(인희)를 중심으로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기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가족들이 어머니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 이타적으로 변모하고 가족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 본 가족의 진정한 의미'라는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37. 새집의 완성으로 인해 인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므로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01~061)정답.indd 9 2018-02-05 오후 12:09:14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집'은 가족의 대유라 하였으므로 집의 완성은 온전한 가정으로 완성됨을 의미한다.
② 집을 짓는 과정은 가정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므로 인희가 집을 짓는 과정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는 인희의 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새집으로의 이사는 온전한 가정의 완성을 뜻하므로 인희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남편과 딸에 의해 집이 완성되는 것은 온전한 가정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8. 'S# 166~S# 167'은 부부인 인희와 정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39. 예전에 혼자서 비디오를 여러 차례 본 것은 맞지만, 제시된 장면에서는 인희와 정철이 함께 비디오를 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목소리가 갈라지고 불안한 음색으로 시작하지만 이내 자리 잡은 정철의 노래. 하지만 힘이 드는지 어느새 잠이 들어 버리는 인희. 노래는 계속 흐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S# 166'의 지시문 '정철, 땀을 뻘뻘 흘리며 비디오 케이블 잭과 단자에 이리저리 꽂아 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S# 167'에서 인희는 침대에 누운 채 "여보, 나 소원 있어."라고 말하고 있다.

40. 'S# 166'에서는 새집에서 정철이 집안일을 하며 인희를 위해 노래를 불러 주는 등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1.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오는 비디오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 작품의 가족들처럼 결핍 요소를 지닌 이 비디오는 인희 집안의 불구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2. 희곡은 공연 시 관객과 직접 교류하지만 시나리오는 상영 시 화면을 통해 관객과 간접적으로 교류한다.

43. 인희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가족들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인희가 ㉠처럼 말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기 힘든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인희는 자신이 화장을 하고 나면 가족들이 자신을 그리워할 때, 그리워할 장소가 없어 마음 아파할 것을 염려하여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가족을 위한 소원이고(①),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인희의 성격이 나타난 것이다(③). 이것은 또한 가족들에게 자신을 그리워할 장소를 마련해 주려는 배려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⑤). 한편 인희는 ㉠ 뒤에 자신의 엄마를 화장한 경험을 언급하며 무덤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④).

44. '인희, 정철의 팔에 안겨 편안히 잠들어 있다.'를 통해 인희가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라는 인희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② 'S# 168'에 나타나 있다.
③ 정철의 "술 먹을 때 ~ 외로울 때"라는 대사에 나타나 있다.
⑤ '정철, 입을 맞춰 주고, 두 사람, 다시 안고 울고.'라는 지문에 나타나 있다.

45. 〈보기〉는 '마음속에 빗장처럼 걸려 있던 말',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있었다.'처럼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드러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소설은 시나리오보다 서사적 맥락이 더욱 강화된다.
② 인물 간의 갈등의 구현은 작품에 따라 다르므로, 소설이 시나리오보다 갈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장면의 시공간적 구체성은 소설보다 시나리오에서 더 명확해진다.
④ 소설은 독자가 상상을 통해 사건이나 장면을 이해해야 하므로 시나리오보다 독자의 적극성이 강화된다.

46. 'S# 168'은 장면과 행동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묘사하여 인희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을 뿐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다.

48. 이 작품에 나타난 갈등은 인물의 운명과 관련된 개인적 갈등으로서 인물의 대사와 상황을 통해 제시된다. 인물과 인물 간의 강한 대립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단원 핵심 문제 pp. 56-63

1 ④ **2** ④ **3** ⑤ **4** ④ **5** ④ **6** ③ **7** ③ **8** ③ **9** ②
10 성례를 시킬 수가 있나?(성례를 시킬 수가 없다.) **11** ④
12 ① **13** ② **14** ④ **15** 작은 역할이지만 조직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존재 **16** ③ **17** 자신보다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18** ③ **19** ③ **20** ③ **21** ④ **22** ④
23 ③ **24** ④ **25** ⑤ **26** ㉠: 인물, ㉡: 사건 **27** ④
28 ④ **29**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

1. (가)에서는 시간(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베어 내어 보관할 수 있는 사물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반성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③ (나)는 자연물과 인간의 대응을 통해 관조적 성찰을 보여 주고 있지만,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만 '서리서리', '구뷔구뷔' 등의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2. (가)는 '서리서리 너헛다가'와 '구뷔구뷔 펴리라'에서 대조가 나타나고, (나)는 '밝음'과 '어둠'의 대조가 나타난다.

(001~061)정답.indd 10 2018-02-05 오후 12:09:14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② (가), (나) 모두 어순의 도치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만 '속에 사라진다'에서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가)는 임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을 노래한 시조로, 화자는 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나)의 3연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기대와 소망이 드러난다.

5. 〈보기〉는 발상이나 내용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형식이나 표현에 중점을 두어 (나)를 고쳐 쓴 것이다.

6. '얼찐', '쟁그러웠다' 등의 토속어와 '쌍년의 자식'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7. (라)에서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귓배기 하나가 작다."라고 한 것을 통해 점순이의 키가 장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이래서 나는 애최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라는 장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④ (다)의 "그러면 얼찐 성례 해 줘야 안 하지유. 밤낮 부려만 먹구 해 준다, 해 준다……." 등에서 '나'가 장인에게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데릴사위로 들어왔으나 성례를 하지도 못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삼 년 칠 개월 동안 일만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8. ㉢은 '나'가 장인과 맺은 계약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는 표현이다.

9. ⓐ는 '나'가 점순이의 키가 크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늘여 빼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애타게 기다림을 이르는 말'인 '학수고대(鶴首苦待)'가 ⓐ의 상황에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① 각골난망(刻骨難忘): 은덕을 입은 고마움이 마음깊이 새겨져 잊히지 아니함.
③ 괄목상대(刮目相對): 다른 사람의 학문이나 덕행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함.
④ 만시지탄(晩時之嘆): 시기가 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⑤ 수주대토(守株待兎): 달리 변통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한 가지만 기다리는 융통성 없는 일

10. 장인이 점순이의 키를 핑계 삼아 성례를 시키지 않고 있다는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앞 구절에서 성례를 시킬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에는 '성례를 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11. (가)는 집을 수리했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였고, (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며 떠오른 생각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였다.

12. (가)에서는 유추의 방법을 활용해 행랑채 수리의 경험을 개인의 몸과 나라의 정사에 적용하고 있다.

13.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플루트 연주자가 전체의 조화를 위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에 빗대어서, '조화로운 삶의 추구'라는 주제를 형상화하였다.

14. ㉠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그것을 고치는 상황이므로, '이미 일이 잘못된 뒤에는 후회하고 손을 써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눈 가리고 아웅: 얕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
②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을 도리어 잘 모른다는 말
③ 우물에 가 숭늉 찾는다.: 성미가 급하여 일의 절차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재촉하거나 서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교만하게 굴거나 더욱 엇나감을 이르는 말

15. '플루트 연주자'는 오케스트라에서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다. 남이 연주하는 동안 가만히 있기만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그러나 그가 없으면 오케스트라는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은 자신의 모습은 감춰 둔 채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16. 이 글은 시나리오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8. 시나리오는 주로 객관적인 3인칭 시점을 쓴다.

19.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는 자신이 죽으면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인희가 한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라는 인희의 대사에서 인희가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②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고 인희가 할머니에게 속옷과 내복을 갈아입혀 주는 모습 등에서 알 수 있다.
④ "술 먹을 때~ 외로울 때"라는 정철의 대사에 알 수 있다.
⑤ "나 무덤 만들어 줘."라는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20.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은 남의 일을 얘기하듯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21. (가)는 '서리서리', '구뷔구뷔', (나)는 '헐레벌떡' 등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22. (가)는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력 있게 형상화하고 있으나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서리서리','구뷔구뷔' 등을 활용해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다.
② 4음보의 규칙적 운율을 사용하고 있다.
③ 시간(밤)이라는 관념을 베어 내서 보관할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서리서리 너헛다가'와 '구뷔구비 펴리라'에서 의미상 대립되는

(001~061)정답.indd 11 2018-02-05 오후 12:09:15

시어인 '넣다'와 '펴다'를 사용하고 있다.

23. ⓒ는 베어 낸 시간(동짓달 기나긴 밤의 시간)을 '잘 접어 보관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이다.

24. (나)에서 시간상 나중 일(장인이 터진 '나'의 머리를 치료해 주며 달래는 장면)이 먼저 나온 다음, 시간상 앞서 일어난 일('나'와 장인이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싸우는 장면)이 뒤에 나오고 있다.

25. 〈보기〉와 (나)는 둘 다 공간적 배경이 사건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26. 제시된 수업 내용은 서사의 요소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인물과 사건이 서사의 핵심적 요소임을 설명하고 있다.

27.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라고 한 장인의 말은 '나'를 부려 먹기 위해 회유하는 말로, 장인의 진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장인이 '나'를 부려 먹기 위해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라고 회유하는 말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있는 데서 '나'가 우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라는 '나'의 생각에 나타나 있다.

③ 장인의 회유에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라고 맹세를 하며 다시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장인은 점순이와 장모의 도움으로 곤경에서 벗어나자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나'를 나려조겼다.

28. (다)는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교술 갈래의 글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는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느낀 바를 유추의 방식으로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에 적용하고 있다.

② (다)는 글쓴이가 행랑채를 수리한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다)는 행랑채 수리라는 일상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⑤ (다)는 행랑채를 수리하며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경비가 많이 들고, 얼마 안 된 것은 경비가 적게 든다는 경험을 통해 잘못을 알고 그것을 즉시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29. (다)는 행랑채를 수리하며 얻은 깨달음을 3문단에서는 사람의 몸에, 4문단에서는 나라의 정사에 적용하고 있다.

서술형 문제 pp. 64-67

1. **|예시답|** 동짓달은 임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시간이 너무 더디게 지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외롭게 혼자 있다는 것과 시간이 더디 간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외롭게 혼자 있다는 것과 시간이 더디 간다는 의미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2. **|예시답|**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 냄으로써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것과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강조했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5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3. **|예시답|** (가)와 (나)는 시적 발상 면에서 상상을 통해 물리적 실체를 만들고 주관적으로 변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가)는 시간을 상상적으로 가공했고, (나)는 공간을 상상을 통해 구성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 (나)의 발상의 공통점과 (가)는 시간을 상상적으로 가공하였고, (나)는 공간을 상상을 통해 구성하였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5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4. **|예시답|** 성례를 핑계로 일만 시키는 교활한 장인과 그런 장인에게 이용만 당하는 '나'의 어수룩한 태도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교활한 장인에게 이용만 당한다는 내용과 '나'가 어수룩하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5
	이 글이 해학적인 이유 또는 '나'의 성격 및 태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5. **|예시답|** • 표면적 이유 : 점순이의 키가 더 자라야 한다.(점순이의 키가 덜 자랐다.) / • 이면적 이유 : 돈을 주지 않고 '나'를 더 부려 먹어야 한다.

(001~061)정답.indd 12 2018-02-05 오후 12:09:15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적인 이유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5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적인 이유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6. |예시답| '나'가 바보같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아버지(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나'가 바보같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아버지(장인)에게 성례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라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7. |예시답| 어수룩한 '나'를 충동질하는 역할을 하다가 '나'와 장인과의 싸움에서 장인의 편을 들면서 극적 전환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어수룩한 '나'를 충동질한다는 내용과 '나'와 장인과의 싸움에서 장인의 편을 들어 극적 전환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5
	'나'를 충돌한다는 것과 극적 전환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8. |예시답| ㉠: 집이 퇴락했을 때 수리하는 상황, ㉡: 사람의 몸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나라의 정사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집을 수리하는 상황, 사람의 몸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나라의 정사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는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5
	집을 수리 하는 상황을, 사람의 몸이나 나라의 정사 중 하나만 적용하여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9. |예시답| 평범한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평범한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10. |예시답|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정치가 올바르게 된다.(정치 개혁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늦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아야 정치가 올바르게 된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11. |예시답| 인희와 할머니는 구박하고 구박받던 옛날부터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오늘까지 외롭고 힘든 인생의 동반자로 아웅다웅하며 살아왔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옛날의 관계와 오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5
	옛날 혹은 오늘의 관계가 누락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12. |예시답| 앞으로 누리지 못할 일상적인 행복을 나열해서 보여 줌으로써 예고된 죽음과 대비하여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일상적인 행복을 나열해서 보여 줌으로써 예고된 죽음과 대비된다는 내용과 죽음의 비극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한 경우	5
	일상적인 행복을 나열해서 보여 줌으로써 예고된 죽음과 대비된다는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13. |예시답| 독자에게 큰 감동과 여운을 주기 위해서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독자에게 감동과 여운을 주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001~061)정답.indd 13 2018-02-05 오후 12:09:15

2 말과 글의 힘

(1) 말과 글을 통한 소통

소단원 핵심 문제 pp. 72-79

1 ② **2** ④ **3** ㉮ 정체성 ㉯ 고유성 **4** ③ **5** ② **6** ⓐ 중국에서 비롯된 탈춤 ⓑ 고유성과 관련이 있는 **7** ③ **8** ② **9** 고유성은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다. 그들만이 갖는 독특함, 개성이 바로 고유성이다. **10** ④ **11** ⑤ **12** ① **13** ② **14** ⑤ **15**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속성,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 **16** ③ **17** ③ **18** ⑤ **19** ② **20** 정체성의 판단 기준 중 하나가 고유성이고, 고유성이 곧 개성과 동의어라고 한다면, 개성이 없는 것은 곧 정체성도 없는 것이 된다. **21** ② **22** 남의 것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은 개성을 말살하고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앗아 가기 때문이다.

1. 청룽이 사자 모양의 큰 탈을 쓰고 경연하는 홍콩 영화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통해, 우리나라의 탈과 매우 흡사한 모양의 탈을 쓰고 추는 춤이 중국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국가 간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각국의 고유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③ 우리나라는 백여 년 전부터 다른 나라와 본격적인 교역과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과 교류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

④ 제시된 글의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며, 사실과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⑤ 우리의 탈춤은 서민 계급이 아니라 양반 계급의 위선을 풍자하는 데 쓰였다고 하였다.

2. 초등학교 때 탈춤에 관해 배운 내용, 고등학교 때 본 영화에 관한 이야기 등 한국의 정체성을 논하는 데 시원의 문제와 관련되는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3. (가)에 의하면 필자는 지금이 한국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고 있으며, 한국적인 것의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고유성을 들고 있다.

4. ㉠의 앞은 세계와의 교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내용이고, ㉠의 뒤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어 버렸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에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임에도 세계와의 교류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설명이 생략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5. ㉡을 통해 뒤에는 시원과 고유성 간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제시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6. ⓐ와 ⓑ는 모두 바로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어들이다. 문맥으로 볼 때 ⓐ는 중국에서 비롯된 탈춤 또는 중국의 탈춤을 의미하고, ⓑ는 바로 앞에서 말한, 문화의 고유성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필자는 프랑스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프랑스 정체성의 상징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8. 필자는 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포도나무는 그 재배의 시원이 프랑스에 있지는 않지만 포도주가 프랑스의 상징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 조지훈의 말을 인용하여 '고유'이라는 것이 개성적이고 주체적인 존재 양식과 관련되는 것임을 밝혔다. 이는 모두 고유성이 시원의 문제와 무관하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9. 필자는 조지훈의 말에 동의를 표한 후 고유성이란 곧 개성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는 유불선의 시원이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융합한 화랑도의 사상은 우리 고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보기〉가 범하고 있는 고유성 관련 오해를 반박하는 내용을 근거로 〈보기〉의 관점을 비판할 수 있다.

11. ㉠은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경우는 인류 문명의 시원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만 고유성을 가질 수 있을 뿐 나머지 모든 문명과 고유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은 '추인(追認)'의 뜻풀이이다.

13. (마)에서 필자는 원조가 어디든 간에 우리가 개성과 독특함을 불어넣었다면 우리 고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14. 모든 개체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 수적 동일성만을 갖는다는 앞 문장과, 집단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이 글의 내용을 다룬 뒤 문장을 ⓐ가 연결하고 있으므로 그 자리에는 '하지만'처럼 역접 관계를 드러내는 접속어가 들어가는 것이 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는 논리적 전제인 앞 문단의 내용에 이어, 한국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문단을 시작하는 부분이므로 '그렇다면', '그러면' 등의 접속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15. 필자는 한국의 개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속성', '일정 수준의 아름다움'을 개성의 요소로 들고 있다.

16. '한국'의 개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에서 '조선'과 '중국'을 논의의 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은 국가나 민족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다.

17. 필자는 개성과 고유성을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

(001~061)정답.indd 14 2018-02-05 오후 12:09:17

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고유성도 갖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ㄴ은 옳지 않다.

|오답 풀이| ㄱ: 별개의 두 대상은 수적 동일성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ㄷ: ㉡이 ㉢을 번안한 곡이라고 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ㄹ: ㉡은 ㉢과 구별되는 속성을 지녔고 나름의 아름다움도 있으므로 개성의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ㄹ은 옳은 설명이다.

18. 필자는 원품 복제 그림, 모창 가수, 모조 외국산 명품 핸드백, 일본 노래 표절 등 네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여 개성 없는 표절이나 복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모조 외국산 명품 핸드백은 명품 핸드백을 복제한 것으로 그것을 메고 다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국산 핸드백을 살까를 고민할 기회를 앗아가 버린다.

② 필자는 원품과 최대한 동일하게 만든 복제품이 원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③ 표절은 남의 작품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로 일본 노래 표절에 익숙한 사람은 개성이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

④ '모창 가수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모방하여 노래하는 한, 평생 자신의 개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한 것에서 모창 가수가 개성이 없는 경우의 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9. 필자는 정교하게 복제된 그림이 일정 수준의 미를 갖는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원품과 구별되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개성이 없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원품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③ 수적으로 하나가 아니므로 수적 동일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④ 제시된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⑤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의 여부, 즉 누가 처음 그렸는가의 여부는 고유성과 상관없다고 하였다.

20. 〈보기〉에 의하면 정체성 판단에는 고유성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고유성은 개성과 동의어이다. 따라서 개성이 없다면 정체성도 없다는 ㉡의 진술이 성립한다.

21. ⓐ는 아름다움이라는 성격이나 추상적 가치를 띠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보유한다는'으로 바꾸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보유하다'는 '~을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보관하다: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다.

③ 소지하다: 물건을 지니고 있다.

④ 전유하다: 혼자 독차지하여 가지다.

⑤ 쟁취하다: 힘들게 싸워서 바라던 바를 얻다.

22. 해당 광고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얻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필자는 복제품 제작이나 표절은 우리에게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앗아 가고 개성을 말살한다고 하였다.

(2) 논증과 토론

소단원 핵심 문제 pp. 82-91

1 ⑤ **2** ② **3** ⑤ **4** ⑤ **5** ② **6** ① **7** ⑤ **8** ② **9** ⑤ **10** ⑤ **11** ⑤ **12** ⑤ **13** 제시된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인데, 반대 신문식 토론은 고전식 토론과 달리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 토론자에 대한 교차 신문을 한다. **14** ④ **15** ⑤ **16** ③ **17** ⑤ **18** ② **19** ③ **20** ⑤ **21** ⑤ **22** ④ **23** 장기적으로 볼 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와 자국의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 ①

1.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2.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 개시를 선언하며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회자이다.

|오답 풀이| 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③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찬성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④ 농산물 생산량 부족으로 심각한 기아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통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3. '찬성 1'은 농산물의 생산성이 감소하면 그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아 기아 문제가 심각해질 것임을 언급하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리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빈곤층의 확대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ㄴ. 찬성과 반대 측은 서로 자신 측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을 뿐, 해결책 마련을 협의하고 있지 않다.

4. '반대 2'는 '찬성 1'이 제시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미국 농무부의 2014년 발표 자료를 제시하며, 찬성 측 논거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5. ㉠은 찬성 측 토론자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 확대를 통해 거둘 수 있는 두 가지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있는 한자 성어는 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인 '일석이조'이다.

|오답 풀이| ①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③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④ 십시일반(十匙一飯):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001~061)정답.indd 15 2018-02-05 오후 12:09:17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
⑤ 조삼모사(朝三暮四):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6. 1984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자료, 현재의 세계 인구 등의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아 문제가 식량 부족 때문이라는 상대측 주장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문제의 원인이 식량 부족에 있다고 본 찬성 측과 달리 생산된 식량의 분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오답 풀이| ㄷ: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ㄹ: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국제 원조나 농수산물 수송망 확충 등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을 언급하였다.

7. 쟁점은 논제에 대해 찬반의 견해가 나뉘는 지점으로, 교차 신문보다는 입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8. '반대 2'는 아직까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이 보고되지 않은 것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9. 반대 신문식 토론은 상대측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상대측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말하기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의견의 일치를 구하기 위해 협동적 자세로 임하는 것은 토론자가 아니라 토의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10. '찬성 2'는 '반대 2'가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을 근거로 제시한 것의 부적절함을 교차 신문하고 있을 뿐,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11. 반대 측에서는 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농산물이 나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언급한 바 없다.

13. 반대 신문식 토론은 고전식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 토론자에 대한 교차 신문을 추가한 형태의 토론이다.

14. 반론은 입론과 교차 신문을 바탕으로 하여 상대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지닌 약점과 허점을 공격하면서 자기 측의 주장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는 단계이다.

15.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찬성 측이다.
|오답 풀이| 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② 2005년 국제 환경 단체인 ○○○○이 다국적 기업인 ○○○○가 유럽식품안전청에 제출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의 동물 실험 자료를 입수하여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③ '반대 1'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고, '찬성 1'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④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식량 부족 문제나 지구 환경 오염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6. ③은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릴 것을 주장하고 있는 '찬성 1'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 ④ 는 '반대 1'이 활용하기에 적절한 속담이다.
|오답 풀이| 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②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는 말이다.
④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개가 겨를 먹다가 말경 쌀을 먹는다.: 개가 처음에는 겨를 훔쳐 먹다가 재미를 붙이게 되어 나중에는 쌀을 먹는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조금 나쁘던 것이 차차 더 크게 나빠짐을 이르는 말이다.

17. 토론에서 논거는 자신이 경험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18. ㉠은 의견이나 주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은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9. 이 토론의 논제는 정책 논제로, 토론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0. '찬성 2'는 환경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비료나 농약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언급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료나 농약의 환경 파괴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자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해 재정의하고 있다.
②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③ 28개의 유럽 연합 회원국 중 19개국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금지하기로 했다는 점,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④ 시험관 아기 기술도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기우였음이 밝혀졌음을 예로 들어 유전자 변형 농산물도 이처럼 기우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21. 토론에서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 개시 선언과 종료 선언을 하며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제시된 부분은 토론의 마무리 부분으로 사회자는 토론 종료 선언을 하고 있다.

22. 토론은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말하기이다. 문제에 대한 합의점이나 해결책을 도출하는 말하기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이다.

(001~061)정답.indd 16 2018-02-05 오후 12:09:17

24. '찬성 2'는 시험관 아기를 예로 들며, 이전에도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우려와 반대는 늘 있었지만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밝혀졌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앞일에 대해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을 이르는 단어 '기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옥하(玉瑕): 옥에 있는 티라는 뜻으로,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 있는 사소한 흠을 이르는 말이다.
③ 사족(蛇足): 화사첨족(畫蛇添足)의 줄임말이다.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있지도 아니한 발을 덧붙여 그려 넣는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군짓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첩경(捷徑):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또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계륵(鷄肋):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이르는 말이다.

대단원 핵심 문제 pp. 92-95

1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 ② **3** ⑤ **4** ④ **5** 그렇기는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6** ① **7** ③ **8** ⑤ **9** ③ **10** ④ **11** ②

1.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와 관련해 찬성 측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대 측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찬성 1'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개념을 정의하며 입론을 시작하고 있다.

3.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하면 부족한 식량을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는 하였으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성이 감소하면 향후 20년간 농산물의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아 기아 상태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②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기술이므로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 농산물보다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③ '찬성 1'은 식량 문제의 심각성과 식량 문제에 대한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들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④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국제 원조나 전 세계적인 농산물 수송망 확충 등은 적절한 분배를 통해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맞지만, 이것만으로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식량 안보 보고서'는 향후 20년간 농산물의 가격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추측인 것은 맞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만든 자료이므로 타당성이 있다.

6. (가)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ㄱ이 (가)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서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ㄴ이 (나)의 쟁점임을 알 수 있다.

7.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찬성 2'는 (나)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와 작물의 생산성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통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② 유전자 변형 기술로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키우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④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에너지는 화석 연료 고갈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⑤ 유전자 변형 기술로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작물을 재배하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8. 변호사의 견해를 인용하여 '불효자 방지법'의 부작용에 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 상황을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부모와 자식 간 부양료 청구 소송, 노인 학대 사건 수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② 중심 화제인 '불효자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③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룸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④ 불효자 방지법을 두고 "부모를 학대하는 패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입장과 "가족 간 불신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 입장을 함께 다루고 있다.

9. 신문 기사에서는 '불효자 방지법'의 추진 배경과 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불효자 방지법을 시행해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할 수 있다. 이때 찬성 측에서는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10. ㉠은 '불효자 방지법'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불효자 방지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학대당하는 사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어려움에 빠진 노인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001~061)정답.indd 17 2018-02-05 오후 12:09:18

11.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당한 대우'라는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으므로 '부당한 대우'의 개념을 절대적이라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서술형 문제

pp. 96-97

1. **|예시 답|**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따져 묻는 말하기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반대 2'의 질문과 '찬성 1'의 대답을 바탕으로 교차 신문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교차 신문의 의미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2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2. **|예시 답|** '반대 2'의 자료는 단기간의 현상을, '찬성 1'의 자료는 장기간의 현상을 예측한 것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기간을 기준으로 '반대 2'와 '찬성 2'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차이점을 서술한 경우	5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3. **|예시 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지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찬성 2'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의 쟁점을 적절하게 도출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4. **|예시 답|** • 유전자를 변형하여 잡초나 해충에 강해진 농산물을 개발하여 재배하면 농약, 제초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켜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찬성 2'의 주장을 파악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두 개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찬성 2'가 제시한 근거 두 개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5. **|예시 답|** 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는 데에 천문학적인 시간, 비용, 노력이 든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반대 2'가 찬성 측의 해결 방안은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며 제시한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하여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6. **|예시 답|** '반대 2'의 논증 구성 방식은 타당하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실제로 초래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구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반대 2'의 논증 구성 방식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서술한 경우	5
	반대 2'의 논증 구성 방식에 대한 평가만 서술한 경우	2
분량	100자 이하 또는 140자 이상인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7. **|예시 답|** 프랑켄푸드는 환경을 파괴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의미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프랑켄푸드'를 찾아 쓰고 그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프랑켄푸드'만 찾아 쓴 경우	2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001~061)정답.indd 18 2018-02-05 오후 12:09:18

4 국어의 규범과 변화

(1)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소단원 핵심 문제 pp. 102-121

1 ③ **2** ② **3** '달님'은 'ㄴ'이 'ㄹ'로 변화하여 [달림]으로 발음되고, '먹는'은 'ㄱ'이 'ㅇ'으로 변화하여 [멍는]으로 발음된다. **4** ④ **5** ③ **6** ⑤ **7** ⑤ **8** ④ **9** ④ **10** ④ **11** ④ **12** ③ **13** ③ **14** '굳히고': '굳히고는 [구티고 → 구치고]의 과정을 통해 끝소리 'ㅌ'이 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ㅊ'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5** ③ **16** ② **17** ⑤ **18** ② **19** ② **20** ① **21** ⑤ **22** ③ **23** ⑤ **24** ③ **25** ④ **26** ③ **27** ③ **28** ④ **29** ④ **30** ① **31** ① **32** ① **33** ④ **34** ① **35** ① **36** ④ **37** ② **38** ④ **39** '잔뜩'과 '싹둑'은 모두 뒤의 음절이 된소리로 발음되나, '잔뜩'은 'ㄴ'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싹둑'은 'ㄱ'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일반적인 음운 변동의 예이므로 예사소리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40** ① **41** ④ **42** ④ **43** ① **44** '얼음'은 '얼다'에서 파생된 말로 어근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글 맞춤법 제1항의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에 따라 '얼음'으로 적는 것이 옳다. **45** ④ **46** ⑤ **47** ② **48** ④ **49** ⑤ **50** ② **51** ③ **52** ⑤ **53** ③ **54** ⑤ **55** ②

1. 무조건 표기된 대로만 발음하면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언어생활이 쉬워진다고 볼 수 없다.

2. [수페]는 '숲'의 받침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음운이 변하거나 탈락되는 등의 변동을 겪지 않았으므로 음운 변동 현상으로 볼 수 없다.

4. '슬그머니 달라지는 음운'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을 말한다. ④의 '떠'는 '뜨-+-어'의 과정에서 어간에 있던 'ㅡ'가 탈락되어 발음되므로, 교체가 아니라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5. 'ㄴ-ㄹ / ㄹ-ㄴ' 소리는 연결하여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앞의 'ㄴ'이 'ㄹ'로 바뀐다.

6. '생산량'은 [생산냥]으로 발음되므로 ㉡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7. '협력[혐녁]'은 앞 음절의 받침 'ㅂ'과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이 각각 'ㅁ'과 'ㄴ'으로 발음되므로 〈보기〉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된다.

8. '공권력[공꿘녁]'은 '력 → 녁'과 같이 비음화와 '권 → 꿘'과 같이 된소리되기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은 구개음화, ②는 유음화, ③은 음운 탈락과 유음화, ⑤는 'ㄹ → ㄴ'의 비음화가 일어난다.

9. '발달'은 'ㄹ'로 끝나는 한자[발(發)]와 'ㄷ'으로 시작하는 한자[달(達)]가 결합하여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발딸]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ㅣ' 모음 앞에서 일어나는 'ㅌ → ㅊ'의 변동은 구개음화이다.

② 'ㄷ'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은 된소리되기이다.

③ '학회'는 [하쾨/하퀘]로 발음되고, 'ㄱ+ㅎ → ㅋ'의 거센소리되기 즉 음운 축약 변동이 일어난다.

⑤ '묻혀(묻히-+-어)'의 발음은 [무처]이다.

10. [상견녜]로 발음되는 '상견례'는 '유음화'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관령[대:괄령], ② 물난리[물랄리], ③ 광한루[광:할루], ⑤ 줄넘기[줄럼끼]는 모두 유음화의 예이다.

11. '잠겨서'는 어간이 '잠기-'로서 어간 받침이 'ㄴ, ㅁ' 일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와 관련이 없고 한자도 아니므로, [A]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12. '곧이'는 [고지]로 발음되는데, 이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① '생일날[생일랄]'은 '달님'과 같은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② '먹는[멍는]'은 '밥물'과 같은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④ '(옷을) 입고[입꼬]'는 '발동'과 같은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다.

⑤ '걷멋[건먿]'은 'ㄷ(ㅌ) → ㄴ'의 비음화로, '밥물'과 같은 음운 변동 유형에 속한다.

13. '꽃망울'은 [꼳망울]을 거쳐 [꼰망울]로 발음되는데, 이는 '꽃[꼳]'의 받침 'ㄷ'이 뒤의 '망울'의 음운 'ㅁ'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동화되는 역행 동화의 예이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선행 자음의 영향으로 후행 자음이 유음(①, ②)이나 비음(④, ⑤)으로 변한 순행 동화의 예이다.

15. '량심(良心)'이 '냥심'이 되고 'ㄴ'이 'ㅑ' 앞에 올 수 없다는 법칙의 영향을 받아 탈락한 예이므로 ㉢의 예로만 볼 수 없다.

16. 〈보기〉의 예 중 'ㅡ' 탈락의 경우만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준 표기로 인정하고 있다.

17. ㉮ 조항에 따르면 '육십육'은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이므로 [붙임 4] ㉯ 조항에 준하여 써야 한다. 따라서 두음 법칙에 따른 '육십육'이 올바른 표기이다.

18.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대로 발음하는 것은 원래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용언의 어미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연휴에'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므로 [연휴에]만 표준 발음이고 [연휴예]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001~061)정답.indd 19 2018-02-05 오후 12:09:19

19. '피어서' → [피여서]는 반모음 'ㅣ'의 첨가로 [어]가 [여]로 발음되므로 음운의 첨가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치르-+-어서 → 치러서'는 'ㅡ' 탈락 현상의 예이다.
③ '오-+-아서 → 와서'는 'ㅗ'와 'ㅏ'가 축약되어 'ㅘ'로 변동하는 예이다.
④ '그리-+-어 → 그려'는 'ㅣ'와 'ㅓ'가 축약하여 'ㅕ'로 바뀌는 예이다.
⑤ '맞추-+-어 → 맞춰'는 'ㅜ'와 'ㅓ'가 축약하여 'ㅝ'로 바뀌는 예이다.

20. ①은 어간 받침 'ㅎ'이 [끄러]에서와 같이 탈락되어 발음되는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② '좋고[조:코]'는 'ㅎ+ㄱ → ㅋ'의 축약이다.
③ '하얗게[하:야케]'는 'ㅎ+ㄱ → ㅋ'의 축약이다.
④ '미뤄[미뤄]'는 'ㅜ+ㅓ → ㅝ'의 축약이다.
⑤ '봐서[봐서]'는 'ㅗ+ㅏ → ㅘ'의 축약이다.

21. 합성어 '암+돼지'에서 'ㅎ'이 덧나면서 '암퇘지'로 발음되는데, 이는 원래 존재하던 두 음운의 축약에 의한 발음이 아니므로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22. [조:와도]는 반모음 'ㅜ'가 첨가된 발음으로 표준 발음이 아니다.

23. '낳아서[나아서]'는 음운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나머지는 모두 'ㅎ+ㄱ → ㅋ'(①), 'ㅂ+ㅎ → ㅍ'(②), 'ㅈ+ㅎ → ㅊ'(③), 'ㅎ+ㄷ → ㅌ'(④)과 같이 거센소리되기 현상의 용례들이다.

24. '기-+-어서 → 기어서[기여서]'는 'ㅣ' 앞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ㅓ → ㅕ'의 변동이 나타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25. '소리대로' 적는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이 충돌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한 해결책은 이 글에 나와 있지 않다.

26. '넋이라도[넉씨라도]'는 '넋'이라는 단어의 원형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표기이다.

27. '어떻든'은 '어떠하다'의 활용형으로서 소리대로 '어떠튼'이라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표기이다.

28. '설레임'과 같은 표기 잘못은 단어의 기본형을 '설레이다'로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므로 '단어의 원형을 잘못 추측하는 바람에 저지른 실수'에 해당된다.

29. ㉡은 모두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꽃'은 [꼳], '꽃이'는 [꼬치], '꽃나무'는 [꼰나무]로 소리 난다.

30.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은 표준어이다. 표준어 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괭이'를 가리키는 지역 방언들인데, 방언은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아니다.

31. '얼음장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체언 '얼음장' 뒤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④, ⑤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③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32. '조차'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②, ⑤ '만'과 '부터'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입니까'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④ '라고'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3.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므로 '열 살'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옳다.

34. 관형사 '맨'은 '가장'의 뜻이고 접두사 '맨-'은 '다른 것을 더하지 않은'의 뜻이다. 따라서 '맨 처음에'와 '맨주먹으로'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온갖 꽃들이'에서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배, 감, 사과 들이'에서 '들'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③ '그뿐 아니라'에서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듣기만 할 뿐이지'에서 '뿐'은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④ '너는 너대로 해.'에서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간다.'에서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⑤ '세 사람만 참석했다.'에서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그때 이후 십 년 만이다.'에서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35. '먹어(본용언)+버렸다(보조 용언)'의 구조이므로 붙여 씀도 허용된다.

|오답 풀이| ② '버렸다'는 본래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이다. 이 경우 붙여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본용언 '들어' 뒤에 조사 '는'이 붙어 있으므로 보조 용언과 띄어 써야 한다.
④ '파고들어 보았다'의 본용언 '파고들어'는 합성 동사이므로 보조 용언과 띄어 써야 한다.
⑤ '매달아 놓았다'의 본용언 '매달아'는 합성 동사이므로 보조 용언과 띄어 써야 한다.

36. '공부하다'가 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④와 같은 문장의 경우 '어려운'이라는 관형어가 있으므로 '어려운 공부(를) 하다'와 같은 구조로 보아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옳다.

37.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덥석'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38. 〈보기〉의 예에서 어간이 'ㄺ'으로 끝나는 경우에 'ㅂ'이 탈락하고 '-따랗다'가 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말의 음운 변동에서 유음 'ㄹ'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여 '-따랗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40. '이따금'은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

(001~061)정답.indd 20 2018-02-05 오후 12:09:19

로 적는다. '국수'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는 않으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딱딱하다'는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며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로 적을 수 있다.

41. '어깨'는 '엇개, 억개'처럼 분석되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어깨'라고 적는다.

42. '사라지고'는 '살다 / 지다'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형(살아지다)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오답 풀이| ① (옷이) '늘어난' 것은 '늘다'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 표기를 해야 한다.

② (콩이) '흩어지다'는 '흩다'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 표기를 해야 한다.

③ (마음을) '드러내다'는 '들다'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⑤ '(~ 지역에) 들어간다'는 '들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 표기를 해야 한다.

43. '닫히다'는 '닫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원형 표기를 한 것이고, '다치다'는 본래 의미가 사라졌으므로 표음적 표기를 한 것이다.

45. '높은 데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다.'의 예로는 '비행기가 지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정도가 적절하다. 예시의 '떨어지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의 뜻으로 쓰였다.

46. '쓸다'에 '지다'가 결합한 피동사는 '쓸어지다'(비가 좋으니, 방이 잘 쓸어진다.)로서 '쓰러지다[靡(미)]'와 구별된다.

47. ②는 '굽도리'로 써야 한다. '돌(다)' 같은 어간 형태소의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이다.

48. 〈보기〉의 제19항에서 설명하는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를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싫증'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며,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어 원형 표기를 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접미사 '-이'가 사용되었고 어간의 뜻이 유지되고 있다.

③ 접미사 '-음'이 사용되었으나 어간의 뜻과 멀어졌으므로 표음적 표기를 한 것이다.

⑤ 어간 '욹-'에 접미사 '-아미'가 결합된 형태로 〈보기〉의 [붙임]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49. '달-+-이-+-다'는 '끓여서 진하게 하다.'의 뜻일 경우 원형 표기를, '다리미로 옷을 펴다.'의 뜻일 경우 본뜻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① 본래 어간 '묻다'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② '거두다'는 '걷다'와의 관련성을 잃어버렸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③ '맞추다'의 뜻은 '(사람이 리듬이나 박자, 음악, 지휘에) 보조를 같이하다.'인데 '(구령에 발을) 맞추다'는 본뜻을 유지하는 경우이므로 원형 표기를 하는 것이 옳다.

④ '맞히다'는 적중이라는 의미를 유지하는 경우이므로 원형 표기를 하는 것이 옳다.

50. ㉡ '붓이요'는 종결 표현이므로 [붙임 2]에 따라 '붓이오'로 적어야 한다. ㉢ '고르시요' 역시 종결 표현이므로 '고르시오'가 옳다.

|오답 풀이| ㉠ '책이요'는 '책이고'를 뜻하는 연결형이므로 '-요'가 옳은 표기이고, ㉣ '고르실 것이오?'는 종결 표현이므로 '-오'가 옳다. ㉤은 '무엇이 아니다'와 같은 주어-서술어 구조의 종결형이라기보다는 대답하는 말 (독립어) '아니'에 조사 '요'가 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51. '한자+한자'로 된 합성어는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이외에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는다.

52. ⑤의 '윗입술'은 [원닙쑬]로 발음되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마)가 아니라 (바)의 조건에 따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수소'는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② '전세방'은 '한자어+한자어'의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③ '어금니'는 '어금+니'로 앞의 말이 자음으로 끝나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이다.

④ '위층'은 뒤의 말 'ㅊ'이 된소리가 될 수 없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이다.

53. '등굣길[등교낄]'은 '한자어+고유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54.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 '뱃머리'는 'ㄴ' 소리가 덧나서 [밴머리]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예이다.

55. 샛길[새:낄/샏:낄], 빨랫돌[빨래똘/빨랟똘]은 ㉠의 예이고, 콧날[콘날], 뱃머리[밴머리]는 ㉡의 예이며, 베갯잇[베갠닏], 깻잎[깬닙]은 ㉢의 예이다.

(2) 국어의 역사성

소단원 핵심 문제 pp. 124-127

1 ③ **2** ④ **3** ⑤ **4** ③ **5** ③ **6** 쉽게 익혀 / ㅸ(순경음 비읍) **7** ③ **8** ④ **9** ①

1. 〈보기〉의 어휘들은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언어는 언어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약속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그 약속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동체 구

(001~061)정답.indd 21 2018-02-05 오후 12:09:20

성원들 사이에서 소리와 뜻 사이의 약속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2. '양반'은 오늘날 '점잖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다.

3.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뜻이 바뀐 것은 지시 대상의 의미 적용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4. '문짱'의 'ㆍ', '홇배'의 'ㅎ', '수빙'의 'ㅸ'은 모두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음운이다.

5. '방점'은 음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시하는 표기법이다.

7. '-ㄹ씨'는 '이유'의 의미를 지닌 어미이다. 현대어 풀이인 '아니하여서'에서도 보조사는 찾을 수 없다.

8. '싀미'는 '십이'의 이어적기에 의한 표기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에 해당한다.

9. '니르고져'는 어미 '-고져'에서 양성 모음 뒤에 음성 모음이 오는 양상으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단원 핵심 문제 pp. 128-133

1 ⑤ **2** ⑤ **3** ④ **4** ④ **5** ② **6** ⑤ **7** ③ **8** ④
9 ① **10** ⑤ **11** ① **12** ③ **13** ④ **14** ① **15** ③
16 그런 것쯤은 참을 수 있다. **17** ⑤ **18** ④ **19** ④ **20** ⑤
21 ② **22** ③ **23** 단어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것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면, 같은 단어의 표기가 다양해져서 독자들이 글을 읽고 뜻을 파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24** ④
25 ① **26** ③ **27** ③ **28** ④ **29** ②

1. '받는'은 'ㄷ'이 비음 'ㄴ'과 인접하여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반는]으로 발음되므로 변화 결과는 'ㄴ+ㄴ'이 되어야 한다.

2. '씹히다'는 'ㅂ+ㅎ → ㅍ'의 음운 축약이 일어나는데, '빨갛게' 역시 'ㅎ+ㄱ → ㅋ'의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거센소리되기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맡기다'는 [맏끼다]로 발음되므로 음운 축약이 아니라 'ㄱ → ㄲ'의 음운 교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② '잡으니'는 [자브니]로 발음되어 아무런 음운 변동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맞추다'는 [맏추다]로 발음되어 음운의 교체 현상을 보인다.
④ '놓으면'은 [노으면]으로 발음되어 'ㅎ'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보인다.

3. '커서'는 '크다'가 활용하면서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 경우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4. '학교'는 [학꾜]로 발음되므로 'ㄱ'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ㄱ → ㄲ / ㄱ__'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5. 거센소리되기의 결과 'ㄷ+ㅎ → ㅌ'으로 변화해 [무티다]가 되고, 이어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무치다]로 발음된다.

6. '꽃밭을'을 [꼳바츨]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구개음화는 원칙적으로 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 같은 형식 형태소 앞에서 일어나므로 '꽃밭을'은 [꼳바틀]로 발음해야 한다.

7. '무덤가[무덤까]'는 비음인 'ㅁ'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로, 'ㄱ, ㄷ, ㅂ'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가 아니다. 참고로 '무덤가'는 합성어이므로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된소리되기로 보아야 한다.

8. '물난리'[물랄리]는 'ㄴ→ㄹ'의 유음화 사례로 〈보기〉에 제시된 조항과는 상관없다.

9. 용언의 어미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의 경우는 표준 발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10. '몇 일[며칠]'의 발음이 ㄴ의 환경(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는 환경)에서의 일반적인 발음 규칙을 따르지 않음을 2단계에서 밝힐 때, 3단계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몇 일'은 [며칠]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결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② '몇 일'은 '실질 형태소+실질 형태소'의 구성이므로 1단계 탐구 과정의 ㄱ이 아니라 ㄴ에 해당된다.
③ '몇 일'이 일반적인 발음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몇 일'이 1단계 탐구 과정의 ㄴ에 해당되면 [며딜]로 발음되어야 한다.

11. '기필코'는 '기필하고'가 축약된 표기이다. 이를 '기필코'로 적은 것은 소리대로 적는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12. '양심(良心)'의 '량(良)'은 한자음 '녀, 뇨, 뉴, 니'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심'은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라는 제11항과 관련된다.

13. 순우리말 '위'와 한자어 '층'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위층'은 된소리되기나 'ㄴ'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 표기를 할 이유가 없다.

14. 제43항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육 층'과 '육층'은 모두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②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만큼'은 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③ 집을 세는 단위인 '채'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따위를 나타내는 '바'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차'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001~061)정답.indd 22 2018-02-05 오후 12:09:20

15. '드러나다'는 '들다/나다'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형을 밝혀 표기하지 않는다.

16. '것'과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쯤'은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하며, '은'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17. '귀머거리'는 '귀+먹-+-어리(접미사)'로 분석된다. 접미사 '-어리'는 ㉤에서 말하는 접미사 '-이'나 '-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18. '-음'은 국어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명사화 접미사이다.

19. 보조 용언 '척하다'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도 있다.

20. '뒤뜰'은 뒷말의 첫소리가 원래 된소리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

21. ㉡의 예시들은 '돌(다), 털(다), 걸(다)' 같은 어간 형태소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22. '못하다'는 [몯하다] → [모타다]의 과정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는 'ㅅ' 받침의 'ㄷ' 교체 후 'ㄷ'과 'ㅎ'의 축약이 일어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빨랫줄'은 [빨랟줄] → [빨랟쭐]의 과정으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ㅅ' 받침의 'ㄷ' 교체 후 '랟줄 → 랟쭐'의 교체(된소리화)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② '속앓이'는 'ㅎ 탈락' 현상만 나타난다.

④ '밭갈이'는 '밭→ 받'의 교체 후 '갈이 → 까리'의 교체(된소리화)가 다시 일어나는 변화를 보인다.

⑤ '옷고름'은 '옷 → 옫'의 교체 후 '고름 → 꼬름'의 교체(된소리화)가 다시 일어나는 변화를 보인다.

24. '산듯하다' 대신 '산뜻하다'라고 표기하는 것은 이 단어에 우리말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인 된소리되기의 환경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뚜렷한 까닭 없이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된소리되기는 '싹둑'처럼 'ㄱ, ㄷ, ㅂ'과 같은 무성 자음 뒤에서 일어난다.

25. '콧등[콛뜽/코뜽], 잇몸[인몸], 나뭇잎[나문닙]'은 각각 된소리되기, 'ㄴ' 첨가 현상, 'ㄴㄴ' 첨가 현상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26. 〈보기〉의 사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의 특성, 즉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준다.

27.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서는 우리말이 중국의 글과 달라 그 뜻이 통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쉽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창제 동기를 밝히고 있다.

28. 중세 국어에서는 비교적 모음 조화를 잘 지켰고, 현대 국어에서는 그보다 모음 조화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29. 중세 국어의 'ᄯᅡᆨ'는 '까닭'이라는 뜻을 가진 어휘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소멸되어 쓰이지 않는다.

서술형 문제

pp. 134-135

1. **| 예시 답 |** ㄱ. 책이요 → 책이오: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이므로 '오'로 적어야 한다. / ㄴ. 부장님이오 → 부장님이요: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이므로 '이요'로 적어야 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잘못된 표기 2개를 바르게 고쳐 쓰고, 고친 이유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5
	잘못된 표기를 2개 중 1개만 고쳐 쓰고, 고친 이유를 서술한 경우	2.5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2. **| 예시 답 |** ㉠: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 그 친구에게 놀아만 났어.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 ㉡에 들어갈 예를 알맞게 쓴 경우	5
	㉠, ㉡ 중 한 가지 예만 알맞게 쓴 경우	2.5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3. **| 예시 답 |** 3의 (2)에 해당되는 단어로 '냇물'을 들 수 있다. '냇물'은 고유어 '내'와 고유어 '물'이 결합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3의 (3)에 해당되는 단어로 '가윗일'을 들 수 있다. '가윗일'은 한자어 '가위'와 고유어 '일'이 결합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3의 (2), 3의 (3)에 해당되는 단어의 예, 단어의 결합 구조, 사이시옷을 적어야 하는 이유를, 3의 (1)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문장 형식과 같이 알맞게 서술한 경우	5
	3의 (2), 3의 (3)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4. **| 예시 답 |** '삼천리'는 [삼철리]로, '구인란'은 [구인난]으로 발음된다. 'ㄴ-ㄹ'이라는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삼천리'는 유음화가, '구인난'에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차이는 '구인란'의 '구인'이 '삼천리'의 '삼천'에 비해 의미의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01~061)정답.indd 23 2018-02-05 오후 12:09:20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두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쓰고, 두 단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대조적 특성을 드러내어 음운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 이유를 알맞게 서술한 경우	5
	두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쓰지 않고, 두 단어에 음운 규칙이 다르게 적용된 이유만 서술한 경우	3
분량	120자 이하 또는 180자 이상인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5. **|예시 답|** '넘어, 너머, 너무'는 모두 동사 '넘다'에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먼저 '넘어'는 '넘다'의 활용형으로 '산을 넘어 날아간다.'와 같이 쓰인다. 한편, '너머'는 '넘다'에 명사형 접미사 '-어'가 결합한 것으로 〈보기〉의 붙임 규정을 적용받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하며, '산 너머에 있는 마을'과 같이 쓰인다. 또한, '너무'는 '넘다'에 부사화 접미사 '-우'가 결합된 것이므로 역시 〈보기〉의 붙임 규정을 적용받아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하며, '사람이 너무 많다.'와 같이 쓰인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각각의 예를 들어 '넘어, 너머, 너무'를 알맞게 분석한 경우	5
	'넘어, 너머, 너무'의 문장 성분만 분석하거나 각각의 예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6. **|예시 답|** 표기 면에서 (가)는 '말ᄊᆞ미, ᄯᅳ르미니라'와 같이 이어적기(연철)를 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나)는 '몸이며, ᄆᆞᅀᆞᆷ이니라'와 같이 끊어적기(분철)를 주로 하고 있다. 음운 면에서 (가)는 '수ᄇᆡ'와 같이 'ㅸ'이 사용되고 있으나, (나)는 '받ᄌᆞ온'에서 볼 수 있듯이 'ㅸ'이 쓰이지 않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와 (나)에서 표기와 음운상의 차이점을 보여 주는 단어를 각각 찾아 제시하고 그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가)와 (나)의 표기와 음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3
	(가)와 (나)에서 표기와 음운상의 차이점을 보여 주는 단어만 찾아 제시한 경우	2
분량	150자 이하 또는 190자 이상인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1) 점검하며 읽고 쓰기

소단원 핵심 문제 pp. 140-145

1 ④ **2** ⑤ **3** ④ **4** ③ **5** ② **6** 남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모습, 남자들이 자로 잰 듯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는 모습 **7** ① **8** ④ **9** ④ **10** ① **11** 「레슬러의 무덤」은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크기로 장미를 크게 그려 현실의 법칙과 논리를 벗어나 있다.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⑤ **17** ③ **18** ② **19** ④ **20** 사람이 아닌 석고상이 피를 흘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므로 사람들에게 낯선 느낌을 준다. **21** ⑤

1. 데페이즈망 기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언급은 있지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인용된 로트레아몽의 시에 나오는 "재봉틀과 양산이 해부대에서 만나듯이 아름다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② 네 번째 문단의 '위에 언급한 「골콘다」를 통해 데페이즈망의 맛을 깊이 음미해 보자.' 이후의 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③ 첫 문단의 '십여 년 전 서울의 ~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⑤ '특히 창의력과 상상력이 시장과 교육계의 ~ 창의력 교육에도 심심찮게 도움을 주고 있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골콘다」가 기이하고 낯선 느낌을 주는 이유는 논리와 합리가 없는, 현실의 법칙에서 벗어난 비상식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데페이즈망 기법은 어린이 미술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② 화가 마그리트와 시인 로트레아몽은 모두 초현실주의를 추구한 작가들이다.

③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④ 「골콘다」는 사람들이 중력을 무시한 채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비상적인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3. 글이 대략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글을 빠르게 훑어 읽는 것은 읽기 전 활동이지만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은 글을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활동이다.

4. '반추하다'는 사람이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여 기억하고 음미한다는 뜻이다.

(001~061)정답.indd 24 2018-02-05 오후 12:09:22

5.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장면이다.

6. 거리를 걷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고, 자로 잰 듯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비상식적인 조합이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7. 글을 요약하려는 목적으로 읽을 때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개념, 개념과 연결되는 설명 등을 연결시키며 읽어야 한다. 필자에게 질문할 내용을 만들면서 읽는 방법은 필자와의 면담을 위해 글을 읽는 상황과 연결할 수 있다.

8. 이 글은 마그리트의 주된 창작법인 데페이즈망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설명문이다.

9. 마그리트의 특정 그림을 예시하며 데페이즈망 기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ㄴ), 전문가들이 분류한 데페이즈망 기법의 형식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ㄹ).

10. 인간이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 사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①이 적절하다.

11. 「레슬러의 무덤」은 꽃의 크기만 변화시켰을 뿐인데 평범한 일상이 낯선 상황으로 바뀌는 '일상의 파괴'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12. 파괴의 형식이 창조의 형식을 규정하므로 창조가 파괴로부터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데페이즈망은 '현실의 법칙을 무시'하고 '상식의 맥락'을 벗어나서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② 데페이즈망이 매우 다양한 색깔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13. 글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활동은 글을 읽은 후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14. 「심금」은 사란 알렉상드리앙이 구분한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 수지 개블릭이 구분한 '크기와 위치의 부조화' 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5. 데페이즈망적 형식이 제지 회사와 각종 융합 상품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페이즈망을 소개하고, 데페이즈망이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데페이즈망이 변화되어 온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마그리트의 그림을 예로 들고는 있지만 데페이즈망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③ 작품의 특징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다른 작품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마그리트의 작품만을 다루고 있다.

17. 제지 회사는 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매출의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라는 데페이즈망적 형식을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18. ⓑ의 '미미한'은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②의 '미미한'은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① ⓐ: 비율, 비중 따위를 이루다.
③ ⓒ: 처리하여 치우다.
④ ⓓ: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
⑤ ⓔ: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19. '데페이즈망은 문화 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중요한 창조의 수단으로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하였다.

20. '조각과 피의 결합이 낯설기에 이 그림 또한 일상의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21. 데페이즈망 적용에 실패한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지 회사의 화장지 산업은 일시적으로 회사의 주가를 급락시키고 분석가들의 큰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거둔 사례이다.

(2)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

소단원 핵심 문제 pp. 148-153

1 ③ **2**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룬 집단을 말한다. 나는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라는 국가 공동체와 서울말을 쓰는 서울 사람이라는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다. **3** ⑤ **4** ③ **5** ⑤ **6** ⑤ **7** ② **8** ① **9** 닭을 잡아 안주로 내놓으면 좋겠다. **10** ③ **11** ④ **12** ⑤ **13** ④ **14** ③ **15** ③ **16** ④ **17** ⑤ **18** ② **19** '서당'이 '식당'으로 바뀌고, '풍월'이 '라면'으로 바뀐 것에서 과거와 달라진 사회 ·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 ⑤

1. 특정 개인의 신념은 의사소통 방식을 달라지게 하는 사회 · 문화적 요인이 아니다.

3.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관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언어 공동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밝히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② '언어는 사회 ·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소제목을 통해 글의 중심 내용을 알려 주고 있다.
③ 발표 시기가 다른 두 노랫말을 예로 들어 세대에 따라 다른 언어 표현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4. 이 글은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글 속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석하면서 읽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논설문을 읽는 방법이다.
② 이 글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으로 필자의 체험, 느낌,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논설문에서 필자가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할 때 유용한

(001~061)정답.indd 25 2018-02-05 오후 12:09:22

읽기 방법이다.
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유용한 읽기 방법이다.

5. 이 글은 대중가요를 예로 들어 과거의 언어와 오늘날의 언어를 비교하고 있다. 가에 나타난 과거 언어는 함축적이고, 나에 나타난 오늘날 언어는 직설적이다.
|오답 풀이| ①, ④ 과거의 노랫말인 가와 오늘날의 노랫말인 나를 비교해 보면 가는 운문 형식에 가깝고 나는 직설적이고 산문 형식에 가깝다.
② 오늘날은 과거보다 외국어 사용이 자유롭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제시된 만화를 보면 지역 방언이 그 지역 출신 사람들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6. 〈보기〉에서 남자는 서술문을 선호하고 여자는 단순 의문문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확인을 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편은 사건을 설명하려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7. 겸양 어법, 완곡어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각각 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우리말 담화 관습의 대표적 예로 제시된 겸양 어법과 완곡어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두 개념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③ 질문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우리말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담화 관습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⑤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시각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8. ㉠처럼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겸양의 격률에 해당한다.

9. 김 선생은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지."라는 말을 통해 '닭을 잡아서 안주로 내놓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완곡하게 전달하였다.

10. 사람들 사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방언,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표현하는 것은 관용 표현의 기능이다.

11.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났다'는 '죽었다'의 완곡어이다. 하지만 ④의 '왕따'와 '집단 따돌림'은 속어-순화어 관계이므로 그 관계가 ⓐ-ⓑ와 다르다.

12. 김 선생은 자신의 기분 상한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재치 있게 돌려 말하고 있다.

13. 〈보기〉는 정치인들이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대중들을 속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대중적 대화에서 사용하는 완곡어법은 비판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제시된 조지 오웰의 지적을 통을 알 수 있다.
② [A]에서는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것을 완곡어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돌려 말하다 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보기〉에 제시된 '정치적 언어(완곡어법과 아리송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언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일상생활에서 부드럽게 돌려 말을 할 때에는 대화의 상황 맥락과 대화 참여자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아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14. 외국어와 혼용된 말은 오늘날의 문화 풍토를 반영하여 새롭게 생겨난 말이다.

15.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면서도 재치 있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듣는 이에게 좀 더 인상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16. 오랜 생활 경험을 통해 얻은 우리 민족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표현은 관용 표현이다.

17. '심쿵'은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여기에서 세종 대왕이 놀란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언어 사용이 의사소통을 해치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18. ⓐ는 '어떤 대상을 일정한 상태로 있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②는 '그'를 외로운 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시간적 여유나 긍정적 간격 따위를 주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일정한 곳에 놓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직책이나 조직, 기구 따위를 설치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⑤ '어떤 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9. 과거에는 '서당'에서 '풍월'을 했으나, 오늘날에는 '서당'이 없으므로 '서당'을 '식당'으로, '풍월'을 '라면'으로 바꾸어 달라진 사회 ·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20. '촌철살인'은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날카로운 비판의 의미로 사용된다.
|오답 풀이|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② 신언서판(身言書判): 예전에, 인물을 선택하는 데 표준으로 삼던 조건. 곧 신수, 말씨, 문필, 판단력의 네 가지를 이른다.
③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④ 중언부언(重言復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또는 그런 말

대단원 핵심 문제 pp. 154-159

1 ⑤ **2** ⑤ **3** ③ **4** ③ **5** ② **6** ③ **7** ⑤ **8** ⑤
9 ② **10** ④ **11** ③ **12** ⑤ **13** ④ **14** ② **15** ③

(001~061)정답.indd 26 2018-02-05 오후 12:09:22

1. 「골콘다」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배치되었다고는 했지만 이것이 사람을 기계처럼 보이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데페이즈망은 낯선 장면을 친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낯설게 연출하는 기법이다.

|오답 풀이| ① 데페이즈망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여 주고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의미 있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② 초현실주의 문학의 선구자 로트레아몽의 시구에 전형적인 데페이즈망 표현법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③ 데페이즈망은 마그리트의 주된 창작 기법이다.
④ 데페이즈망은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 ㉡은 창조와 파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타나는 데페이즈망 기법이 스마트폰이나 공연 등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그려진 마그리트의 두 그림을 분석하고 있다.
② 데페이즈망 기법이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우리에게 친숙해진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마그리트 그림의 변화 과정은 설명하지 않았다.
④ 이 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⑤ 그림에 구현된 기법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5. '장미 한 송이가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그림'이라는 말에서 「레슬러의 무덤」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 기법이 사용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6. ㉡은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결합하여 낯선 장면을 만드는 기법이고, ⓐ는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장르 등을 서로 연결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7. ㉮의 노랫말은 함축적인 반면 ㉯에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

8. 나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언어의 갈등 해결 기능을 파악할 수 없다. 나에는 지역 방언의 기능과 그 사례만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특정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은 언어를 통해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지역에서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② 지역 방언은 같은 지역 출신들 간에 친밀감을 형성해 준다.
③ 의사소통은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9. 개인 블로그라 해도 그곳은 여러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개된 통신 공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0. 오늘날 청소년들이 줄임말이나 외계어,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담화 관습이라 할 수 있다.

11. 〈보기〉는 '설망어검', '촌철살인'이라는 한자 성어, 즉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잘못된 속담 사용의 폐해를 지적한 글이 아니다.
②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표현은 겸양 어법이라기보다 완곡어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겸양 어법에 대한 내용은 〈보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보기〉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언어 관습을 대조하지 않았다.
⑤ 〈보기〉의 중심 내용은 말의 상처는 약도 닿을 수 없는 마음에 남음으로 말을 사용할 때 삼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12. 겸양 어법에는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말하는 이가 스스로를 낮추고자 하는 태도에 따른 것이다.

13. ④에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줄임말, 외국어와 혼용된 말, 이모티콘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14. '눈이 큰'은 실제로 지수의 눈이 크다는 말로 관용 표현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발이 넓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③ 손이 크다.: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④ 시치미를 떼다.: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
⑤ 누워서 떡 먹기: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원래 속담의 '망한다'를 '돌아간다'로 바꾸어 속담의 뜻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서술형 문제

pp. 160-161

1. **|예시 답|** 이 글은 책을 읽기 전에 읽는 것이 좋다. 이 글에는 필자가 책을 쓴 목적과 책에 담긴 내용이 드러나 있으므로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판단의 내용과 효과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5
	판단의 내용만 쓴 경우	2
분량	90자 이하 또는 110자 이상일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001~061)정답.indd 27 2018-02-05 오후 12:09:23

2. **|예시 답|** 이 책은 발췌독을 하는 것이 좋다. 책의 내용이 특정한 범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독자가 나름의 유익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해당 책의 내용이 특정한 범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독자가 유익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절한 독서 방법을 논리적으로 밝힌 경우	5
	해당 책을 읽는 적절한 방법만 제시한 경우	2
분량	90자 이하 또는 110자 이상일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3. **|예시 답|** (나)의 그림을 그린 기법은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이다.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그렸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나)의 그림을 그린 기법을 정확히 밝히고, 그 기법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5
	(나)의 그림을 그린 기법만 제시한 경우	2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 두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4. **|예시 답|**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여 감상자의 의식을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나)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언어로 (나)의 그림이 '새롭고 신비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5. **|예시 답|**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은 남자를 제쳐 놓고 여자가 나서서 일을 추진하는 행위를 낮잡아 보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속담을 현대 사회의 모습에 맞게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잘 돌아간다.' 정도로 재구성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제시된 속담을 쓰는 상황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그 속담을 현대 사회의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경우	5
	〈보기〉에 제시된 속담 변형 방법 두 가지 즉, 속담의 본래 의미는 그대로 두고 비유되는 속성을 오늘에 맞게 바꾸거나, 속담의 의미를 아예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구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속담을 현대 사회의 모습에 맞게 적절히 변형한 경우	4
	속담을 쓰는 상황만 서술하였거나 제시된 속담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구성만 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6. **|예시 답|** 표준어의 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된 의사소통 기능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리고 지역 방언의 가치는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가 숨 쉬고 얼이 스며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지역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방언의 가치를 폄하하여 방언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렇지만 지역 방언을 사용한 (나)와 같은 작품을 통해 우리는 그 지역의 독특한 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 방언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창조하는 훌륭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조건〉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조건〉의 내용 중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가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조건〉의 내용 중 지역 방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조건〉의 내용 중 (나)를 활용하여 지역 방언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3
	지역 방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나)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분량	270자 이하 또는 330자 이상인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001~061)정답.indd 28 2018-02-05 오후 12:09:23

6 문학 너머로

(1) 문학과 사회 · 문화적 가치

소단원 핵심 문제 pp. 166-183

1 ④ **2** ④ **3** ⑤ **4** 동진강이 악취 풍기는 폐수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5** ④ **6** ① **7** '나'가 고향을 잃은 실향민임을 고려할 때, ㉠은 '나'가 현실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과거 고향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8** ③ **9** ① **10** 평소에도 말을 더듬는다는 것과 기세에 눌려 더욱 말을 더듬는 모습을 통해 '나'가 소심한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1** ③ **12** ④ **13** ③ **14** ③ **15** 환경 오염에 개의치 않으며, 진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16** ④ **17** ⑤ **18** ① **19**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에서 병국과 달리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 **20** ② **21** 경제 성장과 근대화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환경 파괴는 불가피하다. **22** ③ **23** ① **24** ④ **25** ② **26** ⑤ **27** ③ **28** ② **29** ③ **30** 병국이 잡힌 이유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심각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31** ③ **32** ③ **33** 큰 꿈 **34** ⑤ **35** ② **36** ④ **37** 해방 전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38** ② **39** ③ **40** ④ **41** 고향을 떠나온 '나'가 한순간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음을 보여 준다. **42** ① **43** ② **44** ④ **45** ④ **46** 병국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윤 소령은 안보 확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47** ⑤ **48** ③ **49** ⑤ **50** 병국은 사흘 사이 동진강 하구 삼각주에서 새들이 집단 폐사하는 원인을 조사하려 하였다. **51** ② **52** 산업화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자연 파괴의 희생물이다. **53** ④ **54** ③ **55** ①

1.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에 대한 후회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강 회장이 살아온 내력을 서술ㅇ자가 요약적 진술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② 공간적 배경을 실제 존재하는 '동진강 하구'로 설정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③ 1인칭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⑤ 시간의 흐름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이마의 주름이라는 구체적인 소재로 형상화하여 '나'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나'는 매일 신문을 보고, 할 일 없이 기원에서 바둑이나 두며 소일하는 무기력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고향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이 고향에 갈 수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이지 '도요새'가 '나'의 태도 변화를 야기한 것은 아니다.

5. '나'는 동진강이 오염되어 새 떼가 예전처럼 찾아오지 않게 되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식어 감을 느낀다.

|오답 풀이| ① 세월이 흘러 고향에 대한 물리적 거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나'의 심리적 거리감이 늘어난 것이다.

② '나'의 정서가 변화된 것은 공간적 배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공간적 배경의 주변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이다.

③ 환경 오염으로 달라진 것은 고향이 아니라 '나'가 현재 있는 공간이다.

⑤ '나'가 느끼는 감정은 심리적 거리감과 관련된 것이지 실제로 바다를 헤엄쳐 가겠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6. '재수생'은 당시 사회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나'가 도요새를 북에 있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나 약혼자라 여기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살아 있는 진정한 시간'으로 여기는 데에서 고향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매우 깊음을 알 수 있다.

8. 현재의 장교와 사병의 방문이 지난여름의 노무과장 일행의 방문을 회상하게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작품 안에 등장하는 서술자이다.

② 빈번한 장면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⑤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는 특별히 제시된 바 없다. 과거를 회상하며 '여름' 정도의 배경이 나타날 뿐이다.

9. 젊은이는 김병국에 대하여 위인이라 칭하하는 동시에 '상판'을 보자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김병국을 비꼬며 말하고 있으므로, 예의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청자인 '나'는 젊은이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젊은이는 답을 요구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다.

10. "기세에 눌려 내 목소리가 더욱 더듬거렸다."에서 '더욱'이란 표현을 통해 '나'가 평소에도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젊은이들의 기세에 눌려 더욱 말을 더듬는 모습에서 '나'가 소심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11. 사건을 보다 극적이고 현장감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은

(001~061)정답.indd 29 2018-02-05 오후 12:09:24

[A]가 아니라 [B]이다. [A]는 사건을 요약적 ·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빠른 전개 속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12. 젊은이들은 '상판, 마빡, 그 새끼' 등 비속어를 사용하고 주먹을 내두르는 등의 행동을 통해 '나'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나'의 말을 더듬는 버릇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병국의 문제를 이전에 한번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가족 간 신뢰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② 경제적 어려움은 이 글에 나타난 주제와 관련이 없으며, 이를 통해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관계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③ '여편네'가 들어온 것으로 '나'가 생각하지만, 이것이 평소 '나'의 아내가 집안을 자주 살펴보는 성격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⑤ '나'가 오른쪽 턱에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은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보여 주는 것일 뿐, 군인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13. ⓐ, ⓑ, ⓓ, ⓔ는 병국을, ⓒ는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14. 병국이 비료 공장에서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 진정서를 낸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공장의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15. 병국이 낸 진정서를 '정신병자가 쓴 낙서'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을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6. 주변 인물은 노무과장, 젊은이들인데, 이들은 병국이 제출한 진정서 때문에 일이 곤란해졌다고만 생각한다. 즉 병국이 낸 진정서는 주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노무과장과 젊은이들이 '나'의 집에 찾아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다.

② 진정서의 내용은 환경 파괴와 경제 성장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③ 노무과장 일행과 병국의 갈등을 야기하는 소재이다.

⑤ 노무과장이 병국을 찾아오게 된 원인이 되는 서류이다.

17. 노무과장은 병국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과장과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진 경우라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병국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병국은 자연과 환경을 인간보다 중시하는 인물이다.

② 병국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③ 병국의 행동을 자립성이 있는 행동이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노무과장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가치관, 즉 생태적 가치관을 반영한 평가가 아니다.

④ 병국이 경제 성장보다 중시하는 것은 환경 파괴를 막는 일이다.

18. ⓐ의 '요로'는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자리나 지위, 또는 그 자리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19. 노무과장의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라는 말에서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병국과 달리 사업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 "그동안 병국이는 용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병국의 행위를 옹호하고 싶은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병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③ 병국이 지난여름에 이어 곤란에 처한 상황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회의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⑤ 병국의 신상을 염려하고 있지만 병국에게 닥친 시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21.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으로 뿌릴 뽑아야 해!"라는 말에서 환경 문제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

22. 젊은이들은 병국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 채 그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병국의 소재를 알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3. 젊은이들은 '조국 근대화',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 등을 예로 들며 병국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공단 측이 제시한 대책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갈등의 원인을 미리 알았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③ 중위는 경제 성장에 대한 특별한 견해를 내보이고 있지 않다.

④ '나'와 노무과장의 갈등이 아니라 병국과 노무과장 및 젊은이들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젊은이들이 병국의 가치관을 가소롭게 여기고 있다. 병국이 젊은이들의 가치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노무과장은 명예 훼손을 거론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간혹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가 있긴 합니다."라며 공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공장에서 공해 검증 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다며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상대('나')의 약점을 병국으로 볼 수는 있으나, 노무과장이 '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관용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노무과장이 아니라 젊은이들이다.

25. '나'의 이력 소개는 중위가 '나'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는 병국의 행위에 대해 추측하며 중위에게 질문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나'가 궁금해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나'가 6.25 전쟁에서 겪은 과거의 일이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 이 글의 배경은 6.25 전쟁 이후이다.

ⓓ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001~061)정답.indd 30 2018-02-05 오후 12:09:25

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26. 중위는 '나'가 병국이 잡히게 된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자, 알 만하다는 얼굴로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이는 애초에 병국의 행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27. ㉢은 '자기보다 벼슬이나 지위가 위인 사람'을 의미한다.

28. 파견 대장이 병국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므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국을 선처해 줄 인물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9. 공장에서 가스를 태우는 불꽃을 뱀이나 악귀의 혀처럼 묘사한 데에서 '나'가 지닌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중위가 아닌 '나'의 눈에 비친 공장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②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내는 불꽃에 대한 묘사이다.

④ 바다와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으며, 대조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도 아니다.

⑤ 산업화에 대한 '나'가 지닌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는 표현이므로, 공장의 활기찬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0. '나'는 병국이 어떤 이유로 군에 잡혔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고 걱정되어 중위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

31. 이 소설은 1인칭 서술자인 '나'의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현재에서 과거 회상으로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

② ②는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등장인물이 자신이 겪은 일을 서술하는 1인칭 시점이다.

④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⑤ 다양한 인물의 시각이 아닌 '나'라는 한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32. 중위는 인천이 고향이고 '나'는 실향민으로 고향은 북쪽 땅에 위치하고 있다.

34. 일제 강점기에 '나'가 징용을 피해 금강산에 숨어 있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일제가 금강산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35. '바다'는 '나'로 하여금 병국의 어릴 적 일화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 간의 갈등과 '바다'는 관련이 없다.

③ 인물의 현실 극복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산업화가 진행된 공장 옆에 있는 공간이므로 미지의 세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36. 해방 전에 '나'가 부산과 일본을 오갈 때 '기선'을 타 보았다고 하였다.

37. 기선을 타 본 경험이 과거를 회상하게 하여 '나'의 목소리가 시무룩해진 것이다.

38. ⓐ "남한에 정착한 뒤 그곳이 그리워" 등의 표현에서 분단 이후라는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 금강산에 있는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신이 나서 입술에 침을 튀겨 가며 금강산 이야기를 하고, 풀죽은 목소리로 갈매기 이야기를 하는 것 등을 통해 '나'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회고적 어조나 성찰을 통한 회한 등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 '나'가 꿈꾸는 미래는 통일이 된 나라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9. 금강산에 대한 병국의 사전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금강산의 지명을 열거한 것이 아니며, 뒤에 병국이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0. '나'는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갈매기를 초월적 존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1. 금강산에 있는 지명을 모두 외울 정도로 '나'가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다.

42. '나'가 한숨과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하게 된 것은 갈매기를 타고 고향 땅에 도달하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② 자신의 바람에 누군가 동참하여 주기를 원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③ 금강산의 변화를 예측하며 걱정하고 있지 않다.

④ 아들에게 보여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보다, 자신이 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⑤ '나'의 아버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조부모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43. 병국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이 소설의 내용을 말했다고 할 만한 근거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도 꼬마 요정 요술에나 걸렸으면 좋겠구나."라는 '나'의 말을 통해 '나'가 닐스의 처지를 부러워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③ 병국은 "그럼 아버지만 거위를 타고 고향으로 가 버리면 어떡해요?"라며 아버지만 고향으로 떠날까 봐 걱정하고 있다.

④ '나'는 요술에 걸려 고향을 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거위'는 고향에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나'의 처지와 대비된다.

44. 윤 소령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원칙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가하고 있지 않다. 오랜 시간 병국과 이야

(001~061)정답.indd 31 2018-02-05 오후 12:09:25

기를 나누었다는 것에서 그가 병국이 하는 일에 공감할 줄 아는 식견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45. '나'는 병국이 의도적으로 군 통제 구역을 출입한 것이 아니라고 추측하며 병국을 감싸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오답 풀이| ㉠ '나'는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말하고 있지 않다.
㉢ '나'가 그리워하는 공간은 고향이므로 그곳을 초월적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자식의 처지와 상황을 두둔하고 있으나,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47. 병국이 부대로 끌려가게 된 것은 병국이 허가 없이 군 통제 구역에 침입했기 때문이다. 윤 소령은 경비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을 예로 든 것일 뿐, 윤 소령이 당시 작전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휴전이라는 상황에서 무장 공비가 침투하는 사건이 과거에 크게 일어난 만큼, 병국이 보인 무모한 행동은 군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윤 소령이 국가 보안을 강조하는 인물임을 고려할 때, 병국의 행위는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48. '불비'는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이 문장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문장에는 '불비'가 아니라 '구비'가 어울린다.

49. 요약적 서술보다 인물의 대화와 행동에 대한 묘사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50. "사흘 사이 동진강 하구 삼각주에서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죽기에 그 이유를 알아보려던 게……."라는 병국의 말에서 병국이 새들의 집단 폐사 원인을 조사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1. 새들이 죽은 이유를 알기 위해 해부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병국이 죽은 새를 가져온 것은 새들이 죽은 원인(사인)을 조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새들의 죽음을 안쓰럽게 여기고 있지만 이 때문에 죽은 새를 챙겨 온 것은 아니다.
③ 병국의 의구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④ 새들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범인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⑤ 죽은 새를 수습해 주기 위하여 챙겨 온 것이 아니다.

53. '나'는 꾀죄죄한 몰골로 애쓰는 병국에게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면서 그에게 동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동진강을 주요 배경으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나'는 폐수, 병국은 독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새 떼의 사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③ '나'와 병국은 새 떼가 급작스럽게 떼죽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⑤ '나'와 '병국'은 새 떼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신경을 쓰고 있으므로, 새 떼는 두 인물에게 영향력이 있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54. 대립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양상은 제시되지 않았다.

55. ⓐ는 '죽게 된 원인'을 의미하는 말이다. '몸짓이나 눈짓 따위로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일'의 의미를 가진 것은 동음이의어 '사인(sign)'이다.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소단원 핵심 문제 pp. 186-189

1 ⑤ **2** 모든 가시에는 독이 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생각함. **3** ③ **4** 글쓴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가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 이에 글쓴이는 많은 생명체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시'와 같은 무기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5** ④ **6** ① **7** ③ **8** ④ **9** ② **10**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이루어 낸 결과물을 의미한다.

1.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고향에 대한 글쓴이의 기억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 고향을 잊지 못하는 글쓴이의 애달픔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탱자 가시에 찔린 후 나무들의 가시에는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혼자 생각했다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가시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는 기능을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② 어린 시절에 경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시가 스스로를 찌르기도 하는 역설적 상황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있다.

2. 글쓴이는 탱자 가시에 찔려 손이 퉁퉁 부어오른 경험을 통해 모든 가시들에는 독이 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글쓴이는 유년기와 달리 성장하면서 마음속에 쉽게 뽑아낼 수 없는 가시를 키워 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시'가 자신을 키웠다고 한 것을 통해 ⓐ가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가 더 아프게 자신을 찌른다고 하였으므로, ⓐ는 피할수록 고통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시'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의미한다.
⑤ 글쓴이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 내면에 '가시'를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4. 글쓴이는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가시'와 같이 자기를 지킬 수

(001~061)정답.indd 32 2018-02-05 오후 12:09:25

있는 힘이 주어져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가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5. 생활의 고통이나 어려움 등의 부담을 '생활의 짐'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었으나, 이것이 인내하며 살아야 했던 시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이 글은 '가시'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사람들이 지닌 가시의 구체적인 예를 나열하고 있다(ⓐ). 또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 가시가 존재를 들어 올리고,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깨닫게 해 주고, 겸허함을 주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렇듯 글쓴이는 가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시'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가시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반화하고 있으나, 그 일반화가 인생의 소중함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 '가시'의 부정적 역할과 긍정적 역할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가시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7. 로트레크는 다리 때문에 비관하며 불후한 생을 살기는 했지만 그림을 통해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가 '가시'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8. 글쓴이는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고 하며,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가시의 긍정적 역할은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한다는 것, 사람을 겸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⑤ 글쓴이는 가시로 인한 극한의 고통을,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힘으로 보고 있다.

9. 겸허한 태도는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아니라, 글쓴이가 제시한 삶을 대하는 태도이다.

대단원 핵심 문제 pp. 190-195

1 ① **2** ⑤ **3** ② **4** ④ **5** ④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① **11** ⑤ **12** ④ **13** ② **14** ④ **15** ⑤

1. 이 글은 1인칭 서술자인 '나'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작품의 서술자는 '나'로 작품 안에 나타난다.

③ 극적이고 현장감 있는 사건의 제시는 서술자의 직접 서술 방식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④ 이 글에 나타나는 서술자는 '나' 한 명이므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가 새 떼를 보며 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시선이 아닌 주관적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2. '나'가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것은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 때문이지 주변 환경의 오염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고향에 가지 못하지만, '도요새'는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고 있다.

② '도요새'를 보며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간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고 하였다.

③ 시간이 흐르면서 '나'가 바라보는 바다는 점차 멀어 보이며 고향에 갈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④ 이전에는 헤엄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생각이 까마득히 멀어 보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나'의 심리적 거리감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새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나'가 '새'를 고향에 두고 온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나'가 황혼을 맞고 있는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환경은 악취 풍기는 폐수로 변해 버린 동진강이다.

4. (가)는 현재 벌어진 사건을, (나)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회상을 서술하고 있는데 (가)와 (나) 모두 현재 시점에서 '나'가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군인들이, (나)에서는 노무과장과 젊은이들이 '나'의 집으로 들이닥쳐 병국을 찾고 있다.

② (가)는 '올여름'이라는 말을 통해, (나)는 '지난여름'이라는 말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나'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⑤ (가)에서는 '나'의 요약적 서술을 통해, (나)에서는 '나'와 노무과장, 젊은이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5. 진정서에서 병국은 비료 공장의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동진강 하류에 암모니아 가스가 확산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서에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병국은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비료 공장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② 진정서의 내용 중, '관련 자료 별첨'이라는 표현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암모니아 가스가 배출되어 어민이 실신한 사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새벽 4시 10분 등 시간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밝히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비료 공장의 가스 배출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6. (가)에서 '나'는 장교와 사병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놀라거나 흥분한 '나'의 심리 상태를 보여

(001~061)정답.indd 33 2018-02-05 오후 12:09:25

주는 것으로, 군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전쟁 때의 부상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증상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노무과장은 젊은이들과 달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병국을 '자제분'이라고 가리키며 예를 갖추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② 젊은이들은 '마빡', '상판'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김병국이라고, 이 집에 살지요?"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⑤ 김병국은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름이 거론되며 작품 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 ㉢에서 윤 소령은 병국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이후 병국을 풀어 주는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윤 소령이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8. 병국에게 '새'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대상이자, 인간의 이기심과 산업화로 인해 희생되는 자연물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꿈과 소망은 고향에 갈 수 없는 '나'에게 '새'가 갖는 의미이다.

ⓔ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을 '새'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병국에게 '새'가 지니는 의미로도 볼 수 없다.

9. '나'와 병국이 생각한 새들의 집단 폐사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이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인지, 인물의 갈등이 지속됨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윤 소령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노기를 띠고 소리치지만, 파견대 정문을 나오며 병국의 행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화가 난 척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병국의 말 가운데 "본의는 아니었어요."라는 표현에서 의도성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닭털 침낭, 등산 배낭, 이인용 천막' 등과 같은 병국의 짐을 통해 야외에서 생활하기 위한 도구를 미리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병국은 '나'에게 새를 해부해서 사인을 캐 보려고 한다고 말하며, 새를 독살하는 치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0. (가)의 허생과 (나)의 남편은 모두 도를 중시하는 선비 정신을 지닌 인물이다.

|오답 풀이| ② (나)의 아내는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실용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변 씨가 허생을 보고 일어나 절하고 사양하며 이자를 줄여 받겠다고 하는 것에서 상대의 비범함을 알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허생은 변 씨에게, (나)의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⑤ (가)의 허생과 (나)의 남편은 모두 굶주림이 이유가 되어 글 읽기를 중단하게 되었다.

11. ㉤은 생계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내의 입장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불신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불신을 드러내기 위해 먹고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다.

12. "만 냥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허생이 중시하는 선비 정신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반어적 표현이나, 관용적 표현,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거나,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② '도'를 살찌게 한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상대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13. 인물의 성장 과정이 압축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14. '날카로운'은 '가시'의 속성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서술한 것이므로 이를 날카로울수록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은 유년기를 벗어나면 마음에 가시를 갖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년 시절부터 삶의 고통이 형성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서술형 문제

pp. 196-197

1. **|예시 답|** 당시는 국민 소득 일천 달러를 달성한 상황이었으므로,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 오염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공장 측 사람들이 환경 오염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를 찾아 이를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서술한 경우	5
	공장 측 사람들이 환경 오염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근거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2. **|예시 답|** 환경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사업 이익만을 생각하며,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을 통해 알 수 있는, 환경과 인간에 대한 노무과장의 가치관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001~061)정답.indd 34 2018-02-05 오후 12:09:26

3. **|예시 답|** 폐기물 방류가 고의가 아님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 '나'를 은근히 협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노무과장의 말에 담긴 발화 의도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노무과장의 말에 담긴 발화 의도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5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4. **|예시 답|** ㉠은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의미하고, ㉡은 인생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보기〉를 참고하여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 가야 할 것'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5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5. **|예시 답|** 나는 학교에서 농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의 진로도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나에게 다른 선수들보다 작은 키는 '가시'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난 슈팅과 패스 실력을 지닐 수 있도록 더 연습하고 노력할 것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시'와 '열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그 예를 적절하게 들어 서술한 경우	5
	'가시'의 예 또는 '열매'를 얻기 위한 노력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6. **|예시 답|** 학원에서 늦게 끝나 집에 돌아온 후 엄마와 대면하는 일상의 순간을 담아내고 있다. / 자신의 젊음, 꿈을 다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엄마의 삶에 대해 고마움과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화자의 경험과 성찰의 내용을 찾아 적절하게 구분하고 정리하여 서술한 경우	5
	경험과 성찰의 내용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5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7 매듭을 푸는 말과 글

(1) 설득을 위한 읽기와 쓰기

소단원 핵심 문제 pp. 202-207

1 ① **2** ④ **3** ④ **4** ⑤ **5** ① **6** ③ **7** 차별이 일상화되면 우리도 모르게 차별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다. **8** ② **9** ② **10** ⑤ **11** 차별이 주로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차별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 배상액이 너무 적으며, 차별받은 당사자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 관계 등의 입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2** ④ **13** ① **14** ① **15** ① **16** ④ **17** ③ **18** ② **19** 차별 철폐는 차별에 대한 소송의 증가 및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 법적인 측면과 차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식적 측면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1. 이 글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②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차별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지만 법 제도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지 않다.

③ 헌법 제11조 제1항을 인용하였지만 그것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

④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은 나이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분명히 두어 차별하고 있는 예이다. 반면 ㉡은 나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상이 되어 나이가 든 사람은 지원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차별을 하고 있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①, ③ ㉠은 나이, ㉡은 나이와 학벌로 차별을 하는 예이다.

② ㉠은 차별 대상이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하다.

⑤ ㉠과 ㉡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보편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3. 형(形)의 효력을 잃은 전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성(性) 전과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형(形)의 효력을 잃지 않은 전과자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이다.

|오답 풀이| ① 성별로 차별하는 사례이다.

② 임신으로 차별하는 사례이다.

③ 출신 국가로 차별하는 사례이다.

⑤ 정치적 의견으로 차별하는 사례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차별 금지에 대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001~061)정답.indd 35 2018-02-05 오후 12:09:27

5. 이 글은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과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6. '명시(明示)'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은 '명확(明確)', ②는 '명료(明瞭)', ④는 '결정(決定)', ⑤는 '제한(制限)'의 뜻풀이다.

7. 필자는 다양한 차별이 일상화되면 우리도 모르게 차별 문제에 무감각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8. 이 글에서는 목욕탕과 회사에서 일어난 차별 행위를 예로 들어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9.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차별보다는 사적 생활 관계의 주체들에 의한 차별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오답 풀이| ①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헌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모호하여 사적 영역의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④ 공적 영역은 헌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 영역보다 차별이 일어나기 어렵다.
⑤ 우리 법체계의 바탕에는 사적 영역의 차별은 사법(私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10. 우리 사법에서는 원고가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인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장애로 인한 차별에 해당한다.
②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사법(私法)으로 해결해야 한다.
③ 피해자는 주인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사적 생활 관계 주체인 목욕탕 주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다.

12. 필자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차별에 대해, 헌법을 곧장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손해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것, 차별받은 당사자가 입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13. 국가로부터 차별을 당하면 피해자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에 직접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제시되어 있으므로 심화 학습을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14. 필자는 차별 행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5. 소수의 변호사가 차별당한 피해자를 위해 무료로 변론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차별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차별 철폐 관련 소송의 변론을 맡았다.
③ 몇 건의 차별 철폐 관련 소송들을 이끌어 차별 금지 소송에 대한 주목도를 높였다.
④ 차별을 저지르는 것은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차별당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차별 철폐 관련 소송에서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는 부분에서 변호사들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16.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고 권한만 있다. 또한, 피해자를 대신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갖고 있지 않다.

17. ⓒ의 '권고(勸告)'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

18. 필자는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차별 관련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에 관한 법이 있다는 방증이다.
③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할 만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필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⑤ 차별을 행한 가해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낼 만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협상의 과정과 전략

소단원 핵심 문제 pp. 210-217

1 ④ **2** ② **3** ④ **4** ④ **5** ⑤ **6** ⑤ **7** ⑤ **8** 의궤 반환 문제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저해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9** ⑤ **10** ① **11** ② **12** ④ **13** ② **14** ② **15** ① **16** ③ **17** ④ **18** 의궤는 원본, 부본 상관없이 모두 소중한 문화재이며, 왕실의 유산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일제 강점기로 인해 받은 상처가 더해져 국민들의 정서상 의궤 맞교환 방식을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19** ⑤ **20** ① **21** ④ **22** ④ **23** ⑤ **24** 우리의 요구대로 의궤를 전부 반환하면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양도한 선례가 되어 다른 나라로부터도 문화재 반환 요청이 쇄도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 협상의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양국이 의궤 반환 협상을 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계기를 설명하며, 우리 측에서 새롭게 내놓은 제안의 내용을 알려 주고 있다.

(001~061)정답.indd 36 2018-02-05 오후 12:09:28

2. 한국의 협상 목적은 원래 우리의 것인 의궤를 프랑스로부터 전부 돌려받는 것이다.

3.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의 방화로 소실된 것은 외규장각과 5천여 권의 서적이다. 의궤는 당시 프랑스 군대가 약탈하여 한 권만 반환한 상황이다.

4. '등가 등량의 교환'은 하나의 물건을 같은 값이나 가치, 그리고 같은 양의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가치가 비슷한 문화재를 비슷한 양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의궤를 전부 돌려받고 우리의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므로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거둠.'이라는 뜻을 지닌 '일거양득(一擧兩得)'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견강부회(牽强附會):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함.
② 금석맹약(金石盟約): 금석처럼 굳고 변함없는 언약
③ 조삼모사(朝三暮四):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④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함.

6. 필자는 외교통상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새롭고 과감한 제안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7. 2001년 합의했던 안에 대한 프랑스의 반응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 우리 측은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 한국인의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를 프랑스 측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했다.

10. '교류와 대여'의 원칙은 1993년에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대전제라는 사실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합의된 사안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심화 학습을 위해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이다.

11. 양국의 정상이 '교류와 대여'라는 대전제에 합의한 것은 2001년이 아니라 1993년이다.

|오답 풀이| ① 양국은 오랜 시간 냉각기를 거친 뒤 한국 측의 제안으로 협상을 재개하였다.
③ 프랑스 측은 협상의 출발점을 의궤 맞교환 방안으로 잡을 것을 제안하였다.
④ 한국 측 대사는 의궤와 관련된 병인양요 사건을 거론하였다.
⑤ 양국의 협상은 1993년에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타결되지 못했다.

12. 프랑스 측은 2001년의 일차 합의안대로 의궤를 맞교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협상 실패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 의궤 문제에 대한 협상에 임하고 있다.
③ 의궤 문제가 양국의 우호 관계를 저해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⑤ 의궤를 맞교환하기를 바랄 뿐 의궤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을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다.

13. 의궤를 회전시켜 교체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은 한국 측이 아니라 프랑스 측이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공식 협상에서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③ 프랑스 측은 의궤를 몇 묶음으로 나누어 계속 교체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④ 프랑스 측에서 의궤를 몇 묶음으로 나누어 회전시키자고 제안하자 한국 측에서는 의궤 전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⑤ 한국 측은 한국 국민들이 왕실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일제 강점기에 많은 문화유산을 빼앗긴 데 대한 상처가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프랑스 측에 부탁했다.

14.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큰따옴표(" ")로 묶어 표시하고 있으며(ㄱ), '2010년 6월, 두 번째 공식 협상' 등의 소제목을 사용하여 사건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ㄹ).

15. 구해야 하는 장남인 ㉠은 프랑스에 있는 의궤를 말하고, 인질로 내줘야 하는 차남인 ㉡은 한국에 있는 의궤를 뜻한다.

16. ㉢은 '(현상이나 움직임이) 새로 생기다.'라는 뜻으로, 의궤 맞교환 방식에 대한 비난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③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났다는 의미이므로 '(현상이나 움직임이) 새로 생기다.'의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감정이) 새로 생기다.'의 뜻으로 쓰였다.
②, ④ '(약하던 것이) 성하게 되다.'의 뜻으로 쓰였다.

17. 박흥신 대사는 프랑스에서 조건 없이 의궤를 돌려주는 것이 미래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 한국과 프랑스 간의 협상이 극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협상과 관련된 원칙과 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② 양국의 이해가 충돌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을 뿐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③ 협상의 일반적인 목적과 절차가 나와 있지 않다.
④ 양국의 협상 타결 이후 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 않다.

20. 양국이 합의를 한 이후 이관 방법부터 의견이 충돌했으므로 의궤를 반환하기로 합의한 이후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의궤를 조건 없이 반환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도 문화재 반환 요청이 쇄도할 것을 우려했다.
③ 양국 관계에 새 국면을 열고자 하는 최고 정책 결정자의 결단에 따라 양국이 합의에 이르렀다.
④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끝까지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고집을 했는데, 이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⑤ 우리 측은 대여 형식으로 의궤를 돌려받는 것이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일단은

(001~061)정답.indd 37 2018-02-05 오후 12:09:28

의궤를 우리 땅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실리를 좇아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1. 한국과 프랑스는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 형식으로 일괄 양도에 합의했는데, 이는 프랑스가 한국에 의궤 전부를 빌려주되 5년마다 그 기간이 갱신되는 조건부 형식이다.

22. 우리 측은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라는 프랑스 측의 제안에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고민하다 일단 의궤를 우리나라에 가져다 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실리는 '의궤를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이고, 명분은 '의궤를 완전히 되돌려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3. 우리 측에서 의궤를 디지털화해서 프랑스 측과 공유하기로 하였으므로 의궤를 디지털화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세부 사항과 관련이 없다.

대단원 핵심 문제 pp. 218-221

1 ⑤ **2** ① **3** ④ **4** ③ **5** ③ **6** ② **7** ⑤ **8** ③
9 ⑤ **10** 우리 측은 의궤를 묶음으로 나누지 않고 의궤 전체를 반환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11** ④ **12** ④

1. (다)의 필자는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취업 면접이 거부된 것은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선거 연령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므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육아 휴직은 아이를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정당한 처사이다.
④ 대학교 학점은 입사 서류 심사의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⑤ 장애인 특별 전형은 장애인만을 따로 뽑기 위한 전형으로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3. 차별 행위로 인한 소송을 진행해 주는 변호사가 거의 없는 것은 아니다.

4. (다)의 필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시장의 자유 경쟁이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필자는 시장 경제 체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회 통제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② (나)의 필자는 분배가 오히려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다)의 필자는 시장 경제 체제가 강자가 지배하는 독점 체제 내지는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⑤ (나)와 (다)의 필자는 시장 경제 체제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5. (나)는 자동차 부품 이상으로 협상을 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가)는 의궤 반환 협상이 20년 가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상황 설명만 하고 있을 뿐 협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다.

6. 엔진 부품에 이상이 있으니 새 자동차로 바꿔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자체를 교환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결함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는 부품만 교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없다.
③ 부품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자동차 회사가 먼저 인정하였다.
④ 소비자의 과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회사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7. 의궤가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협상의 목적은 '의궤를 어느 나라가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의궤의 반환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이다.

|오답 풀이| ① 한국에서는 외교통상부가 협상 제안서를 작성했고, 프랑스에서는 외무부가 이를 전달받았으므로 두 부서가 협상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② 약 20년 동안 '등가 등량의 교환'을 전제로 협상이 진행돼 왔다.
③ 외교통상부는 약 20년 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④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의궤 반환 협상은 약 20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 (가)에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측이 의견을 내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지만, 양측이 협상을 통해 어떠한 손실과 이익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9. 한국 측이 의궤를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맞지만, 의궤를 몇 묶음으로 나눠 회전시키자는 프랑스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프랑스에 약탈된 의궤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폐지 창고에 방치된 채 발견되었다.
② 1993년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의궤 한 권을 돌려주었다.
③ 의궤를 몇 묶음으로 나눠 회전시키자는 프랑스의 제안은 의궤 전부를 한국에 돌려주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의궤를 약탈하면서 5천여 권의 책이 불타 버렸다.

10. 우리 측에서는 의궤가 한꺼번에 약탈된 것이므로, 반환도 전체를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두 다리가 튼튼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배제하겠다는 뜻이므로 차별 조항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꽃다운 여성을 우대한다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
② 용모를 보고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001~061)정답.indd 38 2018-02-05 오후 12:09:28

③ 서비스업에서 위생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전염병 보균자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⑤ 점장보다는 어렸으면 좋겠다는 식의 문구를 보태어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연령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

12. ⓐ는 프랑스에 강제로 빼앗긴 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이고 ⓑ는 나이로 취업을 제한하는 차별을 담고 있는 사례이다. 따라서 ⓐ와 ⓑ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술형 문제

pp. 222-223

1. |예시답| 26세로 나이 제한에 걸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회사를 조사받게 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두 쓴 경우	5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2.5점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2. |예시답| 필자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 금지 소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가 차별 관련 소송에 개입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의 권한만 있는 국가인권의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해서 차별 금지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다. 필자의 주장대로 소송이 늘어나다 보면 소송이 남발할 것이고 소송의 남발은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필자가 제시한 차별 문제의 해결책 두 가지를 정확하게 쓰고, 그 해결책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관해 논리적으로 평가한 경우	10점
	필자가 제시한 차별 문제의 해결책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쓰고, 그 해결책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관해 논리적으로 평가한 경우	7점
	필자가 제시한 차별 문제의 해결책만 쓴 경우	5점
	필자가 제시한 차별 문제의 해결책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3점
분량	270자 이하 또는 330자 이상인 경우	−1점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3. |예시답| 프랑스는 보유하고 있는 의궤를 한국에 있는 의궤와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의궤를 몇 묶음으로 나누고 그중 하나를 한국에 가져가 전시한 후 다른 묶음으로 교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계속 의궤 전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그렇게 할 경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의궤를 돌려주는 대신 다른 것과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대여 형식으로 의궤를 한국에 일괄 양도하는 데에 합의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프랑스가 제시한 네 가지 협상안과 최종 합의안을 시간 순서대로 쓴 경우	5점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쓴 경우	3점
	네 가지 중 두 가지만 쓴 경우	2점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1점
분량	220자 이하 또는 280자 이상인 경우	−1점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 시간 순서에 따라 쓰지 않은 경우 1점 감점	

4. |예시답| 의궤는 원래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대여의 형태가 아니라 반환의 형식이어야 하지만 프랑스 측이 뭔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의궤와 교환하는 모양새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 또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비롯해 프랑스의 국내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한국 측이 최종 합의안을 받아들인 이유 세 가지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한국 측이 최종 합의안을 받아들인 이유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한국 측이 최종 합의안을 받아들인 이유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점
분량	120자 이하 또는 180자 이상인 경우	−1점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001~061)정답.indd 39 2018-02-05 오후 12:09:28

9 우리 문학의 길을 따라

(1) 옛 노래의 향기

소단원 핵심 문제 pp. 228-231

1 ② **2** ④ **3** ② **4** ③ **5** ② **6** ② **7** ③ **8** '븬 ᄇᆡ',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지 못해 막막하고 외로운 심정을 '븬 ᄇᆡ'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9** ② **10** ③ **11** '낙월'과 '구ᄌᆞ�ᆫ 비'는 모두 죽어서라도 임의 곁에 있고 싶어 하는 화자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는 시어이다. 그러나 '낙월'이 임을 멀리서라도 지켜보겠다는 소극적 사랑의 표현이라면, '구ᄌᆞᆫ 비'는 임의 곁에 가까이 가서 자신의 슬픔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가시리」의 후렴구는 후대에 궁중의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본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시리 / 가시리 /잇고 // ᄇᆞ리고 / 가시리 / 잇고'와 같이 3 · 3 · 2조의 3음보 율격을 띤다.

③ '가시리-가시리잇고-ᄇᆞ리고-가시리잇고'에 'a-a-b-a' 구조의 반복적 표현이 드러나 있으며, 이는 우리 민요에 흔히 나타나는 리듬감이다.

④ 이 작품은 고려 시대 민중들의 솔직 담백한 정서를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⑤ '현실 인식-갈등 고조-전환(체념)-갈등 해소'의 구성은 '기-승-전-결'로 이루어진 한시의 구성 단계를 따르고 있다.

2. 사랑 이후의 이별이 필수적이라는 화자의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3. 「가시리」와 「진달래꽃」의 화자 모두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했음(이별의 수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재회를 기원하는 것은 「가시리」에만 나타나 있다.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 (가시자마자 돌아서서 오소서.)

③ 임에 대한 원망은 「가시리」에만 나타나 있다. "날러는 엇디 살라ᄒᆞ고 /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어찌 살라하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④ 임을 향한 축원은 「진달래꽃」에만 나타나 있다.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시리」의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 / ᄇᆞ리고 가시리잇고"에서 자신을 버리고 가려는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의 심정을 직접 토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가)는 보조 역할을 하는 '여인 1'의 말로, 중심 화자인 '여인 2'의 사연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어 시상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성스런 마음'은 남성 화자의 목소리가 더 어울린다. 하지만 작가는 임금만을 생각하는 신하의 심정을 임과 헤어진 여인의 목소리로 더 절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6. "츈한 고열은 ~ 자시ᄂᆞᆫ고"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아침부터 밤까지 임이 어떻게 지내실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샤공은 어ᄃᆡ 가고 븬 ᄇᆡ만 걸렷ᄂᆞᆫ고"에서 '사공은 어디 가고'는 사공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한탄을 토로한 것이다.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임의 소식조차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하는 심정만 드러나 있다.

⑤ '높은 산'과 '물가'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고자 찾은 공간이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답답한 심정이 해소'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7. '일월'은 임금을 뜻하는 시어이다. '구롬, 안개, ᄇᆞ람, 믈결'은 임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하며, '임금-신하'의 관계로 볼 때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을 비유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화자가 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 '높은 산'에 올라갔으나 '구롬(구름)'과 '안개'로 인해 어두워서 '일월'(임금)을 볼 수 없다고 했으므로 '구롬'과 '안개'는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이다.

④, ⑤ '놉픈 뫼(높은 산)'에서 임의 소식을 알아보는 데 실패한 화자가 그 대안으로 '믈ᄀᆞ(물가)'에 갔으나, 'ᄇᆞ람(바람)'과 '믈결(물결)'이 거세어 배도 못 띄우는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ᄇᆞ람'과 '믈결'도 '구롬(구름)', '안개'와 같은 의미의 시어임을 알 수 있다.

9. (바)~(아)에는 불만족스러운 현실 상황이 나타나 있을 뿐, 현실 비판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눌 위ᄒᆞ야 ᄇᆞᆯ갓ᄂᆞᆫ고", "ᄌᆞᆷ은 엇디 ᄭᆡ돗던고"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반(半)이 나마 늘거셰라", "어엿븐 그림재 날 조ᄎᆞᆯ ᄲᅮᆫ이로다", "번드시 비최리라"에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④ "오뎐된 계성", 즉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되고 있다. 이 소리는 꿈에서 임을 만난 화자의 잠을 깨우고 있다.

⑤ 중심 화자인 여인 2와 보조 화자인 여인 1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통해 작품이 진행 · 마무리되고 있다.

10. 화자는 잠깐 든 '풋ᄌᆞᆷ'의 'ᄭᅮᆷ'을 통해 임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았는데, 마음속 말을 다 전하지도 못한 채, '오뎐된 계성' 때문에 잠이 깼다. 따라서 화자는 '계성(닭소리)'이 원망스럽고 얄미웠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반벽쳥등'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② 'ᄭᅮᆷ'으로 인해 임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궁극적인 갈등 해소'로 볼 수 없다.

(001~061)정답.indd 40 2018-02-05 오후 12:09:30

④ '어엿븐 그림자'는 화자 자신의 그림자다. 따라서 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진술이다.
⑤ '여인 1'이 '여인 2'에게 '구**준** 비'가 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슬픔을 알리라는 조언일 뿐 궁극적인 사랑의 성취 방법에 대한 조언은 아니다.

(2) 옛이야기의 맛과 멋

소단원 핵심 문제 pp. 234-247

1 ② **2** ④ **3** ② **4** 님의 형상 자세히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 **5** ③ **6** ⑤ **7** ④ **8** ① **9** ⑤ **10** ⑤ **11**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옥에 갇힌 자신을 구하러 오는 것 **12** ④ **13** ③ **14** ⑤ **15** ④ **16** ④ **17** 앞뒤 맥락을 보면 일단 잔치 음식을 먹은 후에 변 사또를 징치(懲治)하겠다는 어사또의 의지를 표현한 말임을 알 수 있다. **18** ④ **19** ⑤ **20** ④ **21**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 **22** ① **23** ③ **24** ③ **25** ④ **26** ⑤ **27** ③ **28** ④ **29** ① **30** ④ **31** 암행어사가 출두한 상황 **32** ③ **33** ② **34** ③ **35** ③ **36** '바람'과 '눈'은 춘향의 굳은 절개를 위협하는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며, 여기서는 '수청을 들라는 강요'를 가리킨다. **37** ① **38** 극적 반전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9** ④

1.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로서, 판소리 「춘향가」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2. 춘향 모가 "왔다.", "그저 왔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가 내려왔다."라고 하며 이몽룡이 왔음을 춘향에게 알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옥에 갇힌 춘향은 오매불망 몽룡만 그리워하며 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② 춘향 모는 두려운 마음에 춘향을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있으나 어사또는 "크게 한번 불러 보소", "뭐가 어때.",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라고 하며 시종일관 당당하게 자신이 왔음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다.
③ 춘향은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축으로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다음부터는 오실라 마옵소서."라고 하며 옥중에 있는 자신을 찾은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⑤ 춘향 모의 말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해서 간 떨어질 것이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가)의 [A]는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 없이 서술자의 진술로만 이루어진 부분으로, 서술자가 그간의 사건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4. 〈보기〉는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의 개입'에 관한 설명이다. 작품 밖 서술자는 이 도령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당연히 춘향이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5. 이몽룡이 걸인이 되어 나타나자 이에 실망한 월매는 딸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저 왔다."라고 전달하며 사위를 괄시하고 있다.

6. ㉠의 '서방인지 남방인지'는 남편을 뜻하는 '서방(書房)'과 '서쪽 방향'을 뜻하는 '서방(西方)'이 같은 소리를 내는 것에 착안한 말장난으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라고 볼 수 있다. 반면, ⑤는 유사한 의태어를 반복하여 해학성을 자아내는 언어유희이다.
|오답 풀이| ① '작은집'(후실)을 얻었다는 것을 '작은 집'(크기가 작은 집)이라고 받아 '큰 집 – 작은 집'으로 대응시켰으므로 ㉠과 같은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이다.
② '열녀(烈女)의 '열(烈)'을 숫자 '열[十]'으로 치환하여, '열녀(十女)–백녀(百女)'로 표현하였으므로 ㉠과 같은 유형의 언어유희이다.
③ "이 도령인지 삼 도령인지."에서 '이(李) 도령'을 숫자 '이(二)'로 바꾸어 '이 도령, 삼 도령'이라 하여 웃음을 자아내고 있으므로, ㉠과 같은 유형의 언어유희이다.
④ '사대부(士大夫)'의 '사(士)'를 숫자 '사(四)'로 치환하여, '사대부(四大夫)–팔대부(八大夫)'라고 표현하였으므로 ㉠과 같은 유형의 언어유희이다.

7. '좋은 병, 비녀, 밀화장도, 옥지환' 등 아끼던 사물을 나열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팔아 서방님을 위해 써 달라고 모친에게 당부하는 것이지 춘향 자신의 현실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수족인들 놀릴쏜가.", "한 번 가면 언제 다시 올까."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자신의 심정을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치렁치렁', '둥덩실', '까옥까옥'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현장감 있는 진술에 기여한다.
③ 몽룡을 기다린 일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공든 탑이 무너졌네."라는 상투적인 비유를 활용해 표현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⑤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서방님 내 말씀 들으시오."라고 시작하며 어머니와 서방님 둘을 지정한 후, 각 사람에게 부탁할 일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8. 춘향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방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 줄 뿐, 원망의 감정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불쌍한 나의 모친 나를 잃고 ~ 어느 자식이 있어 "후여" 하고 날려 주리."에서 자신이 죽은 후에 돌봐 주는 사람이 없어 처량한 신세가 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심은 나무가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에서 몽룡의 거지 행색을 본 후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춘향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 입던 비단 장옷 ~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마시고 날 본 듯이 섬기소서."라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몽룡을

(001~061)정답.indd 41 2018-02-05 오후 12:09:30

정성껏 섬겨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⑤ "곤장 맞고 죽거들랑 삯꾼인 체 달려들어 ~ 서방님 손수 염습하되"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네가 나를 어찌 알고"라는 말은 이몽룡이 자신의 정체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또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는 춘향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이다.

10. 춘향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신분 상승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춘향 스스로도 신분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춘향을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근대적 인물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12. 이방은 승발을 불러서 "어사또가 새문 밖 이 씨라더니~ 별 탈이 없도록 조심하소."라고 말하며 암행어사가 출두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운봉 영장이 본관 사또에게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라고 청하자, 본관 사또가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마는."이라고 하며, 운봉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마)의 "사령 불러 잡인을 금하라."와 (바)의 "우리 사또님이 걸인을 금하였으니"에서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마)의 "본관 사또는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있어 하인 불러 분부하되," 이후 내용을 보면 본관 사또가 직접 자신의 생일잔치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라)에서 "여보소, 들으니 어사또가 새문 밖 이 씨라더니"라고 말한 사람은 '이방'이다.

13. (바)에는 언어유희가 나타나지 않는다.

14. ⓐ는 걸인 행색을 하고 있는 자신을 '암행어사'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몽룡이 신분이 발각될까 봐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15. 이 글에서 ①, ②, ③, ⑤는 모두 어사또, 즉 이몽룡을 가리킨다.

16. 〈보기 1〉은 반어적 표현에 대한 설명이고, 〈보기 2〉는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 ㉢과 ㉣이며, 〈보기 2〉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 ㉤이다. 따라서 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오답 풀이| ① ㉠: 〈보기1〉, 〈보기2〉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라는 말은 백성들을 외면하고 화려한 잔치만 일삼는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③ ㉢ : "좋은 잔치에 왔으니"는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를 비판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⑤ ㉤: "입맛이 사납겠다."는 운봉의 의견을 못마땅해하는 본관 사또에 대한 편집자적 논평이다.

17. ㉥의 본래 의미는 '나쁜 짓을 해서 얻는 이익은 자기가 챙기고,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잔치 음식을 실컷 먹고 난 후 본관 사또를 징벌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 어사또는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닥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여 있는 자신의 상을 보고 화를 내며, 상을 발길로 차 던졌다.
|오답 풀이| ① "걸인이 어려서 한시깨나 읽었더니 ~ 차운 한 수 하사이다."라는 어사또의 말에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을 내어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운봉이 어사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어사또가 시를 지은 것은 부패한 지배층을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③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귀를 지었으되"에서 알 수 있듯, 어사또는 다른 사람들이 짓기도 전에 매우 빠르게 시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운봉은 어사또가 시를 잘 짓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19. ㉠은 동음이의어, 발음의 유사성 등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해학과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⑤는 '마르크시즘'과 발음이 유사한 '막걸리'라는 말을 사용한 언어유희로, 해학과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 ㉡은 어사또가 받은 형편없는 대접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21. ㉢은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와 동일한 표현 방법이 쓰인 구절은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 통분하랴."이다.

22. '가렴주구'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으로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한 말이다.
|오답 풀이| ② 각주구검(刻舟求劍):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③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④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
⑤ 지록위마(指鹿爲馬):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

23. '촛불 눈물'은 '촛농'을 가리키는 말로, '백성 눈물'과 대조를 이룬다.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탐관오리들이 연일 잔치로 향락을 일삼을 때,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깊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달 같은 마패', '햇빛같이 번쩍'에서 비유적 표현(직유법)이 나타나며, 이런 비유를 통해 '마패'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25. 운봉은 변 사또의 질문에 둘러대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지 변 사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26. ㉠은 어사또의 신분을 알아낸 운봉이 암행어사가 출두할 것을 대비해 각 아전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고, ㉡은 어사또가 부하

(001~061)정답.indd 42 2018-02-05 오후 12:09:30

들에게 출두 준비를 은밀히 시키는 장면이다. 이 두 장면 모두 열거의 방식으로 사건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여 긴박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 모두에 과장된 비유나 인물 능력 부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사건의 내막은 ㉠과 ㉡ 모두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 "청파 역졸 거동 보소."에 서술자의 개입이 있으나, 서술자가 상황에 대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이다. ㉠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과 ㉡에 반복, 대구, 열거의 방식이 활용되기는 하였지만 대조의 방식은 활용되지 않았다.

27. ㉢은 마패를 번쩍 들어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는 장면이다. 이때 마패는 위기에 처한 춘향을 구하고 부패한 본관 사또를 징벌하는 향후 사건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사건의 극적 반전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

28. 신분이 다른 두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설화는 '염정 설화'에 속한다.

29.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에서 서술자의 작중 상황 개입을,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에서 과장된 표현을, "애고 박 터졌네.",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에서 비속어의 사용을, '휘닥딱'에서 음성 상징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우연적 전개는 드러나 있지 않다.

30. [A]는 암행어사 출두로 아전과 수령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장면을 대구법, 열거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부분이다. 4 · 4조의 운문체로 서술함으로써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극대화하여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1. ⓐ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아전들을 벌주는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다.

32. 어사출두로 넋이 나간 변 사또의 표정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클로즈업을 하여 그 표정을 부각시켜야 한다.

33. ㉠은 '언어 도치를 통한 언어유희'로 본관 사또가 당황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양반 계층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 ②도 '언어유희'의 방식으로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양반의 무능력과 허위를 비판, 풍자하고 있다.

34. 이 글에서 춘향은 이몽룡에 대한 높은 절개를 지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행복을 얻었다. 이는 민중의 지배층에 대한 항거와 성장한 민중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가치관은 찾을 수 없다.

35. 어사또는 일부러 모욕적인 말을 하며 춘향의 정절을 시험하고 있다. 이는 춘향이 자신의 존재를 모를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층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녹죽 푸른 나무'는 변하지 않는 춘향의 절개를 상징하고, '바람과 눈'은 이를 위협하는 본관 사또의 횡포와 위협을 상징한다.

37. 춘향은 '층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녹죽 푸른 나무'를 통해 변하지 않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화자도 '청산'과 '유수'를 통해 변하지 않는 자연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과 〈보기〉는 모두 변하지 않는 자연을 빗대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9. '두문불출(杜門不出)'은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한다는 뜻의 한자 성어로 (너)의 춘향의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②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③ 명재경각(命在頃刻):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

⑤ 득의만면(得意滿面):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함.

(3) 현대 문학의 시선

소단원 핵심 문제 pp. 250-251

1 ⑤ **2** ③ **3** ⑤ **4** ② **5** ③ **6** '채찍'은 매운 계절이 갈기는 것으로 우리 민족에게 닥친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현실 혹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의미한다.

1. 시 전체에 화자의 '강하고 단호한 의지'는 표출되어 있지만, '명령형 어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기승전결'의 한시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② 수평적 극한인 '북방'으로 휩쓸려 와서, 다시 수직적 극한인 '고원'으로, 다시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서릿발 칼날진 그 위'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

③ 마지막 연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에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 역설적 초극 의지로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려는 화자의 의지가 담긴 이 구절은 주제가 집약된 부분이다.

④ '오다', '서다', '없다' 등의 현재형 어미로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긴박감을 드러내고 있다.

2. '통사 구조의 반복'은 대구법이나, 두 어절 이상의 반복이 이루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이 시에는 대구법과 반복법 모두 드러나 있지 않다.

3. 화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극한의 공간은 '서릿발 칼날진 그 위'이다.

4. ②의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는 비극적 상황에서의 역설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에서 '강철'과 '무지개'가 상충하는 이미

(001~061)정답.indd 43 2018-02-05 오후 12:09:30

지인 것처럼, '외로운'과 '황홀한'도 서로 모순되는 감정이다.

|오답 풀이| ① 당신이 찾으시면, "잊었노라"라고 한다는 것은 반어법이다.

③ '곧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④ '영원한 ~ 없느니라.'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⑤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 끝났다.'라는 것은 '마음의 고향을 잊지 못하겠다는 말'의 반어적 표현이다.

5. 유치환의 「바위」는 「절정」과 마찬가지로 강인하고 남성적인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바위'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초월적 존재로 강인한 정신과 의지의 표상이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다.

|오답 풀이| ①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인식을 통해 삶의 허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내용의 작품이다.

② '강물'을 제재로 하여 화자의 은밀하고도 순수한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④ 현실의 냉혹함('수심')을 아직 깨닫지 못한 순수한 '나비'(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자아 성찰과 번뇌를 그린 작품으로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괴로움의 이유를 찾으려고 고뇌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대단원 핵심 문제 pp. 252-257

1 ④ **2** ④ **3** ⑤ **4** ④ **5** ② **6** ④ **7** ⑤ **8** ⑤
9 ① **10** ③ **11** ④ **12** ⑤ **13** ② **14** ④ **15** ④
16 ⑤ **17** ④ **18** 외나무다리

1. (가)는 '가시리잇고'에서, (나)는 '편ᄒᆞ실 적 몃 날일고' 등에서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이를 통해 (가)는 임이 화자를 떠나려 하는 순간의 안타까움을, (나)는 임의 일상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두 작품 모두 청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3음보의 운율감은 고려 가요인 (가)에만 나타나고, 가사 작품인 (나)에는 4음보의 운율감이 드러난다.

③ 두 작품 모두 '선경 후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이 시의 후렴구는 악률을 맞추기 위해 넣은 의미 없는 후렴구이다.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후대에 궁중의 속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노래의 내용과 관계없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구절이 후렴구로 삽입되었다.

3. ㉤의 '디ᄂᆞᆫ ᄒᆡ'는 화자가 하루 종일 임의 소식을 알고자 애썼으나 그것이 실패로 끝난 후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존재이다. 즉 화자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이다.

4. (나)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다르게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강가에도 가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보기〉 모두 임과의 재회에 대한 확신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보기〉에서는 '아니시며 거츠르신 ᄃᆞᆯ(아니시며 거짓인 것을)', '잔월효성이 아ᄅᆞ시리이다(달과 별-천지신명-은 알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는 〈보기〉의 '니미 나ᄅᆞᆯ 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임이 저를 벌써 잊으셨습니까?)'에만 나타나 있다.

⑤ 두 작품 모두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5. (가)는 임이 떠나간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나)는 극한적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가), (나)의 화자 모두 자신이 놓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복적 표현은 (가)에만 나타난다.

③ 공간의 이동은 (나)에만 드러나 있다.

④ (가)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 표현이고, (나)는 현재형 진술이 쓰였으나 그것이 화자의 신념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⑤ 반어적 표현은 (가)에만 쓰였다.

6. 1, 2, 3연에서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였고, 4연에서는 현재-과거-미래의 상황을 모두 표현하였다.

7. 화자는 비극적 상황과 이에 대응하려는 신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질적 이미지를 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관조를 통해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은 물러설 곳 없는 한계 상황에서 화자가 선택한 정신적 초극의 태도를 보여 주는 구절이다.

|오답 풀이| ① ㉠의 '먼 훗날'은 임을 잊지 못하는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기 위해 화자가 가정한 미래의 상황이다.

② ㉡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는 임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본심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다.

③ ㉢의 '휩쓸려' 온 것이므로 화자가 자기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힘에 의해 오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의 '고원'은 더 이상 올라설 곳도 없는 높은 곳을 가리킨다. 화자는 지리적 환경을 통해 극한의 상황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9. (가)와 (나) 모두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10. (나)에서 춘향이 "어젯밤에 옥 문간에서 ~ 나 죽는 줄 모르는가."라며 이몽룡을 찾기는 하지만 이를 원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01~061)정답.indd 44 2018-02-05 오후 12:09:31

11. ㉠은 춘향이 잘 때도 이몽룡을 그리워했다는 내용이므로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의 '오매불망(寤寐不忘)'이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①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② 좌불안석(坐不安席):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③ 수수방관(袖手傍觀):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⑤ 부화뇌동(附和雷同):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12. (가)는 판소리계 소설, (나)는 현대 소설이다. 두 작품 모두 서사 갈래로 허구성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가)에는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으나, 그것을 '실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주로 인물들 간의 갈등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② (가)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회적 배경, (나)는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작품 밖에 있는 일정한 서술자 한 명이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④ 판소리계 소설인 (가)는 구전되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창작되었고, (나)는 한 사람의 전문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

13. 〈보기〉의 '두터비'는 탐관오리인 '본관 사또'를, '프리'는 두터비가 괴롭히는 대상으로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두터비'는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권력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탐관오리를 비유한 것이다.

③ '두험'은 탐관오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을 수탈하여 쌓아올린 온갖 재물들을 비유한 것이다.

④ '것넌 산'은 '두터비'보다 힘 있는 자인 '백송골'이 나타난 장소로 '백성'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⑤ '백송골'은 부패한 관리인 '본관 사또'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자로, 「춘향전」에서의 '암행어사'와 같은 중앙 관리를 비유한 말이다.

14. 영감의 손자 종학이가 경시청에 붙잡혀 들어갔다는 내용의 '전보'는 사건을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소재이지 갈등 해결의 단서는 아니다.

15. (나)의 서술자는 독자와 작중 인물의 중간에 서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16. (다)에서 만도와 진수는 서로를 걱정하는 부자의 정을 보여 주고 있다.

17. 현실 상황에 대한 체념, 절망이 나타나 있을 뿐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18. (나)의 '외나무다리'는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한편, 신체적 손상을 입은 부자가 서로 협동하여 고난을 이겨 나가는 극복 가능성을 보여 주는 소재이기도 하다.

서술형 문제

pp. 258-259

1. **|예시답|** (나)는 화자가 임을 청자로 상정하고 말하는 '독백체'인 반면, (가)는 두 화자의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독백체보다 작품을 더욱 극적으로 전개하고,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나)의 독백체와 비교하여 (가)의 대화체의 특성을 잘 비교하여 설명하고,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작가의 의도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5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나)와 비교하지 않고 (가)의 대화체의 특성과 그 효과만 설명한 경우	3
분량	130자 이하 또는 170자 이상인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2. **|예시답|**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이별의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처럼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한과 그리움,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 주는 것이 한국 시가 문학의 전통적 특질 중 하나이다. 이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시가 문학에서 독자가 쉽게 감정 이입을 할 수 있으므로, 폭넓은 공감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가)와 (나)가 이별 상황에서 소극적인 여성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과 이것이 한과 기다림의 미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시가 문학의 전통 특질이라는 점, 독자에게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을 모두 서술한 경우	7
	(가)와 (나)의 여성 화자의 공통적 정서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것을 한국 시가 문학의 전통인 한과 기다림의 미학과 연결하여 서술하였으나, 그 효과에 대한 서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가)와 (나)의 공통적 정서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한국 시가 문학의 전통적 특질 및 효과에 대해 서술 않은 경우	3
분량	170자 이하 또는 230자 이상인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001~061)정답.indd 45 2018-02-05 오후 12:09:31

3. **|예시 답|** (가)에서는 열거, 대구, 반복적 표현을 이용한 확장적 문체를 사용하여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비유와 어순 도치를 이용한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인물의 모습과 심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열거법, 대구법, 반복적 표현, 장면의 극대화, 비유, 어순 도치, 언어유희 중 두 가지 이상을 서술한 경우	5
	열거법, 대구법, 반복적 표현, 장면의 극대화, 비유, 어순 도치, 언어유희 중 한 가지만을 들어 서술한 경우	3
분량	90자 이하 또는 110자 이상인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4. **|예시 답|** (가)에 등장하는 본관 사또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배층을, (나)에 등장하는 윤직원 영감은 위선적이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전형적인 친일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가), (나)의 서술자는 이런 부정적인 인물을 과장하거나 비꼬는 등의 어투를 통해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이렇듯 부정적 인물이나 현실에 대한 조롱과 풍자의 전통은 판소리계 소설을 비롯하여 채만식의 「미스터 방」, 「치숙」 등으로 이어졌고 현대의 영화나 개그 프로그램 등으로 계승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본관 사또와 윤 직원 영감이 대표하는 인물의 유형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기술하고,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경우	6
	본관 사또와 윤 직원 영감의 인물 유형과 서술자의 태도는 기술하였으나, 그것이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4
	인물 유형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서술자의 태도만 언급한 경우	2
분량	220자 이하 또는 300자 이상인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식 감점	

10 다매체 시대, 가꾸는 국어

(1)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

소단원 핵심 문제 pp. 264-273

1 ⑤ **2** ④ **3**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4** ① **5** ⑤ **6** ② **7** ① **8** ② **9** ③ **10** ③ **11** ① **12** ② **13** ③ **14**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사용해 미래 시제를 실현하였다. **15** ③ **16** ② **17** ① **18** ㉮ 철수가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 그는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19** ⑤ **20** ③ **21** ② **22**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대화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1.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와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임의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다.

2.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으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가 사용되었다.

3. 문장의 객체가 선생님이므로 객체를 높일 때 사용하는 특수한 어휘인 '드리다'를 쓰고,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써야 한다.

4. '더 큰 바지'는 높임의 대상인 '손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간접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5.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으며, 목적격 조사는 객체를 높이는 데에 활용할 수 없다.

6. ⓒ는 ⓐ와 달리 문장의 주체가 문장 내에 드러나지 않는다.

7.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로 나타난다.

8. ㉣은 '하게체'이므로 격식체이면서 낮춤 표현이 실현된 예문이다. 따라서 가깝고 사적인 공간이 아닌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비격식체인 해요체이다.
③ ㉡은 격식체인 해라체, ㉢은 비격식체인 해체이다.
④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동등하거나 말하는 사람보다 낮을 때에는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체를 쓴다.
⑤ 해라체는 상대편을 아주 낮추는 종결형이고 하게체는 보통으로 낮추면서 약간 대우하여 주는 종결형이다.

9. 시제(㉮)는 말하는 때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때인 사건시(㉯)의 선후 관계를 따져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001~061)정답.indd 46 2018-02-05 오후 12:09:33

10.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동사에만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11. 관형사형 어미 '-(으)ㄹ'은 시제와 관계없이 수식 기능만 가질 수도 있다. ①의 문장은 미래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뒤의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12. ㉯의 문장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은 '피는'과 '예쁘다'이며, ㉮와 ㉯에는 시간 부사어가 나오지 않는다.

13. ㄷ의 '-겠-'은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로 쓰이고 있다.

14. '떠나다'에 관형사형 어미 '-(으)ㄹ'을 붙여 미래 시제를 나타냈다.

15. ③은 '가다'의 어간 '가-'에 '-게 되다'가 결합하여 피동문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접사 '-되다'가 명사 뒤에 결합하여 피동문이 된 것이다.

16. 직접 인용 표현인 경우에는 해당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하여 표시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쓴다. 간접 인용 표현인 경우는 화자의 상황에 맞게 문법 요소를 적절히 바꾸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쓴다.

17. '잊혀진'은 '잊-+-히-+ -어지-+-ㄴ'으로 분석되며, 피동 접미사 '-히-'와 피동문을 만드는 '-어지다'가 함께 쓰였다. 이는 이중 피동이므로 '-어지다'의 표현을 생략하여 '잊힌 계절'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씌어진다'는 '쓰-+-이-+-어지-+-ㄴ-+-다'의 결합으로 이중 피동 표현이다. '쓰여진다' 역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피동의 의미를 살리려면 '사용되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과 ㉡은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⑤ 이중 피동은 피동의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19. 부탁이나 건의는 모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말하기이므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20. 부탁하는 말하기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해야 한다.

21. 〈대화 2〉의 아빠는 규현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니 아빠 마음이 한결 가볍구나."라고 하며 규현이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다.

(2) 매체와 국어 사랑

소단원 핵심 문제 pp. 276-279

1 ⑤ **2** ③ **3** ① **4** ③ **5** ④ **6** ⑤ **7** ② **8** ②
9 언어 사용자들에게 이미 국어처럼 쓰이는 외래어를 그 순화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나 검증 없이 순화어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1. 표제와 부제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하며 순화어가 통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으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표제에 제시된 '손누리틀', '똑똑전화'는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순화어들로, 이를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본문에서 순화어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오답 풀이| ①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② 작은따옴표를 표제에 사용하여 '사장 위기'에 처한 순화어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손누리틀', '똑똑전화', '앞선사용자'와 같은 순화어를 사용한 대화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⑤ 본문 초반에 순화어가 외면받고 있는 문제 상황을 지적한 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애써 발굴한'의 주체는 국립국어원이 맞지만, 그렇다고 이 글에서 '순화어가 잘 쓰이지 않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국립국어원에만 돌리고 있지는 않다.

4. 이 기사에서는 순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83%가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은 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순화어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전문가의 의견은 순화 대상어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언급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6. 순화어 홍보를 위한 국립국어원의 노력은 나와 있지 않다.

7. 「순화어 사용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막대그래프는 국어 순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한눈에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②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8. '○○○ 박사'는 외래어 중에서 그냥 사용할 말과 순화할 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순화어와 외래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대단원 핵심 문제 pp. 280-283

1 ② **2** ④ **3** ④ **4** ① **5** ④ **6** '-ㄹ 것이다'를 통해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7** ⑤ **8** ① **9** ③ **10** ③ **11** ③ **12** ③ **13** ① **14** ④

1. ㉠은 하게체, ㉡은 하십시오체, ㉢은 해라체, ㉣은 하오체이다. 격식체는 높임의 순서에 따라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로 나뉜다.

2. ⓑ를 ⓐ와 같은 현재 시제로 바꾸려면 선어말 어미 '-는-'이 아니라 '-ㄴ-'을 사용하여 '읽어 버린다'로 바꾸어야 한다.

3. 나머지는 모두 과거의 사건을 말하고 있으나, ④의 '글렀다'는 의미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

(001~061)정답.indd 47 2018-02-05 오후 12:09:33

4. 형이 병원에 가서 진료 예약을 하고 동생과 전화를 하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며, 이 전화 통화의 내용을 아들(동생)이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5. ㉣은 부사격 조사 '-에게'를 넣어 피동문을 만들 수 없다. '그에 대한 오해가 영희에게 풀렸다.'는 어색하므로 부사어 구인 '-에 의해'를 사용해 피동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7. ㉤은 '(선생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이므로, '선생님'은 문장의 객체이다. 즉 '드리다'는 문장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를 높이기 위해 활용된 것이다.

8. 부탁하는 말하기를 할 때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부탁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상대에게 부탁하게 된 이유를 밝히면 말하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9. ⓐ의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③이다.
| 오답 풀이 | ①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낸다.
②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④, ⑤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10. ㄴ은 직접 인용절과 달리 간접 인용절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중화되는 것을 보여 준다.

11. 사회자가 순화어가 실제로 잘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효용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를 순화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12. 국립국어원장은 국민들이 순화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도 순화어를 계속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13. 사회자는 국립국어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대담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상대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4. ㉠과 ㉡은 주로 서비스업,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표현은 고객을 존대하는 태도를 보이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화자가 아랫사람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생긴 것은 아니다.

서술형 문제 p. 284

1. **| 예시답 |** '덫이 깔려 있고'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동문이 능동문으로 바뀔 때는 문장 성분이 바뀌는데, 피동문의 부사어는 능동문의 주어가 되고,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그리고 피동문의 서술어에서 피동 접미사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덫을 깔아'가 된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을 능동문으로 올바르게 바꾸어 쓰고 그 과정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
	㉠을 능동문으로 바꾸는 과정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
	㉠을 능동문으로 올바르게 바꿔 쓰기만 한 경우	2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2. **| 예시답 |** '오래 뵙지 못했더니'에서는 문장의 객체인 파수꾼 '나'를 높이기 위해 '뵙다'라는 특수 동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에서는 주체인 파수꾼 '나'의 신체 일부분인 '흰머리'를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으로써 주체 높임 중 간접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촌장은 비격식체 중 해요체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인 파수꾼 '나'를 높이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체계 안에서 ㉡을 정확하게 분석한 경우	5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 두 가지를 활용하여 ㉡을 정확하게 분석한 경우	3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 한 가지만 활용하여 ㉡을 정확하게 분석한 경우	2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3. **| 예시답 |** '표제란 기사문을 대표하는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본문을 한눈에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기사의 표제는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순화어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순화어들이 선정되었는데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또 '사장 위기'라는 말에 작은따옴표를 함으로써 이 기사의 주제인 '순화어 사장'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요소	채점 기준	배점
내용	표제가 신문 기사에서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쓰고, 필자의 의도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5
	표제가 신문 기사에서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쓰고, 필자의 의도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
	표제가 신문 기사에서 하는 역할만 서술하였거나 필자의 의도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2
분량	170자 이하 또는 230자 이상인 경우	-1
기타	• 제반 어문 규정을 어긴 경우 0.5점씩 감점 • 문맥에 어긋난 경우 문장당 0.5점씩 감점	

(001~061)정답.indd 48 2018-02-05 오후 12:09:33

1등급 완성 문제

1. 문학 속으로

출제 예상 문제 pp. 288-293

1 ③ **2** ⑤ **3** ② **4** ⑤ **5** ⑤ **6** ③ **7** 사람의 몸, 나라의 정사 **8** ④ **9** ④ **10** ② **11** 나'의 이런 행동(꾀병)이 자주 있었다. **12** ③ **13** ⑤ **14** ③ **15** ④ **16** 국군과 인민군이 평화롭게 함께 사진을 찍은 장면 **17** ① **18** ② **19** ⑤

1. (다)는 행랑채를 수리하며 느꼈던 점을 사람의 몸과 정치에 적용하는 유추적 발상을 활용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심상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서리서리', '구뷔구뷔' 등의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② (가)는 추상적 시간인 밤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기발한 상상력으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었다.

③ (나)는 '밝음 속에 사라지고', '어둠 속에 사라진다.'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 있다.

④ (가)는 '넣다'와 '펴다'의 대비, (나)는 '밝음'과 '어둠'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

3. (가)는 평시조로 4음보의 형식을 띠고 있다.

4. (나)에서는 자연물인 '별'과 인간이 서로를 응시하는 존재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조적 성찰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사색과 친밀한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5. [C]에서 [A]의 경험과 [B]의 추론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

6. ⓐ는 임이 부재하는 시간으로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지만, ⓑ는 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다. ⓑ를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는 임과 떨어져 있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고, ⓑ는 임과 함께 있어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④ ⓐ는 동짓달의 밤으로 임과 떨어져 있어 춥게 느껴지는 시간이고, ⓑ는 '춘풍'이 부는 계절의 밤으로 임과 함께 있어 따뜻하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⑤ ⓐ는 임과 떨어져 있어 화자에게 부정적인 시간이고, ⓑ는 임과 함께 있어 화자에게 긍정적인 시간이다.

7. 행랑채를 수리했던 경험을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사에 적용하고 있다.

8. ㄴ은 작년 이맘때, ㄱ은 어저께 낮, ㄹ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다. '나'가 장인과 싸운 것은 점순이의 부추김 때문이므로 ㄷ은 ㄱ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9. 뭉태는 '나'와 장인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뭉태의 말을 통해 장인이 결혼을 미끼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교활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내 멱살을 웅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에서 장인이 거친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에서 '나'를 부추기는 점순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나'에 비해 성례에 대해 능동적이며 야무지고 당돌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라)의 뭉태의 말을 통해 '나'가 사 년 동안이나 대가 없이 일을 만 해 준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0. 이 소설은 '나'와 장인, '나'와 점순이 등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을 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모', '모판', '벼 담긴 키' 등 농민 생활과 관련된 단어와 '승겹다', '문태며' 등의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느낌을 주고 있다.

③ 이 소설은 서술자인 '나'의 1인칭 시점에서 구어(口語)체의 쉬운 말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④ "이 대가릴 까놀 자식"과 같이 비속어를 구사하여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장인님의 아랫배(가 너머 먹은 걸 모르고 내병이라나, 그 배)를 불기 위하야'에서처럼 괄호를 활용하여 서술자의 속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1. '또'는 '어떤 일이 거듭하여'의 뜻이므로 "왜 또 이래"에서 '나'의 이런 행동(꾀병)이 전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 ⓒ는 점순이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부끄러워 얼굴이 발개진 것이다.

13. (가)는 상영 시 관객과 간접적으로 교류하지만, (나)는 공연 시 관객과 직접 교류한다.

14. 'S# 163'은 전원주택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인희와 정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 두 사람의 행복했던 과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 '작가'는 장면 속에 직접 등장하여 소설의 서술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객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는 않다.

16. 맥락으로 볼 때 ㉠에는 국군과 인민군이 서로 평화롭게 어우러져 함께 사진을 찍은 장면이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17. (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이념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다.

18. 치성에게서 삶에 대한 의지 없이 자포자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택기가 현철에게 "형!"이라 부르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현철이 촌장에게 "정신차리세요. 이러다가 이 작자들이 부락민들 죄다 사살하고 갈 겁니다."라고 하는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001~061)정답.indd 49 2018-02-05 오후 12:09:33

④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군인 치성에게 "우리 아부지하고 동갑이네."라고 하는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보아하니 다를 내 손아래 같은데…… 그만들 칭얼대고……."하는 촌장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19. ⓔ는 희극적인 대사를 통해 갈등의 긴장감을 덜어 내는 효과가 있다.

수능형 고난도 문제 pp. 294-297

1 ② **2** ⑤ **3** ③ **4** ② **5** ④ **6** ⑤ **7** ① **8** ②

1. (가)에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평시조로 4음보의 정형률로 이루어져 있다.
③ '서리서리', '구뷔구뷔'의 반복 표현을 통해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④ (나)는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지다.'와 '너 하나 나 하나'에서 대구가 나타난다.
⑤ 음보는 띄어 읽는 단위이다. (나)는 '밤이 / 깊을수록'의 2음보, '별은 / 밝음 속에 / 사라지고'의 3음보가 교차되는 자유율이 나타나 있다.

2. '춘풍'이 불어오는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계절적으로 '봄'이므로 '동짓달 기나긴 밤'보다 물리적인 시간도 짧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갈무리해 두었던 시간을 임이 오신 날 밤에 '구뷔구뷔 펴리라'는 것은 임과 만날 때, 그 만남의 시간을 오래도록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② 시간을 갈무리해 두었다가 다시 펼쳐 낸다는 표현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 낸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기다림의 정서를 강조한 것이다.
③ 시간을 물질인 것처럼 베어 내고 갈무리해 두었다가 다시 펼쳐 낸다는 표현은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눈에 보이게 하면서 그리움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④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임이 부재하는 시간으로 화자에게 아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고, '어론 님 오신 날 밤'은 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다. 이 두 시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외로움과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3. ㉠은 실제로는 '내가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별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는 '공명'과 '부귀'를 꺼려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마치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려하는 것처럼 주객을 전도하여 표현하였다.

4. 사건이 눈앞에서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것은 (나)와 같은 극 갈래의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서사 갈래와 극 갈래는 둘 다 사건의 전달을 중시한다.
③ 서사 갈래는 극 갈래와 달리 서술자가 등장하여 인물이 심리에 대해 해석이나 평을 할 수 있다.
④ 극 갈래는 서사 갈래와 달리 인물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내용과 주제를 전달한다.
⑤ 극 갈래는 공연이나 상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있다.

5. ㉣은 어수룩한 '나'가 장인이 주의를 준 사항을 잊어버린 것이지 알면서도 일부러 엉뚱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S# 168'에서 정철의 '여보…….'라는 대사 앞에 '인물은 보이지 않고 대사만 들리는 화면'인 '오프(OFF)' 지시가 있으므로 정철의 모습을 통해 인희의 죽음을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이 글은 '잘못을 빨리 알아 고쳐 나가는 자세의 필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자 창작된 것이다.

8. A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하고, 이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한다.

2. 말과 글의 힘

출제 예상 문제 pp. 299-302

1 ⑤ **2** ③ **3** ③ **4** 프랑스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여 포도주를 그들만의 것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5** ④ **6** ③ **7** ① **8** ④ **9** ④ **10** ④ **11** ① **12** ⑤

1. 한국의 고유 사상에 대한 조지훈의 고유 사상은 본디부터 있는 사상이 아니라 개성적으로, 주체적으로 있게 된 사상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답이라고 하였다.
②, ④ 조지훈의 견해를 제시하며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민족의 지리적 · 역사적 환경 속에서 정착된 사고방식을 한국 고유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프랑스가 포도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배, 양조, 보관, 관리, 유통하여 포도주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포도주는 프랑스 정체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답이라고 하면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런 문제'는 시원이 고유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선보이다'는 '선보다'의 사동사로, '인물의 좋고 나쁨, 마땅함, 마땅하지 않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나서 살펴보다.' 또는 '물건의 좋고 나쁨을 가려보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의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는 '제시하다' 등이 쓰일 수 있다.

(001~061)정답.indd 50 2018-02-05 오후 12:09:34

5.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불충분함, 부적적함 등을 지적하는 단계로, '찬성 1'은 '반대 2'가 제시한 주장의 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6. 유전자 변형 기술 자체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전자를 변형하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농산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여러 동식물들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좋은 환경이라고 하였으므로 인간의 손이 닿은 인위적인 환경이 이에 상반되는 개념이다.

② 모나크나비 애벌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다른 생명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④ 한 번 파괴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든다고 하였다.

⑤ 유전자 변형으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농산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7. 벼의 품종 개량과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는 개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하며, 유전자 변형 기술과 벼의 품종 개량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8. '찬성 2'는 시험관 아기 기술을 예로 들어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 2'는 '프랑켄푸드'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고, '인간의 손이 닿을 때마다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며 기존의 통념을 전제로 하여 자연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소설이 허구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프랑켄푸드'라는 표현이 허구의 의미를 갖는다고는 하지 않았다. 소설에 쓰인 말을 근거로 제시한 점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10. (나)는 토론의 최종 변론 단계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함으로써 상대편과 판정인에게 자신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11. '찬성 2'는 시험관 아기 기술처럼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우려와 반대는 항상 존재하지만 늘 기우였음이 밝혀졌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2. 글을 읽으면 필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비해, 토론을 하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수능형 고난도 문제 pp. 303-305

1 ④ **2** ③ **3** ⑤ **4** ⑤ **5** ② **6** ③ **7** ③

1. 개성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위조품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출처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2. 보통 원작자가 그린 것인가의 여부를 위조품의 고유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는 위조품이 원품과 구별되는 속성을 갖는가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보고 있다.

3. 복제품은 일정 수준의 미를 갖추고 있으나 개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므로,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개성을 살린 창작물로 볼 수 없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의 근로 시간을 비교하였을 뿐 공휴일 수에 따른 근로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공휴일은 공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날이라고 하였다.

② 우리나라 공휴일은 총 67일이고, 주말을 제외하면 15일이라고 하였다.

③ 실제 산업 현장의 조업일 수와 매출을 근거로 공휴일 관련 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④ 장기적인 측면과 생산성 등을 근거로 공휴일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5. 제시된 글에서 관용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③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 자료, ○○○ 의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 ·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④ 표제와 부제를 통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기업 관계자, 국회의원의 말 등을 직접 인용하여 상반되는 양측의 입장을 골고루 제시하고 있다.

6. 기업에서는 조업일 수와 매출을 근거로 공휴일 확대에 난색을 표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원 측에서는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입장의 견해가 나뉘는 지점인 쟁점은 '공휴일 확대가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가?'이다.

7. 이 글과 〈보기〉 모두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 내용을 ○○○ 의원을 말을 빌려 제시하고 있는 반면 〈보기〉에서는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반면 〈보기〉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④ 산업 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액에 대한 내용은 〈보기〉에만 나타나 있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공휴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휴식권을 보장할 경우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001~061)정답.indd 51 2018-02-05 오후 12:09:34

4. 국어의 규범과 변화

출제 예상 문제 pp. 307-310

1 ② **2** ⑤ **3** ⑤ **4** ⑤ **5** ③ **6** ② **7** '색연필'은 'ㄴ' 첨가와 비음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생연필]과 같이 발음한다. **8** ④ **9** ④ **10** ① **11** ⑤ **12** ② **13** ④ **14** ① **15** ① **16**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ㅣ'를 사용했던 데에 현대 국어에서는 '가'를 사용하고 있다.

1. 제시된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은 된소리되기 현상이다. '옷고름'은 [온꼬름]으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오답 풀이| ① '생일날'은 [생일랄]과 같이 'ㄴ → ㄹ'의 음운 교체가 일어난다.

③ '피어라'의 [피여라]와 같이 반모음이 첨가된다.

④ '끊겨서'는 [끈켜서]와 같이 'ㅎ+ㄱ → ㅋ'의 거센소리되기, 즉 음운 축약이 일어난다.

⑤ '녀자 → 여자'의 음운 탈락(두음 법칙) 현상이 일어난다.

2. '교과서'는 '교과+서'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교과서]가 표준 발음이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단어들은 '문+고리 → [문꼬리]', '눈+동자 → [눈똥자]', '굴+속 → [굴:쏙]', '물+동이 → [물똥이]'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3. '몰상식'은 'ㄹ'로 끝나는 한자와 'ㅅ'으로 시작하는 한자의 결합이므로 이 글의 규정 속에서 발음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머지 단어들은 이 글에서 발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4. '난로'는 [날로]로 발음되므로 유음화의 예이다.

|오답 풀이| ① '부엌문[부엉문]'은 'ㄱ → ㅇ'의 비음화 사례이다.

② '벚나무[번나무]'는 'ㄷ →ㄴ'의 비음화 사례이다.

③ '앞날[암날]'은 'ㅂ → ㅁ'의 비음화 사례이다.

④ '막일[망닐]'은 '막'과 '일' 사이에 'ㄴ'이 첨가된 후 'ㄱ → ㅇ'의 비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5. '잠가'는 '잠그-+-아'에서 'ㅡ' 탈락이 나타나고, '잡히다'는 [자피다]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인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6. 구개음화는 잇몸소리 'ㄷ, ㅌ'이 뒤의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센입천장소리 'ㅈ, ㅊ'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이는 'ㅣ' 모음이 센입천장 가까운 곳에서 소리 나기 때문이다.

8. (가) [연휴에]는 '연휴에'의 '에' 앞에 반모음 'ㅣ'가 첨가된 것이다(ⓒ). (나) [아랜마을]은 [아랟]의 받침 'ㄷ'이 'ㄴ'으로 바뀐 비음화, 즉 교체에 해당한다(ⓐ). (다) [구피다]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된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해당한다(ⓓ). (라) [편차는]은 '편찮은'에서 'ㅎ'이 탈락된 경우(ⓑ)이다.

9. 한글의 표음 기능은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놓다[노타]'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10. 조사는 붙여 써야 하므로 '집+에서(부사격 조사)+만(보조사)+이라도(보조사)'처럼 모두 붙여 쓴다.

|오답 풀이| ② '들어줄+만하다(보조 용언)'로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성이다. 이때 앞말이 합성 용언이므로 '들어줄 만하다'처럼 띄어 써야 한다.

③, ④ '만큼'은 '-한, -할'과 같이 관형형 뒤에 쓰일 때만 의존 명사이고 그 외에는 조사로 쓰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⑤ '한두'는 합성 수관형사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11. '훗날'은 [훈:날]로 발음되므로 3-(2)의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3-(3)과 같이 'ㄴㄴ' 소리가 덧나는 예는 '나뭇잎[나문닙], 깻잎[깬닙]' 등이다.

12.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라는 뜻으로 '들다'의 본뜻과 무관하므로 '드러나다'로 써야 한다.

13. 이 글은 표기, 음운, 어휘, 문법의 측면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즉 국어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춘 글이므로 국어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14. '노미'에 들어 있는 음운들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15. '나랏말ᄊᆞ미'의 'ㅅ'은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하는 형태소이다. '현대어 풀이'에도 '우리나라의 말이'와 같이 합성어가 아닌 '구'로 풀이해 놓았다.

수능형 고난도 문제 pp. 311-313

1 ④ **2** ② **3** ③ **4** ② **5** ③ **6** ⑤ **7** ④ **8** ④ **9** ⑤ **10** ① **11** ④

1. '솔잎'의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솔립]은 합성어 사이에서 'ㄴ 첨가' 현상이 먼저 일어난 뒤([솔닙]), 'ㄴ → ㄹ'의 유음화 현상이 이어 일어난 결과이다.

2. '되-+-어'가 〈보기〉의 첫째 문단에서 언급한 반모음화 즉 음운 축약을 겪는다면 [돼]로 될 것이고, 둘째 문단에서 언급한 반모음 첨가 현상을 보인다면 [되여]로 될 것이다. ②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인접한 두 모음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어 이중 모음이 되는 반모음화 현상(음운 축약)을 보인 반면, ②는 반모음 첨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담력'은 [담:녁]으로 발음되어 순행 동화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은 [궁민]으로, '잡는다'는 [잠는다]로, 발음되므로 이들은 역행 동화로 볼 수 있다.

4. '닳아'와 '싫어'의 발음은 각각 [다라], [시러]이므로 받침 'ㄶ' 뒤의 'ㅎ'이 탈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ㅎ'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한다고 탐구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01~061)정답.indd 52 2018-02-05 오후 12:09:34

5. '지붕'처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이유는 '-옹'이 흔히 쓰이는 접미사가 아니며 어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6. '게'는 의존 명사 '거'와 주격 주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7. ④는 나열된 동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연결 어미인 '-든지'를 쓰는 것이 옳다.

8. '생각'은 무성 자음 'ㄱ'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를 생략한 '생각건대'가 옳은 표기이다.

9. '현뎌케'의 기본형을 '현뎌ᄒᆞ다'라고 볼 때 이는 음운 첨가가 아니라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된 것을 반영한 표기이다.

10. ㉠ '부텻긔'의 '긔'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의 '께'('에게'의 높임)와 공통된 역할을 한다.

11.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 17세기 자료에는 쓰이지 않았으며, 조사 '가'는 19세기 자료부터 나타난다.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출제 예상 문제 pp. 315-319

1 ③ **2** ④ **3** 특정한 대상을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낯선 느낌을 주어 예술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4** ⑤ **5** ② **6** ① **7** ⑤ **8** ⑤ **9** ⑤ **10** 언어에는 지역 환경, 생활 방식, 공동체의 역사와 가치관 등 사회 · 문화 요인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11** ③ **12** ② **13** ⑤ **14** ② **15** ①

1. 로트레아몽의 시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예시를 들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문학 분야에 사용된 데페이즈망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데페이즈망'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④ 마그리트의 그림 「골콘다」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였다.

⑤ 우리에게 친숙한 미술가로 자리 잡은 르네 마그리트를 언급하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2. 르네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데페이즈망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3.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양산이 놓여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배치이지만, 바로 그 기이하고 낯선 느낌이 시적 · 예술적 상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전형적인 데페이즈망의 표현 효과라고 하였다.

4. 데페이즈망은 낯선 느낌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로운 환상과 추리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5. 땅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고, 그 사람들이 자로 잰 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포진해 있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으로 현실 법칙을 벗어난 예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남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거나(ㄴ), 검은 모자를 쓰고 있거나(ㄷ), 배경에 푸른 하늘과 집들이 있는 것(ㄹ)은 현실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6. ㉠은 조각과 상관없는 피의 이미지를, ㉡은 상관없는 두 그림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있다.

7. 「피리 부는 소년」에 그려져 있는 소년의 연주로 인해 「절규」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림에 배치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서로 관계없는 두 그림을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냈으므로 개념적 연결이다.

② ㉡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그림,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과 뭉크의 「절규」를 함께 배치하여 만들어 낸 광고이다.

③, ④ 그림의 제목과 그림 속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뭉크의 「절규」에 그려진 인물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의 광고 문안을 통해 같은 건물 위층에 사는 '피리 부는 소년'이 일으키는 층간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⑤는 글에 나타난 필자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라고 하였지만 방언보다 표준어 사용을 즐긴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예로 든 두 노랫말이 세대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② 같은 지방 사람끼리 그 말(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서로가 같은 지역 출신임을 알고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③ 지역마다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언어는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면서 변화 · 발전한다고 하였으므로 교류가 많은 나라의 말이 그렇지 않은 나라의 말보다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11.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가)보다 (나)에서 두드러진다.

|오답 풀이| ① 헤어진 임을 그리워하다가 울다 지쳐 꽃잎이 빨갛게 멍이 든 것이라고 하였다.

②, ⑤ (나)는 (가)와 달리 함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 없이 감정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해일 수 / 없이 / 수많은 / 밤을', '내 가슴 / 도려내는 / 아픔에 / 겨워'와 같이 모든 행이 4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12. 언어가 지역 환경과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고는 하였으나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언급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다.

13. (가)는 예를 들어 오늘날 청소년들의 담화 관습을 설명하고

(001~061)정답.indd 53 2018-02-05 오후 12:09:35

있고, (나)는 고전 소설인 「유충렬전」을 제시하여 과거의 담화 관습을 보여 주고 있다.

14. '선영', '백골', '발원'은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어휘이다.

15. 유심은 자식을 낳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신령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다.

수능형 고난도 문제 pp. 320-323

1 ② **2** ② **3** ① **4** ⑤ **5** ⑤ **6** ④ **7** ⑤ **8** ⑤ **9** ④

1. (가)에서는 데페이즈망의 개념을 제시한 후 마그리트의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개념적 연결의 개념을 제시한 후 공익 광고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2. ㉠과 ②는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록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3. 데페이즈망은 일탈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현실로부터 일탈하게 하여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4. 데페이즈망 기법에서는 파괴의 형식이 곧 창조의 형식이라고 했으므로 두 형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글을 통해 얻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첫 문단에 데페이즈망 기법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② 「레슬러의 무덤」이라는 그림을 예로 들면서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③ (가)의 마지막 문장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탐험은 시작되고 또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를 통해 데페이즈망 기법이 주는 효과를 알 수 있다.

④ 「레슬러의 무덤」은 장미 한 송이가 방 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였다.

5. ㉠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이고 ㉡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창의성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 나오는 공익 광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을 연결한 것이므로 개념적 연결이다.

② 바퀴 달린 신발과 지우개 달린 연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연결하는 물리적 연결이다.

③ ㉡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물리적 연결보다 개념적 연결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것을 만든다고 하였다.

6.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 글은 (가)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우리말에 나타내는 담화 관습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② (가)는 우리말 담화 관습인 겸양 어법, 완곡어법, 관용 표현을 대등한 관계에 놓고 하나씩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③ '칼의 상처는 아물면 되지만, 말의 상처는 약도 닿을 수 없는 마음에 남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설망어검(舌芒於劍), 촌철살인(寸鐵殺人) 등의 관용 어구를 활용하여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7.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은 겸양 표현과 완곡어법이다.

8. ㉠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상황이다. ①, ②, ③, ④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⑤는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다.'는 고기의 참맛을 알려면 겉만 핥을 것이 아니라 자꾸 씹어야 하듯이,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 버려야 좋다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소더러 눈멀었다 하면 노여워한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족한 점이라도 남이 그 결점을 들어 지적하면 싫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 / 아무리 비밀히 한 말이라도 반드시 남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

9. '나'가 한 말이 점순이의 정체성을 자극하고 있지는 않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② 점순이는 "느 집에 이거 없지?"라는 말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③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고, '나'도 자신을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이므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 점순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적절한 속담이다.

(001~061)정답.indd 54 2018-02-05 오후 12:09:35

6. 문학 너머로

출제 예상 문제 pp. 325-329

1 ④ **2** ④ **3** 〈보기〉에서 병국은 자신을 여행 중에 낙오되는 도요새와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병국에게 도요새는 현재의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에서의 도요새는 〈보기〉와 달리 자유로움을 찾아 비상하는 존재로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병국의 꿈을 의미한다. **4** ⑤ **5** ② **6** ② **7** ⑤ **8** '나(아버지)'가 어린 병국과 바다 구경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9** ① **10** ⑤ **11** '나'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따돌림과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파서이다.

1. 이 글은 작품 속의 서술자인 '나(아버지)'의 입장에서 서술한 1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제시된 부분은 '나'가 병국과 관련하여 윤 소령을 만나 오해를 푼 다음 병국을 데리고 부대를 나오는 장면으로, '나'의 입장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가 '병국'을 데려오기 위해 부대로 가 '윤 소령'을 만나는 장면만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러 인물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나'가 윤 소령을 만나는 상황에 대해 윤 소령을 본 인상, 윤 소령 말의 핵심, 병국(아들)에게 말을 건넸을 때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

③ 「도요새에 관한 명상」 전체에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지만, 제시된 부분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⑤ '나'와 윤 소령의 대화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고, 병국도 풀려나오는 것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나'에게 도요새는 북에 있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일 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는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뒷부분 줄거리]에서 '병국은 도요새의 비상을 꿈꾸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였으므로, 병국이 도요새를 보며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앞부분 줄거리]에서 재수생인 병식은 친구 족제비와 함께 철새를 독살해서 박제사에게 넘겨 용돈 벌이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병식이 도요새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뒷부분 줄거리]에서 병국은 동생 병식이 철새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투게 된다. 따라서 병식이 동진강 하구의 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병국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⑤ '윤 소령'은 병국의 행동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하고, 그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무장 공비 출현', '공업 단지 보안과 경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병국이 인지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안보 문제에 비해 작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나'는 병국의 초췌한 모습에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지만, 윤 소령을 의식하며 화를 내는 척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윤 소령의 호인다운 인상에 목소리가 시원시원함을 보고 그가 '인간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② '나'는 윤 소령에게 병국에 관한 일을 사과한 후 병국이 천성은 착한 아이라고 옹호하며, 병국이 의도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

③ 앞서 '윤 소령'은 병국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똑똑한 젊은이라고 느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병국의 행동이 무모했으며, 이는 사전에 양해나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윤 소령은 병국을 이해하면서도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④ '윤 소령'은 '1968년 11월 울산 · 삼척 지구 무장 공비 출현'과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보안과 경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국이 군 통제 구역을 출입하는 무모한 행동을 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5. (가)에서 병국을 만나러 부대로 가던 '나'는 바다를 보게 된다. 이를 계기로 '나'는 병국과의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아버지)'와 '병국(아들)'의 대화가 나오긴 했으나 둘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의 현재 장면에서 과거 회상 장면인 (나)로 장면이 바뀌긴 했지만 한 번일 뿐이기에 빠른 장면 전환이라 할 수 없고, 긴박한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④ 전체 4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각 부마다 시점을 달리하여 서술함으로써 각각의 등장인물의 내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해당 지문은 '나(아버지)'의 시점만 등장했기 때문에 '서술의 주체를 교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등장인물인 '나'나 '병국', '중위'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없다. 오히려 공단 공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불꽃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6. 산업화로 빠르게 달라진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이 글의 ㉮ '가스를 태우는 불꽃'은 도시화 · 산업화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보기〉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소재는 ㉤ '채석장 포성'이다.

9. (가)는 과거 탱자 가시에 찔렸던 경험을 토대로, (나)는 한국 사람의 피부를 가지고 싶어 탈색제로 세수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를 반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는 과거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 없으므로 교차하였다고 볼 수 없다.

(001~061)정답.indd 55 2018-02-05 오후 12:09:35

③ (가)에서 서술자는 편견을 버리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나)에서는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제시되고 있을 뿐, 공정한 생각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동일한 시간에 펼쳐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나)는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고조된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10. '아버지'는 '나'가 친구들의 따돌림과 공격 대상이 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색제로 하얀 얼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음 아파 탈색제가 든 비닐봉지를 내동댕이친 것이다. 이는 '나'의 무지함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탱자의 시큼한 맛(미각),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시각), 오래 남아 있던 탱자 냄새(후각) 등 다양한 감각적 심상 등을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가시 박힌 자리에 성이 나 손이 퉁퉁 붓자,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 있을 거'라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③ '나'는 탱자나무의 '가시'는 '꽃'과 '열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탱자나무가 가시를 안고, 그 상처를 이겨 내며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가라앉히고 있다.
④ '나'는 탈색제로 세수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의 얼굴색처럼 되어 사람들에게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탈색제로 세수를 하고 있다.

수능형 고난도 문제 pp. 330-333

1 ② **2** ③ **3** ① **4** ② **5** ① **6** ③ **7** ② **8** ③

1.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B]는 인물의 서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즉 [A]는 보여 주기로, [B]는 말하기 방법으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2. 노무과장은 표면적으로는 젊은이에 비해 정중하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버지를 배려하는 것이라기보다 아버지에게 은근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려하는 인물'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중략 부분 줄거리]의 '공장 굴뚝이 보이는 해안 지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간적 배경은 공업 단지가 들어선 개발 중인 바닷가 마을이라 할 수 있다.
② 아버지는 노무과장이 준 종이를 받고 손을 떨어 가며 읽는다. 따라서 이 장면에는 긴장감이 넘치는 배경 음악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아버지와 병국의 대화 장면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때 아버지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 장면에서는 아버지의 표정을 확대하여 그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
⑤ 과거 회상 장면에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풀죽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갈매기는 자유롭게 북쪽으로 날아간다. 이처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버지와 갈매기의 모습이 대조적이므로 ⑤는 적절한 의견이다.

3. (나)는 '서울 시민들처럼' 갑갑하게 산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직유법을 활용하여 홍제동 뒷산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꿩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장끼가 우짖고, 까투리는 새끼를 데리고 나오고, 언덕길에 내려오는 모습은 꿩 가족의 역동적 측면을 부각한다기보다 쓰레기를 주워 먹는 꿩 가족의 비참한 모습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복과 점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장끼가 우짖고'에서 청각적 심상을 파악할 수는 있다.
④ 개발 제한 구역에 갇혀 사는 서울 꿩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 뿐 어조(말투)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안타까움'이 대상에 대한 주된 심리 상태이므로 '그리움'을 보여 준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⑤ 부정적 현실인 개발 제한 구역에 갇혀 사는 꿩과 서울 시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4. ㄷ에서 꿩은 개발 제한 구역에 갇혀 살고 있기에, ㄴ으로 갈매기가 날아가듯이 자유로운 공간 이동을 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ㄱ은 ㄹ과 달리 새들이 많이 죽어 가는 공간이므로 자연물의 생존이 위협받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③ ㄱ은 개발이 한참 이루어진 곳이므로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곳이고, ㄹ은 꿩이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자연의 가치가 남아 있는 공간이다.
④ ㄴ의 해안선 북쪽은 갈매기가 자유로이 날아가는 곳으로 ㄱ에 있는 '나'가 가고 싶어 하는 고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ㄴ은 ㄱ의 인물이 당면한 문제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⑤ ㄱ에서는 도요새들이 죽어 가고 있고, ㄷ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에 갇힌 꿩들이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두 공간 모두 인간에 의해 자연물들이 생명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 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5. (가)는 과거에 탱자 가시에 찔렸던 순간을 회상하며 현재 자신의 마음속에 자란 가시(고통)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나) 또한 탱자 가시를 가지고 놀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자신의 삶 속에 많은 칼날이 있음을 돌이켜 보고 있다.

(001~061)정답.indd 56 2018-02-05 오후 12:09:35

6. ㉣의 가시는 자기를 보호하는 가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또는 자기와의 갈등 속에서 얻게 된 마음의 성처를 뜻한다.

|오답 풀이| ① 가시의 기능은 꽃과 열매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나무는 가시 대신 지독한 냄새가, 맛이 쓴 나뭇잎이, 열매에 든 독성이, 흉한 생김새가 가시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생명체마다 자기를 지키는 무기가 다르다는 뜻이다.

②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보고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낀 때는 유년 시절의 일이다. 그때에는 그 슬픔의 근원을 깨달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에 막연한 슬픔만을 느낀 것이다.

④ ㉡의 가시는 글쓴이가 겪은 삶의 고통을 의미한다. 그 고통이 '나'를 키웠다는 것은 고통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로트레크는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그가 절망 속에서 그린 그림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즉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사례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로트레크의 말 "내 다리 한쪽이 짧이 않았더라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를 통해 삶의 고통이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7. (가)의 글쓴이는 '가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바다'에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흰 나비에게 (가)의 글쓴이는 부정적 상황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8. '탱자는 가시를 가졌을까'라는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꽃을 지키기 위해 가시가 갖는 의미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드러내고 있다.

7. 매듭을 푸는 말과 글

출제 예상 문제 pp. 335-339

1 ⑤ **2** 힘들겠지만 고용주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3** ③ **4** ④ **5** ① **6** ④ **7** ② **8** ⑤ **9** ③ **10** 프랑스에 있는 의궤를 '장남', 한국에 있는 의궤를 '차남'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프랑스가 제시한 의궤 맞교환 형식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11** ② **12** ④ **13** ⑤ **14** ② **15** ⑤ **16** ① **17** ②

1. 필자는 차별 문제가 해결되려면 시민들의 의식 개혁과 새로운 법률 제정이라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2. 필자는 차별을 금지하는 소송의 증가가 우리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여성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포기하지 말고 차별 금지 소송을 해 보라고 권할 것이다.

3. '각종 위원회 설치'는 차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갑자기 생긴 일을 우선 그때의 사정에 따라 둘러맞춰서 처리함.'이라는 뜻을 지닌 임시방편(臨時方便)이 ㉠에 가장 잘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① 수주대토(守株待兎):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

④ 당랑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죽은 뒤에 약의 처방을 한다는 뜻으로, 때가 지난 뒤에 어리석게 애를 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필자는 차별 금지 소송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것만으로 차별 금지 소송이 활성화되면 차별 관련 법률 제정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③ 차별 금지 소송은 큰돈이 들고 귀찮은 일도 많아서 우리 법 제도에서 활성화되기 어렵다.

② 차별 금지 소송은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⑤ 의식 있는 소수의 변호사들이 진행한 차별 금지 소송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5. '기소'는 '특정한 형사 사건이나 그 피의자를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으로 검사의 고유 권한이다.

6. 이 글에서는 차별 금지 소송 전문 변호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현행 법 제도에서 차별 금지 소송은 많은 비용이 들고 절차가 까다롭다.

② 우리 사회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들어서 차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③ 필자는 차별 금지 소송의 금전적인 부분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⑤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혁과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법률의 미비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차별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7. 박흥신 대사는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서 프랑스가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한 국가라는 것이 한국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프랑스 측을 설득하고 있다.

8. 프랑스 측에서는 협상이 미진한 것은 양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협상은 프랑스 외무부의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집무실에서 재개되었다.

② 한국 측은 프랑스 측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방안을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001~061)정답.indd 57 2018-02-05 오후 12:09:36

③ 민간 전문가들이 합의한 의궤 맞교환 방식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았다.
④ 프랑스 측은 양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합의한 대로 의궤 맞교환 방식이 이뤄지기를 바랐다.

9. 프랑스 측은 의궤를 돌려 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1993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전제인 '교류와 대여'의 원칙에 근거하여 '의궤 맞교환' 방안을 고수하였다.

11. (나)에서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차별 문제는 모호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차별 문제는 헌법상의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 영역보다는 문제 해결이 수월하다고 하였다.

12. ㉠은 '여럿 가운데에서 가려내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④도 여럿 가운데서 이어달리기 선수를 가려낸 것이므로 ㉠과 같은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쁜 생각이나 버릇을 털어 없애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② '무엇에 들인 돈이나 밑천 따위를 도로 거두어들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③ '원료나 재료로 길게 생긴 물건을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⑤ '(사람이나 동물이 목을) 길게 늘이어 빼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13. 나이로 취업에 제한을 둔 사례는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이 말고 다른 조건으로 취업에 제한을 둔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다.

14. 여러 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측의 협상 전략과 방안이 변화된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15. (마)에서 프랑스 측은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문화재 반환 요청이 쇄도할 것을 우려했다고 하였다.

16. 의궤는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에서 한꺼번에 프랑스군이 약탈한 우리의 문화재이므로 묶음으로 절대 분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17. 한국 측은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문화재를 프랑스에 전시하는 방안을 프랑스 측에 제안했다. 즉, 한국 측은 국내법을 어기지 않는 협상안을 내놓았으므로 한국 측의 제안이 국내법에 어긋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한국 측은 의궤를 돌려받는 대신 우리의 문화유산을 프랑스에 전시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③ 프랑스 측에서 의궤를 몇 묶음으로 나눠 교체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④ 한국과 프랑스 양측은 20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만큼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⑤ 프랑스 측은 의궤를 전부 양도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요청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능형 고난도 문제 pp. 340-343

1 ④ **2** ④ **3** ⑤ **4** ① **5** ⑤ **6** ④ **7** ⑤ **8** ④

1. (나)는 분배 정책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가정한 후에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분배보다 시장 경제 체제가 소득의 균형을 이루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2. (나)의 필자는 분배 정책을 강화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로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고 있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분배 정책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필자는 나이, 종교,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② (가)의 필자는 소송에 돈이 많이 들고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차별 행위에 대한 소송 과정에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③ (나)의 필자는 국가가 너무 개입하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시장 경제 체제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다)의 필자는 프랑스 측과의 의궤 반환 협상에서 빼앗긴 의궤를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3. 〈보기〉와 같은 구조 안에서 법은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정도의 소극적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적극적 역할로 변모할 수 있다.

4. (가)의 필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소송은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한다고 국민의 의식 개혁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나)의 필자는 자유 경쟁이 심화되면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으니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한국과 프랑스는 오랜 시간의 협상 끝에 프랑스에 있던 의궤 모두를 한국으로 반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④ 우리 측은 의궤를 전부 양도받는다는 명분에 앞서 일단 의궤를 전부 한국에 가져온다는 실리를 택한다.
⑤ 자동차 부품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동차 회사는 이를 언론에 알리고 소비자 측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5. (나)의 내용만으로는 (나)의 필자가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6. ㉠은 사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은 엔진 작동에 이상을 일으켜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7. ⓔ '충돌(衝突)하다'는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다.'라는 뜻을 가지 '추돌(追突)'과 바꾸어 쓸 수 없다.

8. 프랑스는 위험에 대비해 의궤를 예닐곱 번에 걸쳐 나누어 옮기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효율성을 근거로 들어 한 번에 옮기자고 제안했다. 그러고 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네 번으로 나누어 이관하

(001~061)정답.indd 58 2018-02-05 오후 12:09:36

기로 합의한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체면을 지켜 주기 위해 우리가 배려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9. 우리 문학의 길을 따라

출제 예상 문제 pp. 346-352

1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ᄂᆞᆫ /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에는 임을 붙잡는 행위가 임을 서운하게 하여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2** ④ **3** ⑤ **4** ④ **5** ④ **6** ② **7** ⑤ **8** ① **9** 이러매 **10** ④ **11** ⑤ **12** ③ **13** ④ **14** 춘향을 비유한 표현은 '높은 바위'와 '푸른 나무'이다. 춘향은 이를 통해 이몽룡을 향한 굳은 절개와 지조를 드러내고 있다. **15** ② **16** ② **17** "오냐 춘향이, 설워 마라. 인명이 재천(在天)인데 설만들 죽을쏘냐." **18** ① **19** ① **20** ④

1. 화자는 사랑하는 임에게 매달리지도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이별을 수용하고 있다.

2. (나)의 화자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법은 반어법이다. 〈보기〉의 ㉡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앓아누운 자신을 "누워서 편히 지냈다."라며 반어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4. 이 시의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지,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낙월 등 자연물을 이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옥 ᄀᆞᄐᆞᆫ 얼굴'(옥 같은 얼굴)에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

③ '**히** 다 뎌 져믄 날의 눌을 보라 가시**ᄂᆞᆫ**고'라는 '여인 1'의 말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상대인 '여인 2'의 사연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어엿븐 그림재'(불쌍한 그림자가)의 '어엿븐'은 그림자에 화자가 자기 연민의 감정을 이입한 것이다.

5. (다)의 '오뎐된 계성'은 화자의 꿈을 깨게 만든 존재로 원망의 대상이지만 〈보기〉의 '늦은 봄의 두견'은 화자가 죽어서 되고 싶은 존재이다.

6. 〈보기〉의 '뷘 **ᄇᆡ**'는 화자의 무욕적 정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보여 주는 시어이다. 반면 (나)의 '뷘 **ᄇᆡ**'는 화자에게 서러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만 '무욕의 정서'를 상징한다.

③ ㉠만 화자에게 임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한다.

④ ㉠은 이상적 공간이 아니며, ⓐ는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현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뱃길을 보고자 했으나 배가 뜨지 못할 환경이라 사공 없이 '빈 배'가 걸려 있는 장면을 바라만 보고 돌아왔으므로 ㉠에 머물지 않았다.

7. (나)의 인물들은 운명에 순응하고, 공동체 의식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자할 뿐 적극적 투쟁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8. (가)의 '매운 계절'과 〈보기〉의 '백설이 만건곤**ᄒᆞᆯ** 제'는 모두 화자가 처한 극한의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9. 벼랑 끝에 선 위기 상황까지 몰려온 화자의 정서는 '이러매' 이후로 관조적 자세로 바뀐다.

10. 만도와 진수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기 위해 서로를 업어 주는 것은 공동체 의식으로 고난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약삭빠른 성격과는 관계가 없다.

11. 춘향이 이몽룡을 찾은 이유는 자신이 죽은 후 시신을 수습해 주길 바라서이지 자신을 구해 주길 바라서가 아니다.

12. [A]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난 부분으로 암행어사 출두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아전과 수령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관객들이 흥미로워할 부분을 자세히 묘사해 주는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현재의 상황으로, 현재와 과거의 교차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음 장면을 예고하고 있지도 않다.

② 아전과 수령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장면으로 역동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나,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④ 4.4조의 운문체가 사용되어 있으나, '갈등의 완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사건의 요약적 제시'가 아니라 장면의 극대화가 드러난 부분이다.

13. ㉠의 "모두 명관이로구나."에 반어적 표현이, ㉡의 '어찌 아니 좋을쏜가.'에 설의적 표현(의문형 어미 사용)이 사용되었다.

15. 이 글의 시간적 배경은 조선 후기이고, 공간적 배경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16. 이몽룡이 춘향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7. 어사또가 춘향에게 인명이 재천인데 설마한들 죽겠느냐고 말하는 구절은 옥중의 춘향이가 앞으로 어사또에 의해 구제될 것임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18. 춘향은 "심은 나무가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와 같은 관용적 표현을 통해 이몽룡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19. (가)와 〈보기〉 모두 구어체로 서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0. 이몽룡의 조상이 묻힌 선산에 묻어 달라고 한 것은 사대부가인 이몽룡의 가족으로 인정받아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하는 춘향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001~061)정답.indd 59 2018-02-05 오후 12:09:36

수능형 고난도 문제 pp. 353-355

1 ③ **2** ④ **3** ⑤ **4** ⑤ **5** ① **6** ③ **7** ⑤ **8** ①

1. (가)에서 「교목」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절제된 언어를 정선하여 '정신시의 한 절정'을 보여 준다고 하였으므로, 절제된 언어의 정선은 치열한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간의 정신이 얼마만큼 ~ 모범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가)에서는 이육사의 시를 '정신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에서 모두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② 절제된 언어를 정선하여 정신시의 한 절정을 보여 준 것이 모범적이라는 것이지, 모범적인 시인은 반드시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고 정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④ '이육사가 일제 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시대의 매운 바람을 몸으로 견디며'라고 했으므로, 여기에서 '매운 바람'은 일제 강점기의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절제된 언어로 표현된 정신시의 절정인 「교목」이 내성과 오기와 독기를 길러 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길러야만 정신시의 절정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2. (나)에는 부정 명령형이, (다)에는 현재형 어미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두 작품 모두 화자의 내면적 독백일 뿐 우리 민족에게 일제의 탄압을 헤쳐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다.

3. (나)의 '푸른 하늘', '낡은 거미집', '꿈길', '검은 그림자', (다)의 '북방',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 '겨울', '강철', '무지개' 등은 모두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① (다)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에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 있다. 또한, 이것을 통해 화자의 현실을 넘어서는 극복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와 (다) 모두 화자 내면의 정서를 드러낸 독백체만 사용되었다.

③ (나)의 '푸른 하늘'과 '검은 그림자'에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나, 이를 '뚜렷한 색채 대비에 의해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에는 색채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나)의 「교목」은 시적 대상과 화자가 일치하는 작품으로, 교목을 의인화하여 교목이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가 자연 친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 화자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려고 한 것일 뿐 자연 친화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다)에는 의인법과 자연 친화적 태도 모두 드러나 있지 않다.

4. (다)와 〈보기〉 모두 부정적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이를 초극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5. (가)에서 기생 아닌 춘향이 변 사또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춘향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고 했으며, 남원 읍내 백성들이 한결같이 춘향을 지지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② 기생의 딸 춘향의 승리는 당시의 신분 제도를 재확인한 것이 아니라 (가)의 설명처럼 '기생 아닌 춘향이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적 해방을 이룩'한 것이다.

③ 춘향과 이몽룡의 '계급을 초월한 결혼'은 작품의 인기를 높이는 구실을 하였다.

④ 작품의 표면적 주제는 작품의 품격을 높이는 구실을 하였다.

⑤ (가)에서 '기생 아닌 춘향은 변 사또의 요구를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했으므로 춘향이 내적 갈등으로 인해 변학도 앞에서 당당했던 것이 아니다.

6. 열녀불경이부(烈女不敬二夫)가 당대 여성들을 억압하던 윤리적 관점이기는 하지만 이를 춘향을 독점하려는 이몽룡의 윤리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7. (다)에는 과장법을 사용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8. [A]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고, [B]는 자신을 살린 '어사 낭군'에 대한 반가움과 기쁨을 표현한 말이다.

10. 다매체 시대, 가꾸는 국어

출제 예상 문제 pp. 357-360

1 ① **2** ③ **3** ② **4** ③ **5** ⑤ **6** ④ **7** ② **8** ④ **9** ② **10** ⑤ **11** ⑤ **12**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내세움으로써 해결 방안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이다. **13** ④

1. (가)의 파수꾼 '나'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번갈아 사용하며 촌장을 높이고 있고, (나)의 파수꾼 '다'는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촌장'은 파수꾼 '나'에게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사용하여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모두 사용하고 있고, '오래 뵙지 못했더니'를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며, 파수꾼 '다'에게는 해라체와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2. ㉢의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3. ⓐ의 '깔려'는 '깔다'의 어간 '깔-'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피동 접미사를 활용한 짧은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의 '치이다'는 '덫 따위에 걸리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피동사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의 '여기저기'는 부사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에 부사어의 생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없으며, ⓑ는 피동문으로 볼 수 없다.

③ ⓐ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덫을 깔아 놓고'가 된다.

(001~061)정답.indd 60 2018-02-05 오후 12:09:36

④ '치이다'는 '덫 따위에 걸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치다'의 피동사가 아니다. 따라서 피동 접미사 '-이-'가 쓰인 것이 아니다.
⑤ ⓑ의 '치이다'는 피동사가 아니므로 '치여 있고'는 피동 표현이 될 수 없다.

4. ㄱ과 ㄴ의 인용절 모두 현재 시제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시간 표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ㄱ은 큰따옴표(" ")를 통해 나타낸 직접 인용 표현이며 ㄴ은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 표현이다.
② ㄱ은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라고'가, ㄴ은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사용되었다.
④ ㄱ의 해요체는 ㄴ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⑤ ㄱ의 인용절의 종결 표현 '-이에요'는 해요체로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ㄴ에서는 이러한 상대 높임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5. ⑤는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이 '영수'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므로 사동문이다. 나머지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피동문이다.

6. ㉡은 과도한 높임 표현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치아'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할아버지'를 높인 표현의 예이다.

7. '좁히다'는 '좁다'의 사동 표현이므로 '좁혀지다'는 이중 피동문이 아니다.

8. (ㄱ)은 ⓒ 화자의 의도나 의지, (ㄴ)은 ⓐ 화자의 추측, (ㄷ)은 ⓑ 가능성이나 능력에 해당한다.

9. 한글 자모가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의 모습은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 '등재'는 '기록하여 올림', '서적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등의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은 '게시'의 뜻풀이이다.

11. 전문가들은 외래어 가운데 그냥 사용할 말과 순화할 말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순화어 홍보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시된 바 없다.

13. 이 광고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익 광고로 차가운 색감과 기괴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수능형 고난도 문제 pp. 361-362

1 ⑤ **2** ③ **3** ③ **4** 공식적이고 듣는 이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는 상황 **5** ③

1. ⑤의 '-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화자가 미리 확신하여 말함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이다. ④의 '-었-'은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화자가 미리 확신하여 말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에는 '여보게',' 모양일세그려',' 빨리게' 등의 하게체가 쓰였다. ⓐ~ⓔ 중 하게체는 '-는가'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인 ⓒ이다.

3. 경민이는 리안이가 보여 준 사진을 보고 리만이가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찍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안이가 보여 준 사진에는 리안이가 찍혀 있으므로 경민이가 생각하는 사진을 찍은 주체는 리안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이다.

4. 〈보기〉에 제시된 높임 표현은 상대 높임의 격식체이다. 격식체는 공식적이고 듣는 이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는 상황에서 쓰인다.

5. (라)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순화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의 자료에서는 순화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001~061)정답.indd 61 2018-02-05 오후 12:09:36

메모